



2030 어젠다 달성을 위한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 활성화 전략 모색 연구

2020. 12

2030 어젠다 달성을 위한 부산글로벌파트너십 (GPEDC) 활성화 전략 모색 연구

2020. 12

한국국제협력단

저자

책임연구원

김 지 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연구 실적

- ▷ 2020,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 현황과 추진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3-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저)
- ▷ 2017, Grants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Tanzania, 무역통상학회지, 17(2):31-50. (공저)

공동연구원

박 해 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연구 실적

- ▷ 2020, Factors to enhance re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 ETS. Energy Strategy Reviews, 29(C).
- ▷ 2020, Cross-Border Spillover Effect of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between China and Korea*. The Korean Economic Review, 36(1), 227-248. (공저)

송 지 선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연구교수

주요 연구 실적

- ▷ 2019, A Comparative Study of the Management Systems for Foreign Aid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공저)
- ▷ 2018, KOICA 프로그램기반접근법(PBA) 사업 현황 분석 및 이행방안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공저)

한 승 현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주요 연구 실적

- ▷ 2020, Evaluation of a Ten-Year Team-Based Collaborative Capacity-Building Program for Pediatric Cardiac Surgery in Uzbekistan: Lessons and Implications. *Annals of Global Health*, 86(1):1-11. (공저)

▷ 2019. 국제개발사업의 성과의 의미와 성과 전파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과정적 성과로서의 학습성과의 의미와 공유. *국제/지역연구*, 28(4):163-196. (공저)

연구보조원

안 지 용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이 연구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위탁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수행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보고서에는 제3자에게 권리(저작권)가 있는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이용 허락은 사용자가 권리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하에 인용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표기 바랍니다.

김지현, 박혜민, 송지선, 한승헌, 안지용. 2020. 2030 어젠다 달성을 위한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 활성화 전략 모색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본 자료는 KOICA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ECD DAC 가입을 기점으로, 한국은 지난 10년간 책임 있는 중견 공여 국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1년 개최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하 HLF-4)의 개최국으로서,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선진국과 신흥국, 민간 등 다양한 공여주체들을 포괄하는 ‘부산선언’을 채택하는데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영향력 있는 신흥공여국의 참석을 이끌어내며 모든 개발주체가 참여하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GPEDC)’ 출범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본 연구는 최근 출범된 OECD DAC 비공식 작업반을 포함한 GPEDC를 둘러싼 개발효과성 논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GPEDC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전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4개월의 연구 기간 동안 문헌조사, 인터뷰, 델파이 조사를 통해 2030 어젠다 달성을 위한 GPEDC 활성화를 위한 개선전략을 모색하여 GPEDC 수립 이후 개발협력 환경 변화, 어젠다와 이행수단, 모니터링 지표, 효과성제고 및 원조 효과성 규범으로서 GPEDC를 구성하는 ‘어젠다-이행-교육’의 메커니즘으로 부산포럼, 모니터링, 코이카 교육훈련 프로그램(Learning and Accelerating Program, 이하 LAP)을 정하고 각각의 역할과 연계현황, 이에 대한 액션플랜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II. GPEDC와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

1. GPEDC 출범: 원조효과성 논의에서 개발협력 파트너십 논의로 전환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와 GPEDC의 출범 배경을 문헌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로마 선언부터 파리선언, 아크라 행동계획에 이어 부산선언까지의 변화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이 원조 효과성 논의에서 개발협력 파트너십 논의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2. MDGs와 GPEDC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구성되었던 GPEDC 모니터링 지표의 구성과 이행절차, 그간 실행한 참여국들의 이행점검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해관계자의 모니터링 참여 및 결과 개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부재하다는 점이 드러났고, 특히 수원국의 GPEDC 모니터링 참여는 공여국, 신흥국 및 타 이해관계자와의 전략적 정책 대화 외의 가시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기에 향후 더 많은 수원국의 모니터링 참여를 위해서는 직간접적인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점검하고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3. SDGs 체제下 GPEDC의 역할

2015년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체제로 변환되며 선진국, 신흥 공여국, 원조 외 재원과 민간 기업 등 확장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GPEDC의 역할과 방향성 설정과 변화하는 체제에 대응 적합성여부를 연구를 검토하였다. SDGs로의 전환을 통한 2030 어젠다의 세부항목 이행 점검과 원칙의 세부목표 측정에 대해 해당되는 항목을 살펴보았다.

Ⅲ. GPEDC의 현황: 구조와 역할

1. 의제와 운영의 거버넌스

GPEDC는 1) 고위급 회담, 2) 운영위원회, 3)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럼의 활동을 수행한다. 2-3년 주기의 고위급회담(High-level Meeting, 이하 HLM)을 최상위 논의 기구로 하여 총 2차례 개최 되었으며, 2019년에는 고위실무진회의(Senior level Meeting, SLM)가 개최되기도 했다. 또한 GPEDC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두고 각 이해관계 집단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운영위원회는 3명의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공여국, 수원국, 시민사회, 의회, 민간부문 등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이후 총 19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회의 이외에 GPEDC의 의제 확산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부산포럼은 공여국,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4대 원칙(주인의식, 성과 중심 개발,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 및 상호책임성)의 이행을 촉진하는 활발한 협력의 장으로 기능을 목표로 한다.

2. 모니터링 체계

GPEDC의 모니터링의 절차는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지며 개도국(수원국) 정부의 “국가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조율되며 동 코디네이터는 공여국(기관), 시민사회단체, 의회, 기업, 노동조합 등 다른 GPEDC 주체의 참여를 주도한다. 10개 지표에 대한 자료를 수집, 취합하고 정기적으로 글로벌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한다. 2020년 19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모니터링 개혁이 이뤄졌으며 2020~2022년까지는 모니터링 개혁에 집중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개선사항으로는 GPEDC 모니터링 지표와 수집된 통계자료 자체에 여러 한계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크게 1) GPEDC 모니터링 참여의 비지속성과 2) GPEDC 지표별 방법론의 한계로 정리될 수 있다.

3. 코이카 교육훈련 프로그램(LAP)

LAP 이행 결과문서 등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LAP 이행 현황과 성과, 2) LAP 이행 시 지적되었던 개선점 중심으로 LAP 이행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현황과 성과 분석을 통해 LAP 참여국과 참여자 현황, 모듈구성과 내용, 연수생 평가와 피드백을 분석하였다. LAP 참여국 및 참여자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LAP 초청대상국 명단 작성과 선정에 기준 불분명성, 실제 실무자 초청, GPEDC 이행 추적 기제 마련을 위한 교육부문 추가 등이 지적되었다. 모듈 구성과 관련해서는 주제 심화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

IV. 2030 어젠다 이행을 위한 GPEDC의 역할

1. 연구방법

GPEDC의 모니터링 프로세스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조사 방법(in-depth interview)과 서면 인터뷰 방법을 활용한 질적방법 및 델파이(Delphi) 조사방법을 혼합한

통합적 접근방법(mixed-methods approach)을 적용하였다. 델파이를 통한 분석결과 각 다섯가지 항목에 대한 개선안이 도출되었다. 델파이 조사를 위해 11인의 델파이 패널을 구성하여 세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분석하였다.

2. 조사 결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GPEDC 관련 다섯 가지 각 항목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거나 그렇지 못하는 등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GPEDC의 전반적 운영에 관해서는 GPEDC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급 장관의 참여가 필요하며, GPEDC 자체와 그 활동에 대한 인지도 제고, GPEDC의 활동내용과 SDGs와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에 합의를 이루었다. GPEDC 모니터링과 지표에 관한 개선안에 관하여는, 모니터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가 실제 개발효과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도를 강화해야 한다, 모니터링 내용 및 지표와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에 맞게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부산포럼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부산포럼의 목적과 기여점을 명확히 하고, 부산포럼이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개발효과성 논의의 후속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으로 수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GPEDC 참여회원국의 수와 범위, 그리고 LAP의 전반적 운영에 관해서는 어느 개선안에 대해서도 패널 내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델파이 분석 결과 설문조사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거나 각각 다른 방안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GPEDC 모니터링과 지표에 관한 개선안에 관하여는 모니터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가 실제 개발효과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도를 강화해야 한다, 모니터링 내용 및 지표와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에 맞게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GPEDC 참여회원국의 수와 범위에 관해서는 어느 개선안도 패널 내 의견수렴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부산포럼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개선안에는 2차와 3차 조사에서 모두 총 세 가지 개선안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구체적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개선안을 살펴보면 1) 부산포럼의 목적과 기여점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2) 부산포럼을 단발성 행사가 아닌, 개발효과성 논의의 후속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LAP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를 확인한 결과, 2차 및 3차 조사 모두에서 모든 설문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V. GPEDC 활성화를 위한 개선전략

1. GPEDC 운영 개선

1) 다층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환기

GPEDC의 국제사회 및 개발협력 어젠다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의사결정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개발 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분석된 자료와 정책 권고 등으로 무장된 알려진 정치적 리더십에 달려 있다. 효과적인 개발 협력을 위한 데이터와 Best Practice 등 증거에 기반한 정치적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을 때 플랫폼으로서 GPEDC는 개발 협력 관행의 변화를 위한 글로벌 프로세스에 기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2) GPEDC 운영위원회 지원 기능 강화

GPEDC 운영위원회의 중심을 Work Plan의 작성과 이행, 그 과정에서의 자원분배로 본다면, 현재 JST와 공동의장국 지원인력 활용으로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운영위원회 내용면 지원을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나 기관 간 네트워크 지정 등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운영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core funding 조성을 추진한다면 사례발굴 및 분석 연구 부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소 설치 또는 지정을 추진하고, JST는 GPEDC 운영과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일종의 행정지원으로 역할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모니터링 개선방안

1) SDGs 연계성 강화

GPEDC 모니터링은 SDG 5.c, SDG 17.15, SDG 17.16와 같이 3개의 SDGs 세부목표 측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GPEDC 모니터링 지표가 MDGs 시대에 개발된 만큼 SDGs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SDGs 중에서도 개도국에서 특히 중요하거나 개도국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들)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다원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도록 맞춤형 지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SDGs 목표별 모니터링을 시행하게 되면 목표 실행 단위의 모니터링 플랫폼은 현재 부재한 상황인 만큼 GPEDC의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2) 모니터링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도국 역량강화

GPEDC 모니터링이 수원국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GPEDC 모니터링을 위한 양질의 통계자료를 수집, 생산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수원국의 지속적 참여를 확보하고 GPEDC 모니터링의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

3. LAP 개선방안

1) 현행 LAP 운영방식 유지, 수원국 관심분야(SDGs, 개발 효과성, 모니터링 등)로 연수내용 재구성 및 고도화

기존 LAP 운영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그 순기능을 살리면서, 현재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참여국들의 개발성과 달성에 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해볼 수 있다. 개발효과성 담론과 현장의 이행역량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서 LAP이 기능할 수 있다.

2) Best Practice 발굴, 공유, 확산의 장으로서 LAP의 운영방식과 기능 전면 수정

수원국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 파트너들이 각자의 Best Practice를 발굴, 공유하고 확산하는 장으로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다.

4. GPEDC 내 한국의 참여 제고 방안

1) Work Plan 및 Focus Area 참여 확대

Work Plan 이행분야 1.2에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국내에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작업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또한 LAP 연계 시 한국과 KOICA의 내용 측면에서의 기여방안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있어야 하며, JST·선도국인 스위스와 연계의 형식 역시 조율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분야(삼각협력 등)를 선정하여 Work Plan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GPEDC 체제의 유지와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동 분야에 대한 의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선방안 2: 국내 GPEDC 논의 활성화

국내 ODA 사업과 정책 과정에서 GPEDC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프로세스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메커니즘을 마련해 볼 수 있다. Best practice의 존재도 국내 GPEDC 논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est practice 발굴을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Best practice가 양산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Workstream을 발굴하여 2023-2025 Work Plan에 반영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GPEDC 원칙이 반영된 사업의 추진(주류화 등), 분석 연구, 전문가 육성과 세미나를 통한 논의 활성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VI. 결론

본 연구를 통해 GPEDC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운영과 거버넌스, 모니터링, LAP의 개선방안이 분야별로 상세히 도출되었다. 연구를 통해 GPEDC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전략으로 우선 다층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환기가 필요하다는 점과 GPEDC 운영위원회 지원 기능 강화가 제안되었다.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과 모니터링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도국의 역량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LAP 운영방안 개선을 위해서 현행 LAP 운영방식 유지, 수원국 관심분야(SDGs, 개발 효과성, 모니터링 등)로 연수내용 재구성 및 고도화가 필요하며, Best Practice 발굴·공유·확산의 장으로서 LAP의 운영방식과 기능 전면 수정이 제안되었다. 더하여, GPEDC 내 한국의 참여 제고 방안을 위해서 Work Plan 및 Focus Area 참여 확대방안과 국내 GPEDC 논의 활성화가 제안되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GPEDC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관심과 이해의 범위가 서로 상이하고, 전반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여 델파이 패널을 구성하는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GPEDC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문서들에 접근이 가능했으나, 대부분의 문서들이 요약본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내용적인 면에서 심도 깊은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후속연구로는 GPEDC 운영 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나 KOICA 사업 내 GPEDC 주류화 방안, KOICA 사업을 대상으로 LAP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 연구 등을 제안해볼 수 있다. 또한 GPEDC 활성화를 위한 KOICA 사업 내 GPEDC 주류화 방안 연구, 이를 통한 LAP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사례 분석 및 발굴 관련 연구를 통해 국내외 GPEDC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개발효과성 논의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ecutive Summary

I . Introduction

1.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Since its affiliation with OECD DAC ten years ago, South Korea has served as a responsible donor country. As the host country of 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ereinafter "HLF-4") held in 2011, South Korea played a leading role in effecting a paradigm shift from aid effectiveness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The nation demonstrated excellent leadership in the adoption of the Busan Declaration, which embraced various donors, including developed countries, emerging economies, and the private sector, and in the launch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hereinafter "GPEDC"), with all the development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it.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discussions on development effectiveness with respect to GPEDC, including the recently launched unofficial working group of OECD DAC, and presented a strategic transition strategy for revitalizing GPEDC in the future.

2. Details of the Research

The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views, interviews, and Delphi surveys over four months to explore an improvement strategy to revitalize GPEDC for fulfilling Agenda 2030. After establishing the Busan Forum, the monitoring system, and the KOICA Learning and Accelerating Program (LAP) as the constituents of the GPEDC mechanism of "agenda-implementation-training and education," which is often considered a norm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aid effectiveness, the study analyzed the roles of the constituents and their relationship, and suggested an improvement strategy and action plans.

Ⅱ . GPEDC and the changing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paradigm

1. Constitution of the GPEDC

The study reviewed the changes in the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landscape and the background of the launch of GPEDC. By following the changes from the Rome Declaration to the Paris Declaration, Accra Agenda for Action, and the Busan Declaration, the study examined the paradigm shift in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the attention moved away from discussions on aid effectiveness toward discussions on development cooperation effectiveness.

2. MDGs and the GPEDC

The study analyzed the composition of the GPEDC monitoring indicators and implementation procedures, which were established to effectively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nd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checks of participating countries. The analysis showed that no incentives were offered to stakeholder to participate in the monitoring exercise and to improve results. In particular, since no visible incentives were offered for the recipient countries' participation in GPEDC monitoring other than the strategic policy dialogues with donor countries, recipient countries, and other stakeholder the provision of direct/indirect incentives should be considered as a way to encourage more recipient countries to participate in the monitoring exercise.

3. Role of the GPEDC in the SDGs era

The study also examined if the transition in 2015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regime and the expanded cooperation through partnerships with parties, such as advanced countries, emerging donors, non-profits, and private businesses, were appropriate for determining the role of GPEDC, setting its

direction, and coping with the changing system. Then, the study examined relevant items such as the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pecific criteria of Agenda 2030 and the measurement of specific goals through the transition to SDGs.

III. Role and Structure of the GPEDC

1.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Setting

GPEDC implements the activities of 1) the High-Level Meeting, 2) the Steering Committee, and 3) the Busan Global Partnership Forum. The High-Level Meeting (HLM) is the top-level consultative body with a 2–3 year cycle, and HLMs have been held twice so far. In 2019, a Senior Level Meeting (SLM) was also held. GPEDC has a Steering Committee, where various stakeholder discuss diverse topics. The Steering Committee is led by three co-chairpersons and composed of representatives from donor countries, recipient countries, civil society, parliaments, and the private sector. It has held 19 sessions since 2012. In addition to these stakeholder meetings, the Busan Global Partnership Forum is held as part of efforts to publicize GPEDC's agenda. The Busan Forum targets various development cooperation stakeholder such as donor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and aims to serve as a venue for active cooperation that promotes the implementation of the four principles of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ownership, focus on results, inclusive partnerships, and transparency and mutual accountability).

2. Monitoring System

GPEDC's monitoring procedures are implemented at the national level and coordinated mainly by “country coordinators” representing the governments of developing (recipient) countries. The same coordinators drive participation by other GPEDC members, such as donor countries (or organization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arliaments, businesses, and trade unions. By collecting and

compiling data on the ten indicators, they regularly publish global monitoring reports. Monitoring reform for the period between 2020 and 2022 was implemented through the 19th Steering Committee session held in 2020. Regarding desired improvements to monitoring, several limitations have been identified with respect to the GPEDC monitoring indicators and the collected statistical data. They can be broadly classified as follows: 1) inconsistent participation in GPEDC monitoring, and 2) limitations of the methodology for each GPEDC indicator.

3. Learning and Accelerating Program (LAP)

A review of related documents, including those on the results of LAP implementation, yielded an LAP implementation improvement plan focused on 1) the current status of LAP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and 2) the areas of improvement. The status of LAP participating countries, current participants, module composition and specifics, and trainee evaluation and feedback were analyzed based on the information on the program and its performance between 2014 and 2018. The areas of improvement for the LAP participating countries and participants were the ambiguity in the criteria for the listing and selection of countries to be invited to LAP, the invitation of actual practitioners, and the addition of the category of education to set up a GPEDC implementation tracking mechanism. Regarding module composition, topical sub-categorization and others were discussed in detail.

IV. Role of GPEDC to realize the 2030 Agenda

1. Research Methods

In order to come up with a plan to improve the GPEDC monitoring process, the study applied the mixed-methods approach that combined the qualitative method, which used in-depth interviews and written interviews, and the Delphi method. The Delphi analysis came up with an improvement plan for the five categories. For the Delphi

study, an eleven-person panel was formed and an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three questionnaire surveys.

2. Research Findings

In the Delphi study, the experts reached a consensus or came up with different plans in the different surveys. Regarding the improvement plan for GPEDC monitoring and indicators, the monitoring procedures should be improved with increased clarity and simplicity. Usability should be boosted so that the monitoring results actually lead to improved development effectiveness. There was an opinion calling for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the monitoring details and indicators and SDGs, and improving the indicators accordingly. Regarding the number and scope of the GPEDC participating countries, the panel was unable to reach a consensus on any of the suggested improvement plans. As to the general operation of the Busan Forum, there was a consensus on three improvement plans in the second and third surveys. Specifically, the desired improvements that obtained a consensus were as follows: 2) the goals and contributions of the Busan Forum have to be made clearer, and 5) rather than being a one-time event, the Busan Forum should actively follow up on its discussion on development effectiveness. Regarding whether expert feedback was collected on the overall operation of LAP, it was found that no such feedback was collected on all survey items in either the second or third survey.

V. Policy recommendations for revitalization of the GPEDC

1.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Set-Up

- 1) Establishing a multi-layered system: Raising the awarenes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development effectiveness

The participation of high-level decision-makers is essential to raise the status of GPEDC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romote the development cooperation

agenda. Creating behavioral changes that are needed to make development cooperation more effective depends on recognized political leadership that is armed with analytical data and policy recommendations. When political momentum can be built based on evidence, such as data on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and best practices, GPEDC can clearly contribute to the global process for change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actices.

2) Strengthening the GPEDC Steering Committee

Since the GPEDC Steering Committee focuses on workplan creation and implementation and associated resource distribution, its original functions cannot be performed effectively with the help of just the support staff from the JST and co-chair countries. Therefore, the creation of a permanent standing body or designation of an inter-agency network needs to be given active consideration to provide substantial support to the Steering Committee. If core funding is implemented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the Steering Committee, there can be a sharing of roles, with a designated research institute providing priority support on the discovery of cases and analytical research and JST serving as an administrative support arm dedicated to the operation and monitoring of GPEDC.

2. Monitoring System

1) Reinforcing linkage with SDGs

GPEDC monitoring contributes to the measurement of three specific SDG targets, namely SDG 5.c, SDG 17.15, and SDG 17.16. However, as the GPEDC indicators were developed in the era of MDGs, their linkage with SDGs is weak. Thus, the study presented a plan that selects area(s) in different categories, which are deemed important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or in which developing countries are equally interested, and provides customized indicators in different areas so that systematic and pluralistic approaches are possible. The study, in particular, noted that if the SDGs are monitored for each target, a monitoring platform at the level of

target implementation, which is currently absent, can serve as a distinctive strategy for GPEDC.

- 2)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ies to ensure consistency in monitoring

Given that GPEDC monitoring is based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has to be ensured and the quality of GPEDC monitoring has to be improved through capacity building so that quality statistical data may be collected and produced through GPEDC monitoring.

3. Learning and Accelerating Program (LAP)

- 1) Reorganizing and upgrading training by refocusing it on the interests of recipient countries

It is possible to come up with a plan that can at once enhance the core functions of LAP based on the legitimacy of its operation so far and also satisfy the needs of participating countries to achieve development results. LAP may serve as a venue for discussion that can remove the gaps between the discourse on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the capacity to implement it in the real world.

- 2) Revamping the mode of operation and functions of LAP

It is possible to propose ways to assign LAP a new function, which is to serve as a venue where various development partners, such as recipient countries and civil society, can discover, share, and spread best practices.

4. Enhancing Korea's Contribution in the GPEDC

1) Expanding participation in workplan and focus area

We need to clarify how we participate and contribute in Work Plan Implementation Area 1.2. South Kore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workplan implementation by engaging experts or including content that may boost domestic awareness. Moreover, if LAP is utilized as a channel the substantial contribution from South Korea and KOICA has to be closely analyzed, and the format of the partnership with JST and Switzerland, a leader country, needs to be coordinated. Looking forward, South Korea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and vitalization of the GPEDC regime and lead its agenda by selecting areas that it needs to pay attention to (such as triangular cooperation) and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kplan.

2) Activating domestic discussion on GPEDC

The system for discussing how GPEDC can contribute to Active discussion on GPEDC in Korea ODA projects and policy processe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in Korea. A mechanism can be established to involve experts in monitoring results. The presence of best practices may play a crucial role in activating domestic discussion on GPEDC. While working to discover best practices, it is also necessary to figure out what kind of environment triggers best practices in large numbers. It is important to discover a new workstream for which South Korea can take the lead. This workstream should be reflected in the 2023–2025 Work Plan and promoted. To this end, South Korea should implement (that is, bring into the mainstream) projects that reflect the principles of GPEDC, conduct analytical studies, support experts, and activate discussions through seminars.

VI.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promote the role and status of GPEDC, and detailed specific measures for improving its organization, governance, and monitoring as well as the LAP operation. As a strategy to improve the operation of GPEDC, the study suggested the need to raise international awareness on development effectiveness by creating a multi-layered system and to strengthen support for the GPEDC Steering Committee. To improve the monitoring system, it is believed that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inforce the linkage with SDGs and strengthen the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ies to ensure consistency in monitoring. In addition, to improve the LAP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current mode of operation of LAP, reorganize and upgrade the training content by including areas that recipient countries are interested in (SDGs, development effectiveness, monitoring, etc.), and revamp the operation and functions of LAP to make it a venue for discovering, sharing, and disseminating best practices.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ed expanded participation in the workplan and focus area and promotion of domestic discussion on GPEDC to boost South Korean participation in GPEDC.

Th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include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South Korean experts with respect to GPEDC and a general lack of interest, which made it difficult to constitute a Delphi panel. Furthermore, while diverse documents were accessible through the GPEDC website, in-depth analysis was challenging because most of the documents were available only as summaries.

The study suggested that follow-up research be conducted in areas such as the improvement of GPEDC operation, mainstreaming of GPEDC into KOICA projects, and the discovery of best practices in KOICA projects that may be used as LAP content. Furthermore, conducting research on mainstreaming GPEDC into KOICA projects to revitalize GPEDC and discovering best practices to boost the effectiveness of LAP operation can create opportunities to raise local and international awareness on GPEDC and stimulate discussion on development effectiveness.

목 차

국문 요약	i
Executive Summary	viii
I. 서론	1
II. GPEDC와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	3
1. GPEDC 출범: 원조효과성 논의에서 개발협력 파트너십 논의로 전환	3
2. MDGs와 GPEDC	11
3. SDGs 체제下 GPEDC의 역할	19
III. GPEDC의 현황: 구조와 역할	28
1. 의제와 운영의 거버넌스	28
2. 모니터링 체계	39
3. LAP	46
IV. 2030 어젠다 이행을 위한 GPEDC의 역할	58
1. 연구방법	58
1) 질적연구방법: 심층면접조사 방법 및 서면 인터뷰	58
2) 델파이 조사방법	61
V. GPEDC 활성화를 위한 개선전략	95
1. GPEDC 운영 개선	95
2. 모니터링 개선방안	98
3. LAP 개선방안	101

4. GPEDC 내 한국의 참여 제고 방안	104
VI. 결론	109
참고문헌	111

표 목차

〈표 1〉 GPEDC 출범 전 주요 회의 요약	4
〈표 2〉 파리선언의 세부 지표와 달성 목표치	6
〈표 3〉 파리선언 이행점검 결과	12
〈표 4〉 GPEDC 4대 원칙 및 10대 지표	14
〈표 5〉 원조효과성 관련 각종 지표	15
〈표 6〉 GPEDC 이행점검 결과(저소득국 평균)	16
〈표 7〉 GPEDC 모니터링 지표 개선방안(예)	17
〈표 8〉 후속조치 및 평가 기본 원칙	26
〈표 9〉 2017~2018 Global Partnership Work Plan	30
〈표 10〉 GPEDC 운영위원회 구성	33
〈표 11〉 2020~2022 Global Partnership Work Plan	34
〈표 12〉 2020~2022 Work Plan 선도국/기관 및 예산확보 계획	35
〈표 13〉 부산포럼 주요의제(각년도)	37
〈표 14〉 GPEDC 모니터링 지표별 참여국가의 수	42
〈표 15〉 GPEDC 지표별 방법론의 차이	44
〈표 16〉 LAP 연도별 참석인원	47
〈표 17〉 LAP 초청대상국 및 참여 횟수	48
〈표 18〉 LAP 모듈 구성	53
〈표 19〉 향후 진행될 GPEDC LAP 적합한 참가자격(안)	54
〈표 20〉 심층면접조사 질문 목록	60
〈표 21〉 서면 인터뷰 질문지	60
〈표 22〉 델파이 조사 진행일정 및 패널 구성	63
〈표 23〉 델파이 1차 조사 개방형 질문지	64
〈표 24〉 델파이 2차 조사 설문지	66
〈표 25〉 델파이 3차 조사 설문지	72
〈표 26〉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패널의 수 별 CVR 최소값	78
〈표 27〉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79
〈표 28〉 2차 및 3차 델파이 분석 결과(1): GPEDC 전반적 운영 개선안	81
〈표 29〉 2차 및 3차 델파이 분석 결과(2): GPEDC 모니터링 및 지표 개선안	84
〈표 30〉 2차 및 3차 델파이 분석 결과(3): GPEDC 참여회원국 수와 범위	87
〈표 31〉 2차 및 3차 델파이 분석 결과(4): 부산포럼에 관한 개선안	90
〈표 32〉 2차 및 3차 델파이 분석 결과(5): LAP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개선안	93

그림 목차

〈그림 1〉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논의 경과	3
〈그림 2〉 파리선언의 주요 과제(원조효과성 피라미드)	5
〈그림 3〉 2010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결과	7
〈그림 4〉 포스트-2015 개발협력 의제 결정의 다중적 협의체 구성	10
〈그림 5〉 2018년 GPEDC 모니터링 절차	17
〈그림 6〉 2030 의제의 구조	19
〈그림 7〉 SDG 이행을 위한 일관성 및 상호작용	20
〈그림 8〉 SDG 이행을 위한 정책일관성 분석틀	21
〈그림 9〉 캄팔라원칙	32
〈그림 10〉 GPEDC 지표 자료 수집 절차	39
〈그림 11〉 GPEDC 모니터링 개혁 일정	40

I. 서론

2020년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OECD DAC) 가입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의 OECD DAC 가입을 기점으로 지난 10년간 한국은 책임 있는 중견 공여국으로서 국내적으로는 원조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사회 주요 논의의 장에서 개발 이슈를 의제화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1년 개최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하 HLF-4)는 이러한 한국의 노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이벤트였다.

개최국으로서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민간 등 다양한 공여주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천명한 ‘부산선언’을 채택하는데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영향력 있는 신흥 공여국의 참석을 이끌어내며 모든 개발주체가 참여하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GPEDC)’ 출범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에도 2014년을 시작으로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연례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개발효과성 달성과 GPEDC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는 별개로 최근 GPEDC는 변화하는 개발협력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 원조효과성 논의에서 시작되어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이행을 지원해 온 GPEDC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수립 이후 SDGs 이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도와 운영방식 등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단편적으로 개발재원과 다양한 주체에 관한 논의만 봐도 SDGs 이행에 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근 개발협력 논의의 중심이 효과성에서 개발재원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개발재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재원의 효과적인 활용 역시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개발재원의 활용과 주체들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어 GPEDC의 포용적 파트너십 플랫폼이 SDGs 달성에 필요한 기반으로서 역할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출범된

OECD DAC 비공식 작업반을 포함한 GPEDC를 둘러싼 개발효과성 논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GPEDC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전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30 어젠다 달성을 위한 GPEDC 활성화를 위한 개선전략을 모색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GPEDC 수립을 전후로 한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를 어젠다와 이행수단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GPEDC가 MDGs 이행과 개발협력효과성 논의의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를 모니터링 지표와 MDGs 이행, 효과성 제고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과 함께 원조 효과성 규범으로서 GPEDC를 구성하는 ‘어젠다-이행-교육’의 메커니즘으로 부산포럼, 모니터링, 코이가 교육훈련 프로그램(Learning and Accelerating Program, 이하 LAP)을 정하고 각각의 역할과 연계현황을 진단한다. 이러한 진단 이후 GPEDC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구조화된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하여 정책적 함의와 액션플랜을 도출해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확정되어 연구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 향후 가능한 연구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여러 개의 장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한다. 우선 II장에서는 GPEDC를 둘러싼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개발협력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GPEDC의 기여를 분석한다. III장에서는 GPEDC 구성 메커니즘인 부산포럼, 모니터링, LAP의 역할과 운영현황을 진단한다. IV장에서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GPEDC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며, V장에서는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와 함께 결론을 제시하며,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의미 있으리라 예상되는 연구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GPEDC와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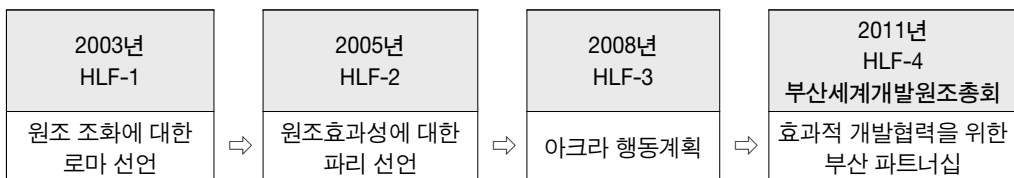
1. GPEDC 출범: 원조효과성 논의에서 개발협력 파트너십 논의로 전환

2000년대에 들어서며 국제사회는 막대한 원조 규모에도 불구하고 낮은 개발성과와 공여국 내에서 원조피로(aid fatigue) 현상을 주목하며, 개발도상국의 빈곤해소와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조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며 주요 의제로 떠올랐고, 새로운 목표와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이행수단들이 논의되며 주요 담론이 되었다. 이후 2012년 GPEDC의 출범과 함께 개발협력의 절차보다 실질적 결과에 주목하게 되면서 다양한 개발협력의 주체와 어젠다를 포괄하는 개발효과성 및 개발협력 파트너십 논의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처음 원조 효과성 제고에 대한 논의는 2002년 제1차 UN FfD (Financing for Development) 개발재원회의에서 ‘몬테레이 컨센서스’를 채택하며 이루어지게 되었다. UN ODA/GNI 의 비율을 0.7%로 설정하는 것을 공식 목표로 채택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여국의 달성에 대한 의지와 원조효과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공여국 간 원조조정, 개발협력 성과 제고, 수원국의 제도 구축 및 정책수립 역량 강화, 원조 효과성에 입각한 원조배분 등 다양한 주제들이 부상하며 이후 논의된 주제로 고위급회담이 개최되는 기반이 되었다(박수경 · 이주영, 2011).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논의는 OECD DAC의 주도 하에 총 4차례에 걸친 원조효과성에 대한 고위급회의(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하 HLF)를 통해 이루어 졌고, HLF는 2003년 로마, 2005년 파리, 2008년 아크라, 2011년 부산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그림 1〉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논의 경과



〈표 1〉 GPEDC 출범 전 주요 회의 요약

주요회의	시간/장소	의제 내용	결과물
HLF-1	로마 (2003)	원조효과성 논의 개념등장	• 로마 선언문
HLF-2	파리 (2005)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설정, 공 여국, 수원국 책임 설정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	• 파리선언문 채택과 OECD 원조효과성 작업 반 출범 • 원조효과성에 대한 5대원칙 설정 (국가주인의식, 연계, 원조조화, 결과중심성 과, 상호책임성)
HLF-3	아크라 (2008)	파리선언 이행촉구 및 파 리원칙 목표달성 가속화	• 결과중심, 국가주인의식, 포괄적 파트너십, 투명성 및 상호책임성 원칙 관련 총 10개 지 표로 구성. 공여국 및 수원국 대상 시행. 수치 로 결과 제시
HLF-4	부산 (2011)	기존 회의와 관련 2011년 모니터링 결과물 논의 및 파리원칙 이행상황 점검	• 부산총회선언문, GPEDC 출범

자료: OECD (n.d., -a), Bhattacharya et al. (2015)

2003년 로마에서 제1차 고위급회의(HLF-1)를 개최하여, 원조 조화를 위한 로마 선언문(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 채택을 통해 공여국 간 원조 노력의 조화(Harmonization)를 강조하였다. 주인의식, 원조조화, 상호책임성, 원조예측성, 투명성, 원조 일치 등 주요 의제들이 부각되며 주인의식, 원조일치, 원조조화를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하며 원조효과성의 주요 원칙을 정했다(OECD DAC, 2003). 또한 로마 선언문은 공여국의 우선 순위와 절차, 공여국간 조정 부재로 인한 수원국의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등 원조효과성의 저해 요인을 감소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OECD DAC은 2003년 원조효과성 작업반(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을 설립하여 수원국과 양자·다자 공여기관의 정책 입안자 및 실무자가 참여하여 파리선언 및 아크라행동계획의 이행 지원과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OECD DAC, 2009). 해당 작업반은 DAC 회원국 및 비DAC 회원국, 비OECD회원국을 포함한 31개 공여국 고위급 정책자문담당관과 24개 수원국, 인도, 터키, 태국 등 원조 수원국인 동시에 공여국인 9개 수원국·공여국과 9개 다자기구, 6개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되었다(박수경·이주영, 2011). 이 작업반을 통해 이후 파리선언에서 나온 5개 주요 원칙의 이행상황 모니터링, 원조효과성 관련 고위급 회담 준비, 관련 조사 연구 등을 주요 업무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파리선언문에서 대두되는 주요 이슈들이 구체화되며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와 지표들이 구체화 되어갔다(OECD DAC, 2009).

파리에서 열린 제2차 고위급회담(HLF-2)은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원조효과성을 국제개발 협력에서 주요 담론으로 주목받게 한다. 91개국의 정부대표, 26개 국제기구, 수원국 대표 등이 참여하여 ‘원조효과에 대한 파리선언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채택하였고, 이는 원조효과성 개선을 위해 1) 수원국의 주인의식, 2) 공여국과 수원국의 일치, 3) 공여국간 조화, 4) 성과 중심의 관리, 5) 상호 책임을 5대 원칙으로 설정하였다(OECD, 2008). 동시에 성과측정에 필요한 12개 지표를 제시하며 2010년까지 목표시한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과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었다.



자료: OECD (2007), 정지원 · 이주영(2011)

〈표 2〉 파리선언의 세부 지표와 달성 목표치

5대 원칙	지표		2010년 달성 목표	
수원국의 주인의식 (Ownership)	1	실행 가능한 개발전략 마련 -빈곤감축 전략을 포함한 국가발전전략 을 지니고 있는 국가의 수		수원국의 75%가 A 혹은 B 수준의 개발전략 보유
공여국과 수원국의 원조일치 (Alignment)	2	신뢰가능한 수원국 시스템	a. 공공재정관리 (Public Financial Management)	수원국 절반이 단계 평가에서 상위 단계로 개선
			b. 조달시스템	수원국 1/3이 4단계 평가에서 상위 단계로 개선
	3	국가예산에 원조금액 반영		수원국 85%가 반영
	4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일치하는 공여국 의 역량개발 지원		기술협력의 50%
	5	수원국 시스템 사용	a. PFM 시스템	모든 공여국
			b. 조달시스템	모든 공여국
	6	프로젝트 시행기관(PIU) 중복방지		중복 PIU 수 2/3로 감축
	7	원조예측성		계획되었으나 당해 연도에 집행되 지 않은 비율 1/2로 감축
	8	비구속화(Untied)		지속적인 개선 노력
원조 조화 (Harmonization)	9	공여국간 조정된 원조집행 메커니즘		원조 금액의 66%를 프로그램 방식 으로 제공
	10	공동수행	a. 현지조사	현지조사의 40%를 공동 수행
			b. 수원국 진단 평가	국가 분석 작업의 66%를 공동수행
성과 중심의 관리 (Managing for results)	11	성과중심 프레임워크		투명하고 측정 가능한 성과평가프 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 의 수 1/3로 감축
상호 책임 (Mutual accountability)	12	상호책임성을 위한 메커니즘		모든 수원국이 상호평가체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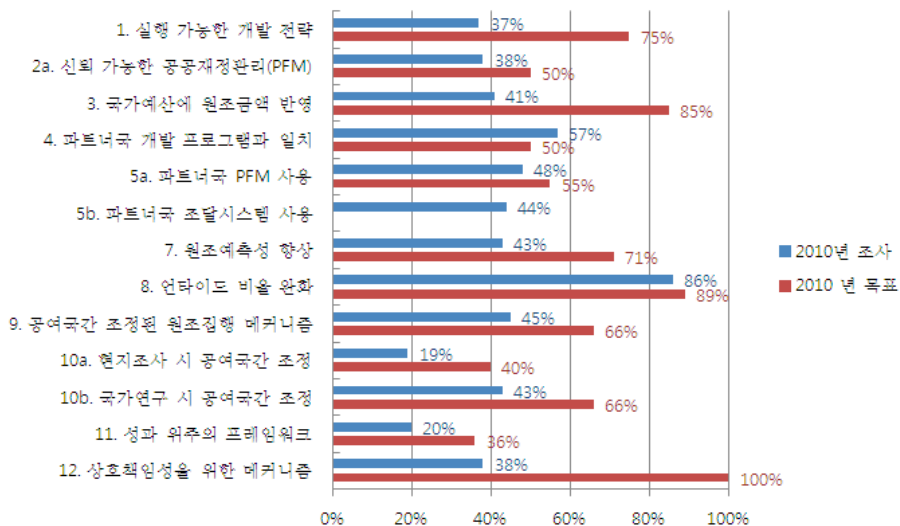
자료: OECD (2005); 권울 외(2009:167) 참고; 정지원 · 이주영(2011)

이후 2008년 가나의 아크라에서 3차 고위급회담(HLF-3)을 통해 파리선언 이후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 성과를 위한 중간점검과 파리선언 이행 촉진을 위한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을 발표하였다(OECD, 2008). 아크라 행동계획은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독립적 개발주체로 인정하였다. 또한 파리선언의 목표 달성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결과를 통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순위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개선점을 제안했다.

첫째는 주인의식으로 개발협력에 참여한 국가들이 폭넓은 정책을 형성하는데 참여하여 원조 조화(Aid Harmonization) 부분에서 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국가 원조실행 체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해 OECD DAC 회원국, 개발도상국, Non-DAC 공여국, 재단 및 시민사회가 충분히 참여하는 것이다. 셋째는 성과지향형으로 원조가 개발에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지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OECD, 2008). 그러나 OECD가 시행한 2008년과 2011년 질적 평가 결과는 실질적인 성과가 많이 없다고 평가되었다(OECD, 2008).

2011년 제4차 고위급회담인 부산총회(HLF-4)가 개최되었고 원조 효과성과 영향력 향상을 위한 논의와 국제개발협력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의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평가하였다.

〈그림 3〉 2010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결과



자료: 정지원 · 이주영(2011); OECD (2011), Aid Effectiveness 2—5—10: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p. 19.

2010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결과 국제사회는 12개의 목표 중 1개의 목표만을 달성하였고, 각 지표는 다른 개선 정도를 보였다. 목표를 달성한 유일한 항목은 지표4번에 해당하는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일치하는 공여국의 기술협력 비중’이 57%로 나타났다(OECD, 2011). 전반적으로 주인의식 및 성과 중심 관리 등 수원국의 노력을 요하는 지표는 크게 개선된 반면, 공여국의 원조시스템 개선, 공여국간 조화 노력을 요하는 지표 성과는 낮게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수원국과 공여국의 원조 일치는 부분적으로 개선되었고, 공여국 간 원조 조화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1; 정지원 · 이주영, 2011; 강종려, 201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통해 공유된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의 주요 원칙은 저조한 목표치 달성에도 불구하고, 원조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 측면을 일정부분 향상시키고 각국의 노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향후에도 공동의 원칙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를 얻었다(OECD, 2011; 정지원 · 이주영, 2011). 그러나 동시에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조효과성’ 강조만으로는 성과개선에 영향을 줄 수 없고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자체에 대한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OECD, 2011; 정지원 · 이주영, 2011).

이에 부산선언은 ‘효과적인 개발협력(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을 사용하여 새로운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 포괄적 경제성장, 인권, 성평등, 부패감소, 기후변화 재원 발굴 등 다양한 주제를 개발 논의에 포함하였다(박수경 · 이주영, 2011). 또한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기존 공여국 및 수원국, 신흥 공여국, 의회,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다양한 개발주체가 참여하는 후속 이행체제인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이 출범하여 국제사회에서 공여국과 협력국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개발원조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부산총회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평가하는 성격으로 추진되며, 준비과정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뛰어넘어 포괄적 개발이슈를 다루는 회의로 목적이 재정립되었다. 원조만으로는 개발목표에 이르기 어렵다는 한계점과, 파리선언 모니터링 결과 원조효과성이 개발성과에는 중요하지만 결과보다는 절차와 기술측면에 집중했다는 평가에 기반을 둔 결과였다. 또한 다양한 개발주체의 등장을 통한 국제사회의 포괄적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며 효과적 개발협력의 효과 제고를 위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박은하, 2015).

2012년 6월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이 출범하였고, GPEDC는

Post-2015 논의에서 이행수단 특히 ODA등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제도로 주목받게 되었다. Post-2015가 2016년 이후 국제개발의 내용을 다룬다면, GPEDC는 이행수단-어떻게(How)를 중점으로 논의가 전환되었다(OECD, 2012; 박수경 · 이주영, 2011).

♣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

(개요)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채택된 부산글로벌파트너십 결과문서를 토대로 2012년 GPEDC 출범

(목적) GPEDC는 부산총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개발주체 간 지식공유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함.

- (GPEDC의 4대 원칙) 주인의식, 성과중심 개발, 포용적 업무협력, 투명성 및 상호책무성의 원칙과 10개 모니터링 지표로 구성됨.
- (핵심기능)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 유지 및 강화, 부산 공약 이행의 책임성(accountability) 확보, 지식 및 사례 공유 그리고 개도국의 부산 공약 이행 지원.
- (파트너십) 공여국, 신흥국, 수원국의 정부,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 의회 등 모든 개발주체가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하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부산총회 결과문서 승인국가 및 기관은 자발적 이행 의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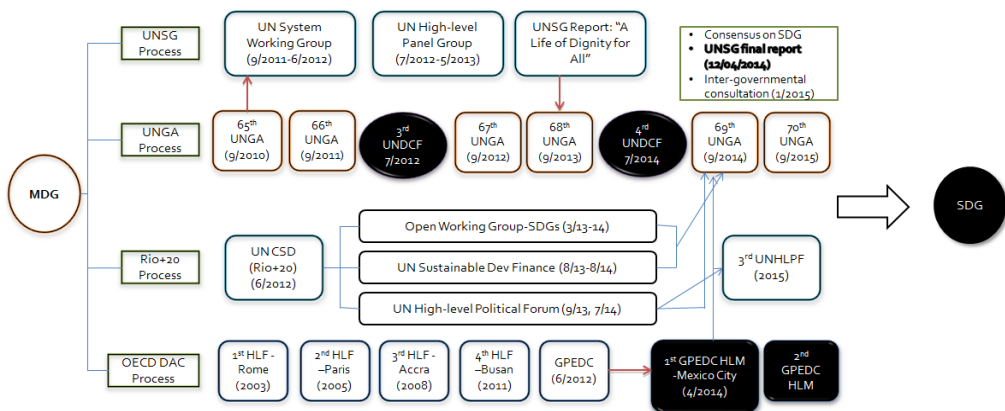
(조직) 장관급회의(High-Level Meeting, HLM),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및 공동지원팀(Joint Support Team, JST)으로 구성됨.

- 18-24개월 주기로 개최되는 GPEDC의 장관급회의는 부산총회 합의사항 이행점검을 주목적으로 하되, Rio+20, 2030 어젠다와 SDGs 등 새롭게 부상하는 개발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신축성을 갖춤.
 - 2019. 7월 개최된 첫 고위실무진회의(Senior Level Meeting, SLM)은 전후 HLM 간의 교량 역할을 하고 국가 및 국제사회에서의 SDGs 이행을 촉진시키고자 개최됨.
 - 이 외에도 다양한 개발주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HLM 의제 준비 등 GPEDC의 실질 운영을 담당하며,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공여국 대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OECD-UNDP 공동 지원팀은 GPEDC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함.
-

원조효과성 논의가 자금 조달과 운용, 효과 제고를 위한 과정에 집중되어있었다면 원조 운용 자체의 효과성을 넘어 인권, 민주주의, 성 평등, 지속가능한 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새로운 원조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더욱 포괄적인 가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주제와 대상을 포함한 빈곤퇴치와 개발 달성을 목표로 개발효과성의 담론으로 전환 된다. 개발효과성 담론의 전환은 더욱 포괄적인 다양한 개발주체가 참여하는 글로벌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동안 선진국-개도국 중심으로 진행된 원조체제를 넘어 전통적 공여국 그룹에 속하지 않던 DAC 비회원국, 기업, 재단 민간부문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신흥공여국과 빌게이트 재단과 같은 대규모 재단 및 기업 참여를 주요 행위자로 이끌어 내고, 남남협력, 삼각협력 등을 강조하며 국제개발협력 체제의 다원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OECD, 2012; 박수경 · 이주영, 2011). 부산총회는 기존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주요 의제였던 원조효과성 제고에서 개발효과성 확대로의 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는 전통적 공여국들이 주도하는 원조 및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국제 규범을 넘어 다양한 주체들의 포괄적 파트너십이 강조되었고, 이는 전통적 개발재원인 ODA 외의 새로운 개발재원의 확대로의 관심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윤유리, 2019).

〈그림 4〉 포스트-2015 개발협력 의제 결정의 다중적 협의체 구성



출처: 김태균(2015)

또한 부산선언의 이행 메커니즘으로 기존 OECD 중심에서 OECD와 UN의 연계체제로 전환되었다. OECD의 선진 정책 노하우와 공여국의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하며 동시에 UNDP의 개도국 현장 사무소를 활용하여 수원국 중심으로 이행체제를 지원하는 합동 체계를 구축했다(박은하, 2015). 이는 이후 MDGs 및 SDGs 등 다양한 국제의제의 프레임워크 구축 과정에서 공동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동시에 개발의제 설정의 구조가 OECD와 UN의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분절화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김태균, 2015) 앞서 기재된 원조효과성 담론을 이끌어온 고위급회담은 OECD DAC의 주도로 진행되었고 이를 UN과 상호보완적으로 공조하는 면은 긍정적이나 전반적인 의제설정의 협의체와 과정이 OECD와 UN이 태생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후 개발체제에서 이행 기제를 협의하는데 분절화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2. MDGs와 GPEDC

국제사회에서는 MDGs 채택과 함께 글로벌 개발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이 가운데 OECD DAC는 회원국을 중심으로 MDGs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행동규범과 정책조율에 보다 큰 중점을 둔 원조효과성 논의를 시작하였다. OECD DAC는 그 일환으로 총 4차례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 회의(HLF)를 개최하였으며 HLF는 2003년 로마, 2005년 파리, 2008년 아크라, 2011년 부산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2005년 파리에서 개최된 HLF-2는 결과문서로 파리선언을 채택하였고 동 선언은 주인의식, 원조일치, 원조조화, 결과중심 관리, 상호책임성이라는 5대 원조효과성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표 2는 2005년 파리선언 채택 이후 5년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파리선언 이행점검 결과를 보여주는데, 2010년에 시행된 3차 점검에서 하나의 지표(4.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일치하는 공여국의 역량개발 지원) 외에 모든 원조효과성 관련 지표의 목표 달성이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파리선언 5대원칙 중 수원국 주인의식, 결과관리, 상호책임성은 아래 언급되는 부산선언과 GPEDC에서도 공동의 원칙으로 채택되었다. 파리선언의 이행점검은 OECD DAC 내 원조효과성 작업반이 주도하였다.

〈표 3〉 파리선언 이행점검 결과

원칙	지표	목표치 (2010)	OECD (2006)	OECD (2008)	OECD (2011)
주인의식	1. 실행 가능한 개발전략 마련	75%	-	24%	37% (미달성)
원조일치	2.a. 신뢰가능한 수원국 시스템: 공공재정관리	50%	-	36%	38% (미달성)
	2.b. 신뢰가능한 수원국 시스템: 조달시스템	없음	-		-
	3. 국가예산에 원조금액 반영	85%	42%	48%	41% (미달성)
	4.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일치하는 공여국의 역량개발 지원	50%	42%	60%	57% (달성)
	5.a. 수원국 시스템 사용: 공공재정관리	55%	33%	45%	48% (미달성)
	5.b. 수원국 시스템 사용: 조달시스템	없음	38%	43%	44%
	6. 프로젝트 시행기관(PIU) 중복방지	565	61 (국별)	1,601	1,158 (미달성)
	7. 원조예측성	71%	41%	46%	43% (미달성)
원조조화	8. 비구속화	89% 이상	82%	88%	86% (미달성)
	9. 공여국 간 조정된 원조집행 메커니즘	66%	35%	47%	45% (미달성)
	10.a. 공동수행: 현지조사	40%	29%	21%	19% (미달성)
	10.b. 공동수행: 수원국 진단 평가	66%	52%	44%	43% (미달성)
결과관리	11. 성과 중심 프레임워크	36%	-	9%	20% (미달성)
상호책임성	12. 상호책임성을 위한 메커니즘	100%	-	26%	38% (미달성)

* OECD (2006, 2008, 2011)는 각각 34개국, 55개국, 78개국을 대상으로 시행됨.
자료: OECD (2006, 2008, 2011)

2011년에는 한국 부산에서 4번째이자 마지막 고위급회의인 HLF-4를 개최하였고 동 회의에서 회의결과 문서로 부산선언(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을 채택하였다. 부산선언은 기존 원조효과성 핵심원칙을 강화하여 개발효과성 4대 원칙으로 개발 우선과제에 대한 개도국의 주인의식, 결과 중심,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 및 상호책임성을 채택하였다. 단, HLF-2에서 채택된 원조조화는 공여국 간 원칙 미 준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의 부족으로 제외되었다(McKee et al., 2020).

HLF-4 이전부터 개발 주체의 다양화 및 글로벌 위기의 파급력 심화로 인한 개발성과 퇴보 등 국제개발환경의 다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이에 따라 HLF-4는 이전 HLF에 비해 더 포괄적이며 효과적인 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HLF-4는 전통 공여국 외에도 신흥공여국, 민간부문 이해관계자 등 모든 개발협력 주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다주체(multi-stakeholder)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였는데 개발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공여국-수원국으로 양분화 된 원조효과성 개념에서 보다 포괄적인 개발효과성으로 국제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불러왔다(외교부, 2016). 더 나아가 OECD는 2012년 원조효과성 작업반 회의를 통해 부산선언 이행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여러 개발 주체 간 지식공유를 활성화하며 개발효과성 4대 원칙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기 위해 GPEDC를 출범시켰다. 이에 GPEDC는 MDGs 8번 목표인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을 위해 2003년 출범한 OECD 원조효과성 작업반을 공식적으로 대체하게 되었다(이성훈, 2012).

GPEDC는 HLF-4의 포용성(inclusiveness)을 그대로 이어 개발협력의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혁신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으로 개발협력의 질적인 효과 제고와 관련 규범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주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부산총회 주요 공약 및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총 3차례의 글로벌 모니터링을 완료하였다(2013-2014, 2014-2015, 2018). GPEDC 모니터링의 4대 원칙 및 10대 지표는 아래와 같으며, 기존 파리선언의 원조효과성 심화지표(예: 투명성, 예측가능성, 비구속성 등)와 개발효과성 관련 신규지표(예: 개도국 결과 프레임워크 활용, 양성평등, 시민사회 참여 등)를 포함한다. 파리선언 점검이행은 OECD DAC 원조효과성 작업반이 담당한 반면 GPEDC 모니터링은 OECD와 UNDP가 지원한다(외교부, 2016).

GPEDC 지표는 개도국과 공여국을 모두 대상으로 하며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GPEDC 모니터링은 수원국 및 공여국에 따라 이행지표를 구분하며 신흥공여국 및 남남협력국은 자국의 능력 및 선택에 따라 점진적으로 글로벌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다. 예로, 2018년 GPEDC 모니터링에는 공여국, 수원국, 다자개발은행, UN기구 외에도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남남협력국이 참여하였고 수원 국별 모니터링 체제는 국가별로 도입을 추진하였다.

〈표 4〉 GPEDC 4대 원칙 및 10대 지표

원칙	지표	
결과중심	1b	국가 결과중심 프레임워크 강화
	1a	개발파트너의 국가주도 결과 프레임워크 활용
국가주인의식	5a&b	개발협력의 예측가능성
	9a	국가 공공재정관리시스템의 품질
	9b	개발파트너의 국가시스템 활용
	10	비구속성 원조
포괄적 파트너십	2	시민사회단체의 개발 참여 극대화
	3	양질의 정부-기업 간 대화 프레임워크
투명성 및 상호책임성	4	개발협력에 관한 투명한 정보 공개
	6	의회의 정밀검토에 따른 정부의 개발협력 예산 포함
	7	포괄적 검토에 의한 개발협력 주체자들 간의 상호책임성 강화
	8	양성평등과 여성권의 신장을 위한 공공배분을 추적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 구축

자료: 윤유리(2019)

앞서 언급된 원조 및 개발효과성 원칙의 모니터링은 GPEDC가 처음은 아니다. OECD는 〈표 5〉와 같이 2006년, 2008년, 2011년에 걸쳐 총 3차례의 파리선언 이행점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덴마크 외교부 또한 2008년과 2011년에 파리선언 이행점검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미국의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이하 CGD)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원조 품질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외에도 2017년에는 영국 해외개발연구원(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이하 ODI)에서 공여국 복원력지수(Donor Resilience Index)와 Principled Aid Index를 개발하였으며 2019년에는 ONE Campaign이 Better Aid Scorecard를 발표하였는데 동 지표들 모두 원조효과성 관련 내용을 측정한다(〈표 5〉 참고). 이 중 개도국(수원국)의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는 OECD와 GPEDC가 유일하며 그 외 지표들은 모두 공여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공여국의 원조효과성을 측정하는 유사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특히 CGD의 Quality of ODA(QuODA)의 경우 GPEDC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만큼 지표 간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5〉 원조효과성 관련 각종 지표

기관	지표명	발표 주기	내용
덴마크	파리선언 이행점검	2회 (2008년, 2011년)	22개 수원국 및 18개 공여국(기관) 대상 파리선언 이행 점검
OECD	파리선언 이행점검	3회 (2006, 2008, 2011년)	(2011년 기준) 78개 개도국 대상 파리선언 12개 지표의 이행 점검
GPEDC	GPEDC Monitoring	2년 (2014, 2016, 2018)	결과중심, 국가주인의식, 포괄적 파트너십, 투명성 및 상호책임 원칙 관련 총 10개 지표로 구성. 공여국 및 수원국 대상 시행. 수치로 결과 제시
CGD	QuODA	불규칙 (2010, 2011, 2014, 2018)	효율성 증대, 제도 구축, 부담 감소, 투명성 및 학습 관련 총 31개 지표로 구성. 공여국 대상. 3단계(0, 1, 2)로 결과 제시 *2020년 새 QuODA 발표 예정
ODI	Donor Resilience Index	1회 (2017)	공여국 대상 취약하거나 빈곤격차가 큰 나라에의 원조, 글로벌공공재 원조, 성장분야 원조 및 사회분야 원조 지원 정도 측정. 3단계(상중하)로 결과 제시
	Principled Aid Index	1회 (2019)	공여국 대상 수요(Needs), 국제협력, 공공성 관련 총 12개 지표로 구성. 순위 및 3단계(상중하)로 결과 제시
ONE Campaign	Better Aid Scorecard	1회 (2019)	공여국 대상 원조 규모, 원조 수요, 원조 품질 분야에 대한 7개 지표로 구성. 목표달성치(수치)로 결과 제시

자료: OECD (2006, 2008, 2011), GPEDC (2014, 2016) 및 각 기관 홈페이지 토대로 저자 작성

〈표 6〉에서 언급된 지표 중 MDGs 시대 하에서 원조효과성 지표이행을 측정한 지표로 OECD (2006, 2008, 2011)와 GPEDC (2014, 2016) 글로벌 모니터링을 꼽을 수 있다. 〈표 3〉은 MDGs 체제하에서 진행된 파리선언 원칙의 이행 결과를 보여주는 반면 〈표 6〉은 MDGs 체제에서 진행된 GPEDC 모니터링 지표의 변화를 보여준다. 2014년과 2016년에 발간된 GPEDC 모니터링 보고서는 각각 46개국과 81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표 5〉는 저소득국 평균치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외에도 지표에 따른 국별 자료도 제공되나 지표별로 글로벌 평균치는 제공되지 않으며 일부 지표는 결과를 수치화하지 않아 여러 단위별(예: 소득수준별, 지역별) 평균치가 제공되지 않는다.

〈표 6〉 GPEDC 이행점검 결과(저소득국 평균)

원칙	지표	GPEDC (2011)	GPEDC (2014)	GPEDC (2016)
결과중심	1.a. 개발파트너의 국가주도 결과 프레임워크 활용 (도출된 결과지표 비율)		N.A	54.8%
	1.b. 국가 결과중심 프레임워크 강화		N.A	
국가 주인의식	5.a. 개발협력의 예측가능성(연간)	82.7%	83.7%	76.0%
	5.b. 개발협력의 예측가능성(중기)		68.0%	61.6%
	9.a. 국가 공공재정관리시스템의 품질	3.1	3.3	3.2
	9.b. 개발파트너의 국가시스템 활용	36.4%	39.3%	35.5%
	10. 비구속성 원조	82.1%	88.0%	82.3%
포괄적 파트너십	2. 시민사회단체의 개발 참여 극대화 (국가발전전략 관련 다주체 논의의 장 제공)		N.A	2.5
	3. 양질의 정부-기업 간 대화 프레임워크 (민관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부문 의지)		N.A	7.6
투명성 및 상호책임성	4. 개발협력에 관한 투명한 정보 공개		N.A	N.A
	6. 의회의 정밀검토에 따른 정부의 개발협력 예산 포함	22.3%	60.3%	49.5%
	7. 포괄적 검토에 의한 개발협력 주체자들 간의 상호책임성 강화	Yes	Yes	N.A
	8. 양성평등과 여성권의 신장을 위한 공공배분을 추적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 구축		Yes	N.A

자료: <http://dashboard.effectivecooperation.org/country>(2020.6.12. 접속)

최근 GPEDC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원칙 등 2030 어젠다의 도전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개선을 논의해왔으며 2018년 10개 지표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모니터링 개선을 통해 연관성과 효용성을 강화하고, 보고 부담을 감소시키며, 이전 데이터와 비교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표 7〉은 지표 개선방안 예시를 보여준다.

〈표 7〉 GPEDC 모니터링 지표 개선방안(예)

(예시) 1a. 개발파트너의 국가주도 결과 프레임워크 활용	
(수정 전) • 개도국 내 당해 최대 10건의 신규 사업(intervention)의 일치(alignment) 여부 • 프로젝트 단위에 한함 (한계) • 프로젝트 단위 보고의 부담 • 프로젝트와 달리 공여국의 원조 일치는 전략 수준에서 발생	(수정 후) • 개도국 내 당해 최대 6건의 신규 사업(intervention)의 일치 여부 • (있을 경우) 수원국의 개발전략 및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와의 일치 여부 (주요 개선사항) • 최대 신규 사업 건수를 감소하면서 대표성 유지 • 전략 수준에서의 원조일치와 국가단위 성과 프레임워크 활용은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단위의 성과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행동하도록 지원

자료: GPEDC (2018b)

가장 최근 발표된 제3차 GPEDC 모니터링은 〈그림 5〉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다. 2018년 중순에 모니터링 추진을 발표하고, 2018년 10월 말까지 국가 단위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후 약 2개월간 검증절차를 거쳤다. 이후 2019년 상반기에 통계자료를 취합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GPEDC 회의, 정책대화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결과를 보고하고 결과에 따른 활동내용을 논의하였다.

현재 GPEDC 모니터링은 이행 관련 기술적 도전, 타 메커니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제도적 도전, 개발협력보다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 부상으로 체제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윤유리, 2019). 이에 GPEDC는 2017-2018 사업계획에서 모니터링 관련 △신뢰성 있고 시의적절한 국별 데이터를 발간함으로써 모니터링의 통계 유용성 강화, △개발효과성 원칙 이행 방해요인 확인 및 효과성 증대, △2030 어젠다의 도전과제를 반영한 모니터링 체계 개선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다(GPEDC, 2017).

〈그림 5〉 2018년 GPEDC 모니터링 절차



자료: GPEDC (2018a)

또한 공동의장은 2020부터 2022년까지의 3대 우선순위로 △2030 어젠다 이행 가속화, △파트너십 구축 강화 및 △행동을 위한 모니터링의 지렛대 활용(leverage monitoring for action)을 제안하였다(GPEDC, 2019c). 특히 모니터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모니터링 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정책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법을 논의하도록 지원하였다.

동시에 모니터링 절차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을 언급하였는데,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모니터링 결과 활용 개선 및 확대, △주요 2030 이행 도전과제 및 새로운 도전과제 적용, △모니터링이 제도적 구조를 반영하고 특정 맥락에 따른 유용성을 확보하며 제한된 역량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제시되었다(GPEDC, 2019c). 반면, GPEDC 모니터링 참여국은 2013년 46개국에서 2018년 8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GPEDC 모니터링 참여국이 증가하는 것도 GPEDC의 유효성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모니터링 참여 및 결과 개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부재하다. 특히 수원국의 GPEDC 모니터링 참여는 공여국, 신흥국 및 타 이해관계자와의 전략적 정책 대화 외의 가시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기에 향후 더 많은 수원국의 모니터링 참여를 위해서는 직간접적인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점검하고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 연구는 개도국의 글로벌 모니터링 참여 및 지표의 성과가 개발재원이라는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연계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통계분석을 통해 GPEDC의 모니터링 참여 및 비참여국의 개발재원 규모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계획이다. 여기서 개발재원은 ODA 및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GPEDC 모니터링의 참여국과 비참여국 간 개발재원의 차이를 파악하고 3차례 진행된 모니터링에서의 지표별 성과가 개발재원의 증액, 경제성장 등의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GPEDC 지표 개선에 대한 대 수원국 인센티브 제공여부를 파악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GPEDC 자체 및 모니터링 참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3. SDGs 체제下 GPEDC의 역할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 정상회의에서는 결과문서로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2030 의제)’를 채택했다. 동 결과문서는 <그림 6>과 같이 ① 비전과 원칙을 담고 있는 선언문, ②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③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④ 후속조치 및 평가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 2030 의제의 구조



자료: UN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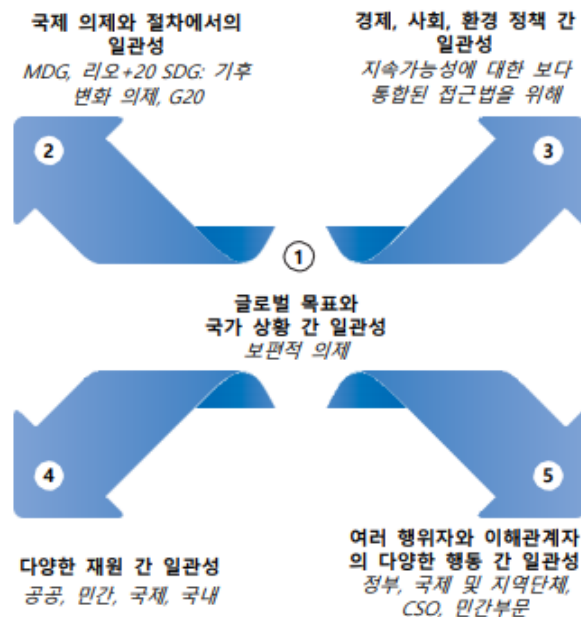
2030 의제는 인간(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5개 주요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체화하여 도출해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 목표들은 국가,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정기적이고 포용적인 후속조치에 의해 평가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17개 SDGs는 MDGs 만료시점인 2015년 이후 2016~2030년 동안 국제사회 차원의 새로운 개발목표로서, 교육, 보건 등 사회 개발적 측면을 강조한 MDGs에 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개발의 3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강조한다. 개발협력 측면에서 보자면, 그동안 MDGs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사회발전에 집중된 개발의제들이 SDGs 체제의 출범과 포괄적 개발협력 체제로 변모했다고 할 수 있다.

MDGs에서 1번 목표로 다루었던 빈곤은 SDGs에서 빈곤과 식량안보로 세분화 되어 기아, 식량문제, 영양 상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속가능한 농업방식을 강조했다. MDGs 2번 목표인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은 SDGs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으나 세부목표로서 ICT 기술의 활용 등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MDGs 3번인 성 평등 및 여권신장은 SDGs에서 Goal 5(양성평등)로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MDGs 4(아동사망률 감소), 5(임산부 건강개선), 6(에이즈와 말라리아 질병 퇴치)은 SDGs의 Goal 3(보건)에서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MDGs에서 다루지 않았던 일반성인의 건강 증진도 다루고 있다. MDGs 7번 목표(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는 SDGs에서 목표 7개(식수위생, 에너지, 도시, 지속가능한 소비, 기후변화, 육상과 해상 생물다양성)로 세분화되어 어젠다 21, Rio+20에서 등장한 환경문제가 세분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MDGs 8번은 SDGs 16번과 17번에서 이어지는데, MDGs 이행과정에서 부각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MDGs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SDGs에 포함된 목표로서 Goal 8(경제성 장 및 일자리), Goal 9(인프라), Goal 10(불평등)이 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양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발전 방안이라는 고민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림 7〉 SDG 이행을 위한 일관성 및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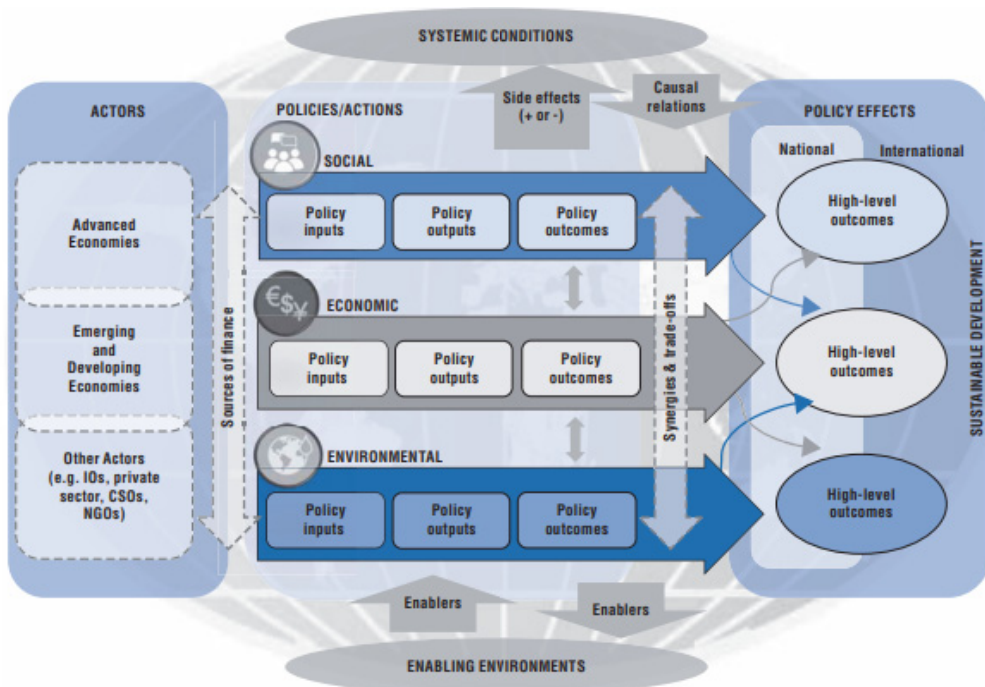
자료: OECD (2016)

저소득 국가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일자리가 민간에서 창출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주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SDGs 체제는 다양한 개발과제가 상호 연계되고 통합되면서 새로운 개발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간의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이하 PCD) 제고가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환경이슈의 균형과 조화가 강조되고,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립하기 위해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이 ODA와 정책적 일관성을 갖도록 개발협력의 방향을 전화하는 것 역시 강조되었다.

SDGs 채택과 더불어 PCD에서 발전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PCSD)이 탄생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이행수단에 대한 17번 목표 중 세부목표이기도 하면서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한다. OECD (2016)가 제시한 PCSD 분석 틀 <그림 8>에 따르면 선진국, 개도국, 국제기구, 기업, NGO가 개발협력의 주체라는 점과 정책 측면에서는 정책 간 상호연관성과 상쇄효과 등 연관성 파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8> SDG 이행을 위한 정책일관성 분석틀



자료: OECD (2016)

이행지표 측면에서, 목표달성을 측정하기 위해 평균방식을 사용했던 MDGs와 달리, SDGs 체제하에서는 주요 슬로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에 나타나듯이 사회구성원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지표 설정과 평가방식 마련을 위한 세부화 된 통계지표 사용(data disaggregation)을 추구한다. 그러나 MDGs 체제와 비교했을 때 아직 SDGs 체제가 상정하는 많은 세부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여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심으로 효과적인 지표와 자료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의 경우, Measuring Distance the SDGs Targets 보고서를 통해 OECD 회원국들이 자국 SDGs 체제를 달성한 정도를 각 목표별로 평가하고 향후 달성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정책적 일관성(policy coherence),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투자(promoting investment in sustainable development), 포괄적인 성장과 웰빙(inclusive growth and well-being)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SDGs 체제하에서 국제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원칙과 이행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나(OECD, 2017), 이러한 수준의 평가가 개도국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국가 수준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한 각종 프레임워크, 도구, 통계자료 등을 개발 중(김석호 외 2015)이다. 자국의 SDGs 지표상 국내외적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상정하기 위해서 2016년 이후 UN 회원국들은 자발적 국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이하 VNR)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이행 목표를 부과하기 보다는 개별 국가가 각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국가별로 추진하고 있는 SDGs 체제의 국내적·국제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수원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협력이 수원국의 SDGs 달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강조되는데, SDGs 설정 이전에 설정된 GPEDC에서는 양성평등과 파트너십 등 일부 SDGs를 측정할 요소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SDGs에서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GPEDC 역시 SDGs 이행을 위한 우수사례 및 교훈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보다 투명한 개발협력 추진, 개도국의 제도 및 체계 개선을 위한 리더십 지원, 개도국 주도의 개발효과성 원칙의 이행 경과 모니터링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지식공유 차원에서 2019년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을 위한 효과성 강화에 대한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한 바 있다(GPEDC, 2019b). 그러나 SDGs 이행지표 발전과 함께 GPEDC도 향후 어떤 내용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이행주체 측면에서 SDGs는 그 자체로 광범위한 의제들을 포괄하고 있어 어느 한 주체가 독립적으로 선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정부, 시민단체, 기업 등도 참여하는 포용적 개발협력 체계가 강조된다(김태균 외, 2016). SDGs 이행 지원을 위해 범정부(whole-of-government)에서 범사회적(whole-of-society)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력한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가운데 GPEDC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SDGs 목표 17번으로 파트너십이 강조된 점과도 연결되는데 GPEDC는 1차 SLM에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multi-stakeholder approach)과 협업이 SDGs 이행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흥국(중국, 인도 등) 및 개도국과 민간기업 대상 참여 주체의 확대 및 SDGs 이행 점진 과정과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파트너십이란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수평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여국에서 수혜국으로 단선적인 또는 일회성 지원은 양측 모두에게 효과와 지속가능성이 제한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 역량강화와 시장의 창출, 선진국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참여, 그리하여 양측의 공공과 민간부문 간에 창출되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이하 GVC) 확장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상호 가치체계가 강화되면 일방적 시혜 관계는 양자 간 투자와 거래를 위한 협력 관계로 변모하고 수원국은 공적원조의 대상이 아닌 경제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민간은 단순한 개발재원의 제공자가 아닌 시장에 대한 정보,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개발협력 주체로서 포용하여 양 협력국 수요가 개발협력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개발협력의 주체가 선진국과 국제기구를 넘어 민간으로 확대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신흥 공여국이 개발협력의 주체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며 남남협력이나 삼각협력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Li (2017)는 GPEDC가 중국과 같은 신흥국에게 매력적이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신흥국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보다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SDGs 이행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언급한 바 있다.

민간의 참여가 강조되는 것은 이행주체 뿐 아니라 이행수단과도 관련이 있다. 재원과 같은 이행수단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것이 MDGs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이었기 때문이다. MDGs는 다양한 국제목표를 설정했지만 재원 및 파트너십 등 이행수단에 대한 언급이 부재하여 비판을 받았다. SDGs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SDG 1에서 SDG 16까지 16개 SDGs 목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개발재원, 기술, 역량개발, 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책일관성과

파트너십, 개발관련 데이터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SDGs를 주류화하고 개발목표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발재원 확충은 핵심 관건이 되었다. 개발재원은 국내공공재원(세금), ODA(공적개발원조), 민간재원(무역, 투자) 등 다양한데 이중 민간은 SDGs가 MDGs와 달리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면서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다.

SDGs 개발재원 확보와 관련한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2015년 제3차 개발재원총회가 열린 아디스아바바에서 post-2015 이행을 돕기 위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genda for Action, 이하 AAAA)으로 구체화 되었다. 기존의 1-2차 개발재원총회가 MDGs 수립 이후 후속적으로 개최된 것과 달리 3차 개발재원총회는 SDGs가 출범되기 전 개최함으로써 Post-2015 개발의제 문서 최종문안에도 차용되어 SDGs 이행의 근거가 되고자 했다.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과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상이한 점은 조세제도 개혁 및 불법자금 흐름방지를 통한 국내 공적 재원 마련을 강조하고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통한 민간재원 동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김은미 외, 2015).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에서 7개 분야별 행동분야는 (1) 국내재원, (2) 민간기업과 금융, (3) 국제개발협력, (4) 국제무역, (5) 부채 및 부채지속가능성, (6) 시스템적 이슈 대응, (7) 과학기술 혁신 및 역량강화이며, 이는 향후, SDGs 17번 세부목표로 개발재원, 무역, 역량개발, 시스템 이슈로 발전되었다. 특히 이중 ‘민간기업과 금융’에서는 개도국 중소기업 금융지원, 이주자 송금수수료 인하, 국내 자본시장 개발, 해외직접투자 촉진 등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동 행동분야에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ODA의 규모적 한계를 인식하고 SDGs 달성을 위해 ODA를 촉매제로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개발 재원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되었다(오수현, 2015).

또한 제3차 개발재원총회에서는 여러 개발은행¹⁾들이 총회 부대행사를 공동개최하여 ‘from billions to trillions’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SDGs 달성을 위해 다양한 금융수단 메커니즘, 위험 완화 수단 및 공동 출자 기금 등이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참여한 개발은행들은 혼합금융도구의 적합한 구조와 사용이 세심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명확한

1)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유럽부흥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책무성 메커니즘을 포함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혼합금융도구의 적절한 사용과 책무성에 대한 강조는 민간재원의 확충 필요성과 함께 강조되는 분야이다. 공적재원 투입에 대한 납세자의 민감도가 증가할수록, 공적재원이 협력국 빈곤감소 및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개발성과를 국민에게 입증해야 하는 것을 넘어, 해당 공적재원이 다른 영역에 사용되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크거나 다른 국가나 원조프로그램에 투입되었을 때 더 큰 개발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공적재원의 투입이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지는 않는지, 공적재원을 활용한 민간재원의 동원이 순수한 민간재원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crowding-out), 민간재원이 과도하게 들어오면서 생길 수 있는 채무위험의 증가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다(오수현, 2015).

SDG 세부목표 및 지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SDGs 체제하 개발재원의 형태는 다양하며 무역과 FDI, 해외송금, 남남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SDGs 17번 목표의 이행수단으로서 재원분야 논의는 1) 조세징수 역량 강화, 2) ODA 국민총소득 대비 0.7% 확대, 3) 다양한 재원 동원, 4) 부채탕감, 5) 투자 증진 강화로 요약된다.

이러한 기초 하에서 GPEDC에서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8년 방글라데시, 이집트, 엘살바도르 및 우간다에 대한 사례조사를 토대로 민간부문연계(Private Sector Engagement, 이하 PSE) 경험을 공유하였고 2019년에는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캄팔라원칙(Kampala Principle)을 채택한 바 있다. 캄팔라원칙은 GPEDC에서 개발협력을 위한 민간부문 파트너십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개발한 일련의 원칙으로(윤유리, 2019), GPEDC는 이와 같이 민관협력에 대한 국제규범을 개발하고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개발협력 논의의 기초가 효과성 보다는 개발재원으로 변경되는 추세인 바, 새로운 재원 조성 and 효과적인 재원 활용과의 연계 강화가 강조되었다. 또한 개도국의 경제수준(예: 저소득국, 중소득국 등)에 따라 ODA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개발재원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공여국 정부의 예산 제약 하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논의는 개발협력에서 새로운 주제는 아니다. OECD DAC는 2013년부터 개발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원에 의해 동원된 민간재원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나, 데이터에 관한 분석은 매우 초기 단계이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량지원 및 정책 효과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으로 SDGs 시대의 큰 특징은 모니터링에 대한 강조라고 볼 수 있다. 목표 17에서 볼 수 있듯이, SDGs는 새로운 목표의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모니터링 관련 내용을 목표에 직접 담은 것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증거를 기반으로 이행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GPEDC는 2019년 개최된 제1차 SLM에서 SDGs 이행을 위해 해결책 중심의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플랫폼으로서 역할과 GPEDC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단위의 데이터 및 사례 공유 기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GPEDC, 2019a).

2030 의제 제 74항에는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한 9가지 기본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원칙은 국가별 SDGs 자체의 이행점검 뿐 아니라, SDGs 시대에 개발협력의 이행점검에도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표 8>.

〈표 8〉 후속조치 및 평가 기본 원칙

1	모든 후속조치와 평가는 자발적이고 국가가 주도하며, 국가의 현실·역량 및 개발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고 정책 자율성과 우선순위를 존중할 것이다. 국가의 주인 의식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열쇠이므로, 글로벌 차원의 평가는 주로 국가의 공식 원천 데이터에 기초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 평가의 결과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 평가의 기초가 될 것이다.
2	이 과정은 이행수단을 포함한 보편적인 목표와 세부목표의 보편적이고 통합적이며 상호 연관된 특성과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측면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에서 목표들의 이행 진전을 추적할 것이다.
3	이 과정은 보다 장기적인 지향점을 유지하고, 성과·도전·격차 및 중요한 성공요소를 파악하며, 국가들이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 과정은 필요한 이행수단과 파트너십 동원에 기여하고, 해결책과 모범사례 파악을 지원하며, 국제 개발 체제의 조율과 효과성을 증진할 것이다.
4	이 과정은 모든 사람을 위해 공개적이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투명할 것이며,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보고를 지원할 것이다.
5	이 과정은 인간중심적이고 성 인지적이며, 인권을 존중하고 최빈곤층, 가장 취약한 계층 그리고 가장 뒤처진 사람들에게 특히 초점을 맞출 것이다.
6	이 과정은 가능한 경우, 기존의 플랫폼과 과정을 기초로 하여, 중복을 피하며, 국가의 상황·역량·수요와 우선 과제에 부응할 것이다. 동 과정은 부상하는 문제와 새로운 방법론 개발을 감안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하고, 국가 행정 부처나 기관의 보고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7	이 과정은 철저하게 국가주도의 평가와 함께 고품질의 접근가능하며 시의적절하고 신뢰성 있으며, 소득·성·연령·인종·민족·이주상태·장애와 지리적 위치 및 국가적 맥락에서 적절한 기타 특징으로 세분화된 자료에 입각한 증거에 기초할 것이다.
8	이 과정은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내륙개도국 및 중소득국에서 국가 데이터 체계와 평가 프로그램 강화를 포함한 역량구축 지원 개선을 필요로 할 것이다.
9	이 과정은 UN 체제와 기타 다자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출처: UN (2015)

9가지 기본 원칙에 따르면, 후속조치 및 평가는 ① 국가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되, ② 보편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하며, ③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정보기반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 과정은 ④ 참여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⑤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행체계는 ⑥ 기존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국가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⑦ 접근 가능하며, 시의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세분화된 고품질의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⑧ 개도국의 통계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동시에 ⑨ UN 등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GPEDC 모니터링은 SDGs 세부목표 중 일부를 측정하는데, 모니터링 지표 8은 SDG 5.c인 성평등 증진을 위한 공공재원을 할당하고 추적 시스템을 갖춘 국가 비율을 측정하고, SDG 17.15인 공여국의 파트너국 국가발전전략 및 성과 프레임워크 사용 비율을 측정하며, SDG 17.16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다(OECD/UNDP, 2019).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협력 효과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한 것은 원조 외 자원과 민간기업과 같은 새로운 파트너들이 활동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임소진, 2012).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GPEDC는 MDGs에서 SDGs가 탄생한 이유, 개발재원총회가 진행되면서 변화된 어젠다의 변화에서 발견된 한계점과 개선점이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과의 파트너십 등 새로운 주체들과의 협력이 가져올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종류의 위험을 사전에 고려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III. GPEDC의 현황: 구조와 역할

GPEDC 체계의 구성은 크게 운영과 의제 논의를 담당하는 포럼과 위원회, 모니터링과 모니터링을 뒷받침하는 LAP 프로그램 등 3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 3부분의 지난 10여 년간의 경과를 통해 그 구조와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GPEDC가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고 IV장에서 시행할 질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의제와 운영의 거버넌스

GPEDC는 200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원조효과성 규범의 뒤를 잇고 있음과 동시에 다양한 주체들과 다양한 방식의 행동양식을 포함하고 있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이때의 규범이란 명확히 규정된 (행위)주체들의 적절한(appropriate) 행동의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Finnemore and Sikkink, 1998: 891). 이러한 규범은 그 구성 요소로서 도덕적 의무 또는 당위성, 책임을 부여할 주체, 그리고 그 주체가 해야 할 특정 방식의 행위가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Jurkovich, 2019: 2). GPEDC가 개발협력의 규범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당위성이 분명해야 하고, 누가 어떻게 행위를 할 것인가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런 관점에서 GPEDC의 의제와 운영의 거버넌스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를 가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 총회에서는 효과성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기구로서 기존의 파리선언을 대체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새로운 효과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이런 파트너십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 OECD 체제에서 부산 이후 1년 만인 2012년에 GPEDC가 출범하였다. 개발협력 제공자와 수원국,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민간부문, 민간재단, UN, OECD 등이 포함된 GPEDC는 특정 기구의 지원 기반 없이 OECD와 UNDP 공동지원팀에 의해 뒷받침되는 느슨한 형태의 플랫폼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GPEDC는 2-3년 주기의 고위급회담을 최상위 논의 기구로 하여 총 2차례 개최가 되었으며, 2019년에는 고위실무진회의(Senior level Meeting, SLM)가 개최되기도 했다. 또한 GPEDC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각 이해관계 집단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논의의 과정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3명의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공여국, 수원국, 시민사회, 의회, 민간부문 등의 대표로 구성되어있으며, 2012년 이후 총 19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회의 이외에 GPEDC의 의제 확산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1) 고위급 회의

과거 OECD의 원조효과성 논의 방식과 유사하게 GPEDC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14년 4월 GPEDC가 시작된 이래 첫 번째 HLM이 멕시코에서 개최되었다. ‘포용적인 Post-2015 의제 수립’을 주제로 개최된 HLM은 멕시코 HLM 공식성명(Mexico HLM Communique, 이하 멕시코 코뮤니케)을 합의문 형태로 발표하면서 종료되었다.

멕시코 코뮤니케는 MDGs와 빈곤, 불평등 등의 개발협력 내 전통적인 주제들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한편, 당시 UN에서 구상하고 있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Post-2015 프레임워크 이행의 중심으로서 GPEDC가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또 다른 기구·체계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맺음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²⁾

또한 멕시코 코뮤니케는 6개월간의 개발협력주체들과의 포괄적인 국제협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합의문으로, 특히 당시 논의 중이었던 Post-2015개발의제를 적극 반영하고³⁾ 의제 달성을 위해 부산 파트너십 메커니즘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자발적 이니셔티브를 구축하여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개발협력 노력과 행동을 촉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1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신흥공여국인 중국과 인도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미 부산에서 합의된 내용들의 반복에 기후변화, 취약국 등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이나 약속으로 이어지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성명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에 직면하기도 했다(Keijzer and Lundsgaarde, 2016).

2) Mexico High Level Meeting Communique para, 2-3.

3)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일자리창출 및 포괄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의 변화’ 등의 당시 주요 논의 과제를 ‘모두를 위한 실질적 결과와 기회의 형성’, ‘사회경제의 변화 장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보장’ 등

〈표 9〉 2017~2018 Global Partnership Work Plan

전략 목표	주요내용
1	• 국가수준의 개발효과성 지원강화 • [활동1.1] 효과성원칙 발전을 위한 국가주도 대화(Country-led dialogue for advancing effectiveness principles at national level) • [활동1.2] SDGs를 위한 책무성 확보와 개발협력다양성 관리를 위한 일관된 전략을 강화하거나 수립한 국가(Countries establishing or strengthening coherent strategies to manage the diversity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ensuring accountability for the SDGs) • [활동1.3]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화 플랫폼을 강화하거나 수립한 국가(Countries launching and/or strengthening national multi-stakeholder dialogue platforms) • [활동1.4] 국가수준의 효과성 원칙 발전 관련 모범사례개요서(Compendium of Good Practices for advancing effectiveness principles at national level)
2	• 2030어젠다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업데이트와 효과성 강화 • [활동2.1] 효과적인 SDGs 이행에 관한 정책대화에 모니터링 결과 반영(Monitoring evidence informs policy dialogue o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DGs(including HLPF and other UN processes)) • [활동2.2] 2030 어젠다를 위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정비(A refined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2030 Agenda) • [활동2.3] 글로벌파트너십 2019 이행리포트(The Global Partnership's 2018 Progress Report)
3	• 혁신적 개발솔루션 확대를 위한 지식공유 • [활동3.1] 글로벌 파트너십 이해관계자와 개발협력 이해관계자/파트너 간 연계를 위한 효과적인 개발협력 공동체수립(Establish a community of practice on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to connect Global Partnership stakeholders to each other and with other stakeholders/partnerships i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space) • [활동3.2]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Create an online knowledge exchange platform) • [활동3.3] 효과적 개발협력 관련 정보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파트너십 플랫폼의 지식 콘텐츠 강화(Strengthened knowledge content to position the Global Partnership platform as the go-to platform on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4	• 개발협력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 • 호혜를 위한 비즈니스 투자확대 우선순위 이슈(Priority issues to attract business investments for mutual benefit) • 민간부문 참여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수단에 관한 원칙(Principles on effective policies and instruments(engagement & checks/balances) for private sector engagement leveraged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5	• 상이한 개발협력 방식으로부터의 교훈 • 개발협력의 다양한 접근으로부터의 혁신과 교훈 • 신흥경제와 개발협력의 참여플랫폼 • 개발협력의 다양한 접근으로부터의 혁신과 교훈 주제의 3차 모니터링 보고서
6	• 고위급 참여, 홍보, 옹호활동, 데이터와 증거의 전략적 활용 강화 • 효과적 개발협력에 관한 정치적 리더십과 확산(Political leadership and outreach on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전략적이고 합의된 결정을 내리는 정례 운영위원회(Regular Steering Committee meetings that take strategic and fully owned decisions) • 글로벌 파트너십의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확산 강화(Strengthen visibility and outreach to demonstrate the Global Partnership's impact)

자료: GPEDC 2017 요약

제2차 HLM은 2016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었으며, 157개국이 참여한 자리에서 사람, 지구환경, 번영 및 평화의 공동 이익을 위해 모든 형태의 개발협력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글로벌파트너십의 비전을 발표하며, 모든 개발협력 주체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SDGs를 달성하는 방법의 핵심임을 확고히 하였다. 또한 글로벌파트너십의 4대 원칙과 함께 이전의 파리, 아크라, 부산에서의 개발원조총회 및 제1차 멕시코 HLM에서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글로벌파트너십이 출범 5년 시점에서 나이로비 결과문서는 국제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협력 주체들이 어떻게 공동으로 도전과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며, 지식을 공유하고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차 HLM에서의 주요 합의사항은 사업계획(Work Plan) 수립과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개선으로, SDGs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다양한 개발협력주체들에 대한 협약 유효성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슈 및 개발 방법이 기존의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 적용을 시도했다.

그러나 나이로비에서 다루어진 GPEDC의 의제는 안보에서 인도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행위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 필요성 및 기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고 있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합의에 이르거나, 변화에 기여하기에는 매우 원칙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2030년까지 송금의 거래 비용 절감을 제외하고 어떤 약정도 특정 기한이나 목표 일자에 할당되지 않았으며, 이는 서명자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않았다(Bena and Tomlinson, 2017: 5). 멕시코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과 인도는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고,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도 파견하지 않아 남-남 협력의 주요 공급자인 신흥공여국 참여가 매우 부진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Klingebiel and Li, 2016).

2019년 7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고위실무진회의(SLM)는 UN HLPF와 연계하여 개최되었으며, 제3차 모니터링 결과인 2019 성과보고서 발표는 통해 그간의 이행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캄팔라원칙도 함께 발표되었다. 2019년 3월 우간다 캄팔라에서 개최된 제18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캄팔라원칙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노동조합 및 기타 행위자들과 함께 복수 이해당사자 워킹그룹을 주도하고 비즈니스 리더인 코커스(caucus)의 자문에 따라 광범위한 협의를 거친 후 발표되었다.

〈그림 9〉 캄팔라원칙

	PRINCIPLE 1	INCLUSIVE COUNTRY OWNERSHIP Strengthening co-ordination, alignment and capacity building at the country level
	PRINCIPLE 2	RESULTS AND TARGETED IMPACT Realising sustainable development outcomes through mutual benefits
	PRINCIPLE 3	INCLUSIVE PARTNERSHIP Fostering trust through inclusive dialogue and consultation
	PRINCIPLE 4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Measuring and dissemin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results for learning and scaling up of successes
	PRINCIPLE 5	LEAVE NO ONE BEHIND Recognising, sharing and mitigating risks for all partners

자료: GPEDC (2019:5)

개발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PSE를 위한 캄팔라 원칙은 효과적인 개발 협력을 위한 부산 원칙 구현과 보완, 개발 협력에서 PSE가 제시하는 주요 도전 과제 및 기회 해결, 민간 부문의 이질성과 다양성 인식, 2030 어젠다 이행과 가장 뒤떨어진 사람들을 돕는 정신을 포함하여 국가 및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우선순위를 지원하는 데 맞춰져 있다.

캄팔라 5대 원칙은 민간 부문 파트너십에 대한 새로운 규범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 개발 파트너, 민간 부문, 시민 사회 및 노동조합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그룹에 맞춘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원조와 민간의 협력에 관한 논의 수준을 당위를 넘어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전된 논의로 볼 수 있다.

2) 운영위원회

GPEDC는 장관급 회의의 의제 준비 등 글로벌 파트너십의 실질 운영은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운영위원회는 공여국, 신흥국, 수원국의 장관급 공동의장과 공여국, 신흥국, 수원국, 의회, 시민사회, 민간, 다자개발은행, UNDP, OECD 출신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부산 파트너십 구축과정에서의 기여를 인정받아 영국(공동의장), EU, 미국과 더불어 공여국 대표로 1차 운영위원회부터 참여해왔으며, 2020년부터 다시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2014년까지 공동의장 3명, 수원국 대표 5인, 공여국 대표 3인, 공여-수원국 대표 1인, 민간부문 이해관계자 1인, 의회 1인, 시민사회 1인, 다자개발은행 1인, UNDP/UNDG 1인, OECD DAC 1인 등 총 18인으로 유지되어 오다,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6인의 대표성을 추가하여 24인 위원회로 확대되었다(GPEDC, 2014). 추가된 부문은 공여-수원국 대표 1인(총2인), 아프리카 대표 1인, 아랍 공여국 1인, 비전통적 시민사회/노동조합 1인, 민간재단 1인, 지방정부 1인 등 총 6개자리이다. 이후 국가를 대표하는 3인의 공동의장에 4번째 공동의장 1인 및 당연직 위원(ex-officio member) 1인을 추가하여 현재 총 26인으로 구성되어있다(〈표 10〉 참조).

〈표 10〉 GPEDC 운영위원회 구성

	2012	2014	2020 현재
공동의장	3	3	4(DR콩고, 방글라데시, 스위스, Reality of Aid*)
공여국	3	3	3(한국, 캐나다, EU)
수원국	5	5	6(코트디부아르, AUDA, 아프가니스탄, 엘살바도르, 네팔, Pacific Islands Forum)
공여국-수원국	3	3	2(콜롬비아, 필리핀)
민간부문	1	1	1(국제상공회의소ICC UN 대표)
의회	1	1	1(Inter-Parliamentary Union 사무총장)
시민사회	1	1	1(CSO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다자개발은행	1	1	1(IADB)
UNDP/UNDG	1	1	1(UNDP)
OECD DAC	1	1	1(OECD)
아랍 공여국	-	1	1(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노동조합	-	1	1(ITUC)
민간재단	-	1	1(WINGS)
지방정부	-	1	1(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당연직	-	-	1(독일 BMZ)

* 4th non-executive co-chair

자료: GPEDC (2014); GPEDC 홈페이지 참조.

운영위원회 구성의 변화 특히, 구성원의 확대는 참여 주체 면에서 포용성을 강조하는 GPEDC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구성원이 숫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민간재단, 지방정부 등 개발협력의

주체로 활동을 확대해가는 주체들을 파트너십 논의의 장으로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가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연2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고위급 회의의 의제를 조율하는 한편, 201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파트너십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는 역을 담당한다. 앞서 기술한 2017~18년 사업계획 기간 동안 운영위원회는 각 activity별 산출물을 보고받고 Knowledge Platform 등 산출물의 이행을 승인해왔다. 지난 2019년 19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는데,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18 사업계획에 비해 사업의 분야를 개발효과성, 이해당사자, 모니터링의 3개 영역으로 한정하면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1> 2020~2022 Global Partnership Work Plan

우선 순위	주요내용	결과물
1	2030 어젠다 이행 가속화를 위한 개발효과성 증대	
	• [이행분야 1.1] 효과성의 영향 입증(Demonstrating the impact of effectiveness) • [이행분야 1.2] 통계역량과 데이터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강화 (Strengthening effective support to statistical capacity and data)	[1.1] 사례개요서, 효과성 영향 연구 [1.2] 통계시스템 가이드라인
2	더 나은 파트너십 구축(Building Better Partnership)	
	• [이행분야 2.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 파트너십: 캄팔라원칙 이행 (Private sector partnership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Translating the Kampala Principles to action) • [이행분야 2.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삼각개발협력(Triangular development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이행분야 2.3] 남남협력의 국가 주도 개발효과성 지원(Supporting country-led development effectiveness of south-south co-operation) • [이행분야 2.4] 시민사회파트너십: 시민사회참여 기반구축과 시민참여 공간 확대(Civil society partnerships: enabling civil society participation and addressing shrinking civic space) • [이행분야 2.5] 새로운 방식을 통해 민간재단의 문제해결 공동기획 및 공유 민간재단 개입 가속화(Reinforcing foundations' engagement for co-designing and sharing solutions through new ways of working) • [이행분야 2.6] SDGs 달성을 위한 국내 지방수준의 개발효과성 강화 (Strengthening development effectiveness at subnational level to achieve the SDGs) • [이행분야 2.7] 효과적인 다자간 지원(Effective multilateral support)	[2.1] 사례개요서, toolkit [2.2] 가이드라인, 사례 [2.3] 남남협력효과 종합보고서, 정책제안 [2.4] 가이드라인, 정책제안, 사례 [2.5] 정책연구, toolkit [2.6] 연구, 사례, 정책노트 [2.7] 서베이, 정책제안
3	모니터링 결과가 이끄는 행동변화(Leveraging monitoring for action)	온라인 toolkit, 새로운 데이터, 모니터링 제안

자료: GPEDC 2020 요약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총10개의 이행분야 중 7개 분야가 파트너십에 관련된 내용으로 민간, 삼각협력, 남남협력, 시민사회, 민간재단, 지방정부, 다자간 등 모든 이해당사자 플랫폼으로서 GPEDC 출범 초기부터 참여확대를 강조했던 파트너들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Work Plan은 GPEDC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이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그간 추진해온 파트너십 부문의 성과가 미진한 것의 반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표 12〉 2020~2022 Work Plan 선도국/기관 및 예산확보 계획

이행분야	선도국/기관 및 참여	예산확보계획
1.1 효과성 영향	EC, 방글라데시, 캐나다, CPDE, 엘살바도르, 핀란드, FAO, 독일, IADB, ITUC, 케냐, 스위스	-
1.2 통계역량지원	1) 선도: 스위스 2) 태평양 도서국, UNSDG, MDB, 한국, 아랍공여국, 지방정부 3) 마다가스카르, 독일, 스웨덴, EU, 핀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가나 4) PARIS21, GPSDD, OECD DAC D4D, OECD DAC 성과 커뮤니티, DI, WB	1) 스위스: Scoping paper 작성 초기 자금 지원 2) 관심있는 파트너 자금지원 가능 3) 파일럿으로 참여하는 국가
2.1 민간/PSE	1) 선도: 독일 2) 아프가니스탄, NEPAD, 방글라데시, 민간대표, 캐나다, CPDE, 이집트, 엘살바도르, EC, ITUC, MDB, IFAD, 네팔, 태평양도서국, 페루, UN	추후결정예정 1) 독일 및 참여 파트너
2.2 삼각협력	1) 선도: 캐나다 2)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일본, 멕시코, 페루, 르완다, 남아공, 스페인, 우간다, NEPAD, BRICS 정책센터, CCIC, CPDE, DOT, ILO, ISDB, FAO, UNEP, UNDP, UNODC	명시적인 계획없음 (캐나다 In-house)
2.3 남남협력	1) 선도: 콜롬비아 2) 인도네시아, 미얀마, 멕시코, 르완다, 조지아, FAO, ILO, UNDP, UNEP, UNODC, NEPAD	-
2.4 시민사회	1) 선도: 운영위원회 공동위원장 2) CSO TF(ISS 네덜란드), CPDE, 캐나다, ITUC, 민간재단, 스웨덴, UNODC, FAO 3) OECD CSO Workstream	1) 초기비용 및 이후 경비는 참여국가에서 조달예정 2) 핵심 파트너의 인적자원 활용예정
2.5 민간재단	1) 선도: WINGS 2) 캐나다, 가나, 케냐, Reality of Aid Africa	추후결정예정
2.6 지방정부	1) 선도: 지방정부(UCLG, ORU-FOGAR, UNDP ART) 2) NEPAD, CPDE, DR콩고, EC, 프랑스, 아이슬란드, 코트디부아르, 스페인, 스위스	1) 핵심 파트너의 인적자원 (in-kind contribution) 2) UNDP ART와 ORU-FOGAR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
2.7 다자지원	-	-
3.1 모니터링	1) 선도: 운영위원회 공동위원장 2) JST 및 참여국/기관 전체	JST

자료: 각 이행분야 상세 제안서를 요약하여 저자 작성

전체 예산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2017년 Work Plan에 비해, 2020 Work Plan은 이행분야별 상세제안서가 별도로 첨부되어있어 개별 프로젝트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시사하고 있다. 공통된 양식으로 작성된 개별 상세제안서는 각 주제별 선도국/기관(lead)와 참여국/기관, 목표, 세부목표, 산출물, 위험요인, 일정, 예산확보계획 등이 포함되어있다. 문제는 표면적으로 가장 중심영역으로 보이는 파트너십 부분의 상세계획서가 개발효과성이나 모니터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완성을 보이고 있어, 실제 작업 일정 및 산출물의 관리나 이후 결과의 활용이 원활할 수 있을지 의문을 야기한다.

실제로 파트너십 부분의 제안서는 대부분은 산출물을 도출하기 위한 예산의 규모와 내역에 관한 내용이 없고, 비용 조달에 관련한 내용도 명시적이지 않다. 또한 예산 조달 계획이 명시된 분야도 대부분 초기비용(seed money)을 선도국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참여의향을 밝힌 국가나 기구는 참여의 정도에 따라 기여를 할 뿐 재원조달의 의무를 지지는 않아 계획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는 정도가 분야별로 매우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캐나다, 독일, 스위스, 가나,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멕시코, 스페인, 르완다 등의 국가들이 2개 이상의 이행분야에 참여의사를 표한 적극 참여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 운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모니터링과 시민사회, 통계역량 강화와 데이터 이슈를 선도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독일도 개발효과성 논의에 참여하면서 삼각협력, 민간참여 논의를 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SDGs 이행을 위한 개발도상 파트너들의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통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행분야에 참여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역할이나 예산의 기여에 대해서는 제안서 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3)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럼

우리나라는 GPEDC 제1차 HLM을 계기로 △부산 공약 이행 점검 활성화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성과 제고 및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아웃리치 등을 위해 포럼 개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제1차 부산글로벌파트너십포럼(이하 부산포럼) 개최 이후 2019년 12월까지 총 5차례의 부산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부산포럼은 공여국,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4대 원칙의 이행을 촉진하는 활발한 협력의 장으로 기능을 목표로 한다. <표 13>은 과거 부산포럼의 주요 논의 의제를 보여주고 있다.

〈표 13〉 부산포럼 주요의제(각년도)

개최연도	주요의제
2014년	• 부산 총회 공약 이행점검 및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발전 방향 논의 • GPEDC 원칙 이행의 우수사례 및 교훈 공유 • 국가 시스템 활용,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확보, 포용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 논의 등
2015년	• 2030 의제와 GPEDC의 역할 논의 • 개발효과성 및 SDGs 이행에서의 민간부문의 역할 논의 • 취약국에서의 개발효과성 및 GPEDC 원칙 적용방안 논의
2016년	• 개발효과성 의제 이행점검 및 SDGs 및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기여 방안 논의 • 성평등 및 여성권위신장,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효과적 파트너십에서 민간 역할,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방안 등 논의 • GPEDC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방안 논의 등
2017년	• 부산원칙 이행점검 및 공여국, 개도국간 개발효과성 상호증진 방안 논의 • 개발자원 확대, 남남협력, 민간과의 연계방안 논의 및 결과 공유 • 개발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발전 방안 논의 등
2019년	• SDGs 및 개발자원과 GPEDC 원칙의 연계방안 논의 • 2018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SDGs와의 연계 개선 방안 논의 •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SDGs와 민간 연계, 개발효과성 아웃리치 관련 논의 등

자료: 각년도 부산포럼 자료집 토대 저자 작성.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포럼의 논의 주제는 운영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GPEDC 구성 요소 전반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행점검 활성화나 성과제고, 아웃리치 등 소기의 목적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별로 실무진을 초청하여 국가 단위에서의 개발효과성 원칙 이행의 경험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GPEDC의 주요 의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GPEDC의 고위급 회의는 주로 원칙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다양한 이슈들을 개발협력 논의 안에 반영하는 등 부산총회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 포용성(inclusiveness)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GPEDC가 규범으로서 활성화 되기 위해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를 합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고위급 회의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부산총회 이후 고위급 회의에 OECD 국가 중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국가는 매우 드물며, 신흥공여국의 참여를 통한 효과성 증대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는 단 한 차례도 참여한 바 없다(Janus et al. 2016 참조).

또한 고위급 회의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파트너십과 관련한 의제들이 원칙과 당위성을

확인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당위성의 결과 이행해야 하는 ‘숙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차례 승인된 사업계획과 운영위원회의 어젠다는 GPEDC가 출발한 원조효과성 논의를 뒷받침하기보다는 파트너십 확장과 개발협력과 파트너십의 접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다양한 파트너들이 광범위한 개발협력의 이슈를 다루는 SDGs 이행을 지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원조(또는 개발협력) 효과성 규범으로서 GPEDC의 역할과 지향점은 더욱 모호해진다. 이론적으로 규범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모호성이 증가된다면 동 규범의 우수성을 높이고 이행이 쉽도록 만들어 규범의 효용을 증대할 수 있다(Panke and Petersohn, 2016). 그러나 GPEDC가 다루어온 어젠다는 규범 요소를 강화 시켰다기 보다는 담론위주에 치우쳐 정치적 영향력을 잃게 되는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다(Bracho, 2017:3). 저조한 Knowledge Platform의 참여에서 알 수 있듯이 GPEDC는 모범사례 발굴과 공유에 초점을 맞추어 지식교환 플랫폼으로 전환을 모색하면서 해야 할 ‘숙제’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OECD DAC 회원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공여국들과 신흥 공여국들의 적극적 참여가 결여되면서 수원국과 비 국가 행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로서 GPEDC는 그 자체로 의제를 수립하고 선도하고 확산할 강력한 기반이 부족하다(Keizer and Lundsgaarde, 2016:3). ‘효과적 개발’은 개발협력의 거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방 의제로 의제를 행위로 변환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도전과제이다. 이러한 가운데 파트너십의 범위와 혁신 등 주제의 확대는 그 자체로 실행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Bracho, 201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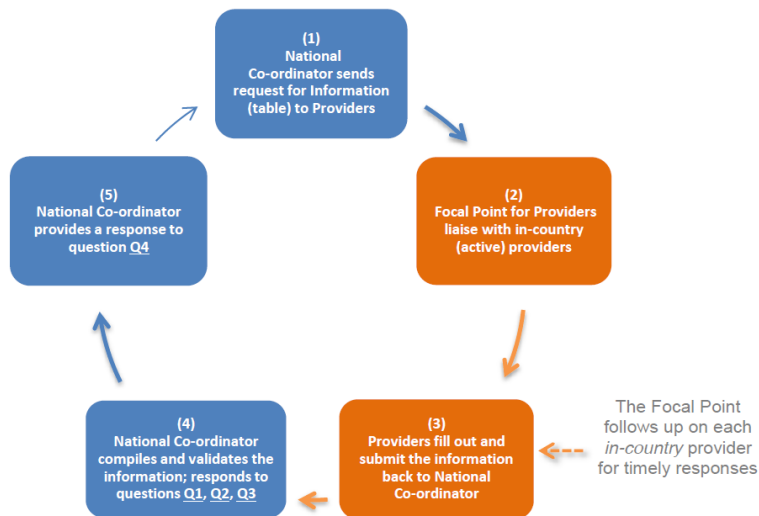
따라서 GPEDC의 운영은 모호한 개발효과성을 정의하고 모니터링 결과가 개발협력파트너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의제 선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GPEDC 원칙과 구상이 반영되고, 개발효과성이 영향(effectiveness to impact)으로 이어지는 우수사례를 통해 개발효과성과 SDGs를 비롯한 개발담론과의 연결을 찾으려는 최근의 노력은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이러한 시도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과 측면에서 적절한 역할 분배가 필수적이다. 고위급 회담-운영위원회-부산포럼 간 역할을 제고하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적절히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2. 모니터링 체계

1) 모니터링 절차

GPEDC 모니터링은 주로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지며 개도국(수원국) 정부의 “국가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조율되며 동 코디네이터는 공여국(기관), 시민사회단체, 의회, 기업, 노동조합 등 다른 GPEDC 주체의 참여를 주도한다. GPEDC 모니터링은 특정 설문조사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진행된다. 예로, 지표별 자료 수집 과정은 <그림 10>과 같은데, 국가 코디네이터는 공동지원팀에서 제작한 자료 템플릿을 수원국 내 공여국 담당자(focal point)에게 전달하고 해당 담당자는 타 공여국(기관)에게 전달하여 정보 입력을 요청한다. 각 공여국(기관)이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공여국 담당자는 이를 취합하여 다시 국가 코디네이터에게 전달하고 국가 코디네이터는 정보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국가 코디네이터는 최종 결과를 GPEDC 공동지원팀에 제출한다.

〈그림 10〉 GPEDC 지표 자료 수집 절차



자료: GPEDC (201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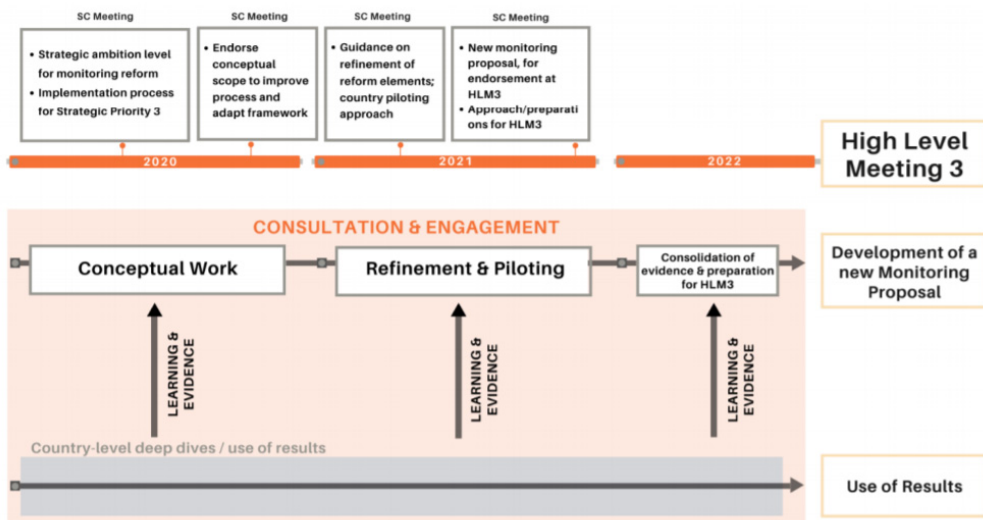
GPEDC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10개 지표에 대한 자료를 수집, 취합하고 정기적으로 글로벌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한다. GPEDC는 이와 같은 글로벌 모니터링을 통해 △GPEDC 지표 달성의 진전 상황을 추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하나의 개발협력 증거로 활용하여 개발협력 주체 간 대화를 지원하며, △국가단위에서 개선된 파트너십과 더 나은 정책을 위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GPEDC는 2013년 첫 번째 모니터링을 완료한 이후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후속 모니터링을 완료하였다. 관련 보고서는 각각 2014년, 2016년, 2018년에 발표되었다. 제1차 모니터링에는 46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제2차에는 81개국이, 제3차에는 86개국이 참여하였다. 이 중 39개국은 총 3차례의 모니터링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최빈국(Least Development Countries) 중에서는 제1차 모니터링에는 21개국, 제2차에는 41개국, 그리고 제3차에는 43개국이 참여하여 전체 참여국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2) 모니터링 개혁

GPEDC는 2020년 개최된 제19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GPEDC 모니터링 개혁을 발표하였다. GPEDC는 2019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8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니터링 개혁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그림 11>과 같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표변경과 모니터링 절차 개선을 주축으로 모니터링을 개혁하고 그 결과물을 2022년 HLM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모니터링 개혁은 공동의장이 전반적인 절차를 주도하며 이 과정에서 운영위원회가 자문을 제공하고 공동지원팀이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그림 11> GPEDC 모니터링 개혁 일정



자료: GPEDC (2020)

모니터링 개혁은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2020년은 구상단계로 모니터링 개혁의 전략적 목표, 개혁 범위 등을 결정하고 2021년은 조정·실험 단계로 새로운 모니터링 체계의 마련 및 이에 기반 한 시범(pilot) 프로그램 등을 실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는 시범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교훈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를 보강하고 HLM-3에 새로운 모니터링 체계를 제출할 예정이다(GPEDC, 2020).

또한 모니터링 개혁기간인 2020-2022년에는 개혁에 집중하기 위해 모니터링 라운드를 한 번 생략할 계획이라 발표하였다. 그러나 모니터링 미 실시 기간에도 GPEDC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니터링의 새로운 지표에 대한 검증 결과 및 2018년 모니터링 결과 활용에 대한 실증 분석 등을 HLM-3에 제출할 예정이라 언급하였다(GPEDC, 2020).

3) 모니터링 개선사항

본래 동 연구는 개도국의 글로벌 모니터링 참여 및 지표의 성과가 개발재원이라는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연계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통계분석을 통해 GPEDC의 모니터링 참여 및 비참여국의 개발재원(ODA, 해외직접투자 등) 규모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GPEDC 모니터링의 참여국과 비참여국 간 개발재원의 차이를 파악하고 3차례 진행된 모니터링에서의 지표별 성과가 개발재원의 증액, 경제성장 등의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 진행된 GPEDC 모니터링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통계분석을 시행하기에 GPEDC 모니터링 지표와 수집된 통계자료 자체에 여러 한계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크게 1) GPEDC 모니터링 참여의 비지속성과 2) GPEDC 지표별 방법론의 한계로 정리될 수 있다.

가. 모니터링 참여의 비지속성

첫째, 지난 3차례의 GPEDC 모니터링 참여국은 46개국에서 81개국, 86개국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표 14>와 같이 모니터링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니터링 참여국들이 모든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4〉 GPEDC 모니터링 지표별 참여국가의 수

지표	지표 내용	제1차	제2차	제3차
Indicator1a1	목표단위의 원조 일치	-	81	84
Indicator1a2	성과단위의 원조 일치	-	81	80
Indicator1a3	모니터링 및 통계단위의 원조 일치	-	81	80
Indicator1a4	정부가 참여하여 최종 평가를 진행하는 신규 사업(intervention)의 비율	-	81	80
Indicator1b	국가 성과 프레임워크 강화	-	-	86
Indicator2_1_gov	시민사회단체의 개발 참여 극대화(개도국 응답)	-	59	46
Indicator2_2_CSO	시민사회단체의 개발 참여 극대화(시민사회 응답)	-	-	44
Indicator2_3_DP	시민사회단체의 개발 참여 극대화(개발 파트너 응답)	-	-	34
Indicator3_gov	민관 대화 품질(개도국 응답)	-	55	47
Indicator3_Pslarge	민관 대화 품질(대기업 응답)	-	55	42
Indicator3_SME	민관 대화 품질(중소기업 응답)	-	55	38
Indicator3_T	민관 대화 품질(노동조합 응답)	-	55	35
Indicator4b	개발협력에 관한 투명한 정보 공개	-	-	73
Indicator5a_1	개발협력 예측성(연간, 공공부문에 대한 집행이 계획과 동일 또는 이하일 때)	48	79	83
Indicator5a_2	개발협력 예측성(연간, 공공부문에 대한 집행이 계획과 동일 또는 이상일 때)	53	79	83
Indicator5b	개발협력 예측성(중기)	55	79	65
Indicator6_1	의회의 정밀검토에 따른 정부의 개발협력 예산 포함(금액이 계획과 동일 또는 이하일 때)	47	72	60
Indicator6_2	의회의 정밀검토에 따른 정부의 개발협력 예산 포함(금액이 계획과 동일 또는 이상일 때)	50	66	54
Indicator7	포괄적 검토에 의한 개발협력 주체자들 간의 상호책무성 강화	55	81	83
Indicator8_2018	양성평등과 여성권의 신장을 위한 공공배분을 추적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 구축	-	-	69
Indicator9b	개발파트너의 국가시스템 활용	-	80	84
Indicator10	원조 비구속성	-	78	69

자료: GPEDC 자료 토대로 저자 작성. 지표내용은 GPEDC (2018c) 참고.

예로, 3차례의 모니터링을 동일 지표선상에서 비교하였을 때 제1차 모니터링은 10개의 지표에서 실제로 3개의 지표(지표 5, 6, 7)에 대한 현황만을 측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GPEDC 모니터링 보고서를 살펴보면 위 3가지 지표 외에도 지표 8, 9, 10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GPEDC, 2014: 127-130) 이는 제1~3차 모니터링에서 동일한 지표라도 통계자료 수집 기준이 상이하여 연동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제1~3차 모니터링을 통해 동일한 기준으로 지난 4년간 변화 추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10개 중 3개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3차 모니터링에는 총 86개국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나 이 86개국이 10개의 지표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제3차 모니터링에서 86개국이 모두 응답한 지표는 지표1b만이며, 지표4에 대해서는 83개국만이 자료를 제출하였고 지표 7에 대해서는 69개국이, 지표 10에 대해서도 69개국만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같은 세부지표라도 모든 개발주체들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예로, 제3차 모니터링에서는 지표2(시민사회단체의 개발 참여 극대화)에 대해 개도국, 시민사회, 개발 파트너가 각각 응답한 반면, 제2차 모니터링에서는 지표2에 대해 개도국만이 응답, 자료를 제공하였다. 반면 지표3(민관 대화 품질)에 대해서는 제2차 모니터링에서 81개의 모니터링 참여국 중 55개국만이 개도국,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조합의 응답 자료를 각각 수집한 반면, 제3차 모니터링에서는 86개국이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표3에 대해서는 응답정도가 상이하여 47개국이 개도국 정부의 자료를, 42개국이 대기업, 38개국이 중소기업, 35개국이 노동조합의 자료를 각각 제출하였다. 이는 특정 개도국 내에서도 지표에 따라 개발협력 주체의 응답률이 상이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GPEDC 모니터링 전체 참여국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실제 모니터링 지표별 참가국의 수는 전체 수보다 적으며 동일 지표에 대한 자료가 지속성 있게 수집되지 않고 참여국 또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표별 참가국 수의 큰 편차와 제1차~3차 모니터링을 모두 참여한 국가가 86개국 중 39개국이라는 점은 GPEDC 모니터링 자료가 신뢰성 있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나. 모니터링 지표별 방법론의 한계

둘째, GPEDC 지표별 방법론의 변화 또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GPEDC의 경우 같은 지표더라도 모니터링 차수에 따라 세부지표의 정의와 수집된 통계자료의 내용이 상이하였다.

〈표 15〉 GPEDC 지표별 방법론의 차이

	제2차	제3차
지표 1a	- 국가주도 성과 프레임워크에서 목표를 도출한 신규 개발사업의 비율(%) - 국가주도 성과 프레임워크에서 도출된 성과지표의 비율(%) - 파트너 국가의 자체 정보를 통해 모니터링된 성과 지표의 비율(%) - 파트너 정부가 참여하여 최종 평가를 진행하는 신규 사업(intervention)의 비율(%)	- 개발협력 공여국(기관)의 국가주도 성과 프레임워크 활용도(%) - 국가주도 성과 프레임워크에서 목표를 도출한 신규 개발사업의 비율(%) - 국가주도 성과 프레임워크에서 도출된 성과지표의 비율(%) - 파트너 국가의 자체 정보를 통해 모니터링된 성과 지표의 비율(%) - 파트너 정부가 참여하여 최종 평가를 진행하는 신규 사업(intervention)의 비율(%)
지표 2	- 국가 발전 정책 관련 여러 이해관계자 간 대화의 장소 유무(3점: 이상적) - 시민사회단체는 책무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적용함(5점: 이상적) -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적 개발협력(4점: 이상적) - 시민사회단체 참여 극대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 구축(4점: 이상적)	- 시민사회 참여 유도 환경: 정부 평가 - 시민사회 참여 유도 환경: 시민사회 평가 - 시민사회 참여 유도 환경: 개발 파트너 평가
지표 3	- 민관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부문의 의지(10점: 이상적) - 민관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10점: 이상적) - 민관대화를 조성할 수 있는 챔피언의 존재(10점: 이상적) - 민관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구의 존재(10점: 이상적)	- 민관 대화의 품질: 정부 평가 - 민관 대화의 품질: 대기업 평가 - 민관 대화의 품질: 중소기업 평가 - 민관 대화의 품질: 노동조합 평가
지표 8	-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추적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 발언문 유무 - 정부는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지원금액을 체계적으로 추적함 - 중앙정부 부서는 성평등 지원액의 추적 시스템을 관리, 총괄함 - 성평등 예산 지원액 관련 대중적으로 공개된 정보 유무	-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추적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 발언문 유무 - 정부는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지원금액을 체계적으로 추적함 - 중앙정부 부서는 성평등 지원액의 추적 시스템을 관리, 총괄함

자료: GPEDC Dashboard 토대로 저자 작성(2020.7.21. 조회)

〈표 15〉를 보면 동일한 지표에 대해 세부지표가 추가, 생략되거나 또는 세부지표 내용과 방법론이 전면 수정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로, 지표 1a(개발파트너의 국가주도 결과 프레임워크 활용)의 경우 제3차 모니터링에서는 제2차 모니터링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세부질문(개발협력 공여국(기관)의 국가주도 성과 프레임워크 활용도(%))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지표 8(양성평등과 여성권의 신장을 위한 공공배분을 추적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 구축)의 경우에는 제3차 모니터링에서 제2차 모니터링에 포함되었던 세부질문(성평등 예산 지원액 관련 대중적으로 공개된 정보 유무)이 생략되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질문과 자료 수집 방법론이 전면 수정된 경우도 있다. 지표 3(양질의 정부-기업 간 대화 프레임워크)의 경우 제2차 모니터링에서는 민관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로 다른 개발협력 주체의 의지를 0-10점 구간에서 평가하였다면 제3차 모니터링에서는 지표 3의 세부질문을 민관대화의 품질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각 개발협력 주체의 평가치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평가치 또한 0-10점이 아닌 0-18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게 하였으며 0-18점을 다시 4개의 항목(약함, 형성 중, 강화단계, 효과적)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각각 0부터 4 또는 5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GPEDC, 2018c). 지표 2(시민사회단체의 개발 참여 극대화) 또한 제2차 모니터링에서는 4개의 세부질문으로 구성하고 해당 세부질문에 대한 점수를 최소 0에서 최대 3, 4 또는 5점까지 서로 달리 부여하게 하였다면 제3차 모니터링에서는 세부질문을 전면 수정하여 시민사회 참여 유도 환경이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간소화하고 대신 해당 질문에 대해 각각 다른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이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평가 점수 또한 최소 0점에서 3점까지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GPEDC, 2018c).

〈표 15〉에서 언급된 지표들과 달리 제1차부터 3차 모니터링까지의 통계 값을 모두 있는 지표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동일한 세부질문과 방법론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값을 측정하였다. 예로 지표 7(포괄적 검토에 의한 개발협력 주체자들 간의 상호책임성 강화)은 3차례의 모니터링 모두 △원조 또는 파트너십 정책의 유무, △국가 단위의 개발협력 세부목표의 유무, △정부와 개발파트너 간 정기적 공동평가의 유무, △공동평가에서 비상임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공동평가관련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 유무라는 동일한 세부질문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통계 값을 수집하였다.

GPEDC는 SDGs와의 연관성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지표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모니터링 지표를 개선하였다고 하나, 모니터링 차수별로 세부지표 문항이 다르고 모니터링 지표별로 응답률이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측정값을 신뢰하기 어렵고 지표마다 지난 2-3년간

글로벌,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어떠한 개선과 진전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즉,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국가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표별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지표의 실효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홈페이지를 통한 모니터링 지표 변경이나 추가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한적이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하지 않거나 단발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에 대한 관리방안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계자료의 품질과 일관성 문제는 동 연구가 본래 의도하였던 GPEDC 모니터링의 개발협력 효과성 기여도 및 GPEDC 참여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 등을 통계적으로 살펴볼 수 없게 하였다.

3. LAP

한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GPEDC 원칙 이해도 제고와 실질적인 실무 이행역량의 배양을 위해 2014년부터 부산포럼과 연계하여 KOICA의 이행역량개발프로그램을 기획하여 GPEDC의 제도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LAP은 부산원칙 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추진되는 유일한 실무급 프로그램으로서, 수원국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국제개발동향과 이행수단을 자체적으로 학습하기 어려운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LAP은 실제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GPEDC 또는 개발효과성 담당 공무원(과장급)을 대상으로 한다. LAP의 목적은 △GPEDC 모니터링 방법론과 체계 개선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의 효율적 활용방안 및 국별 시사점 논의, △GPEDC의 4대 원칙에 대한 동료학습 및 기술훈련, △효과적인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업무에의 적용방안 논의, 그리고 △효과적인 개발협력에 대한 공동체 조성이다(KOICA, 2018).

본 장에서는 LAP 이행 결과문서 등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여 1) LAP 이행 현황과 성과와 2) LAP 이행 시 지적되었던 개선점을 중심으로 향후 보다 효과적인 LAP 이행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1) LAP 이행 현황과 성과(2014-2018)

가. LAP 참여국과 참여자 현황

LAP은 2014년에 도입된 이래 2016년부터 부산포럼과 격년으로 이행되고 있어, 지금까지 2014, 2015, 2016, 2018년 등 총 네 차례 실행되었다.⁴⁾ 매 회마다 25개국에서 33개국의 수원

4) 2021년부터는 부산포럼과 같은 해에 개최할 예정이다.

측 GPEDC 및 개발효과성 관련 과장급 실무자가 참여하였고, 4-6일간 GPEDC 이행과 모니터링 관련한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모듈을 구성하여, 다자기관 및 공여 측에서 각 모듈의 이해도 제고와 토론 활성화를 위해 모듈 리드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해 모듈 주제별 발표를 진행하였고, 옹저버도 함께 참여하였다. LAP이 최초로 개최된 2014년에는 총 33개국에서 35명의 연수생이 참석하였고, 2015년에는 25개국에서 25명, 2016년에는 24개국에서 25명, 2018년에는 25개국에서 25명의 연수생이 각 LAP에 참석하였다(〈표16〉 참조).

〈표 16〉 LAP 연도별 참석인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기간	11.3-11.7(5일)	11.18-11.21(4일)	10.3-10.8(6일)	11.12-11.15 (4일)
연수생	35명(33개국)	25명(25개국)	25명(24개국)	25명(25개국)
모듈리드 및 옹저버	21명	19명	18명	13명
총 참석자	56명	42명	41명	38명

자료: 매 회 LAP 결과문서 토대로 저자 작성.

또한, LAP은 수원측 GPEDC 또는 개발효과성 관련 담당자의 지속적인 GPEDC 이해도 제고와 이행역량 강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초청 연수생이 지속적으로 매 회 LAP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LAP 연수생 참석자 자료에 의하면, 당해 초청된 25명의 연수생 중 당해 연도에 최초 참석자는 단 3명이며, 연수생 중 3회 참석자는 7명, 2회 참석자는 10명, 1회 참석자는 12명으로, 2018년 초청연수생 대부분이 1회 이상 LAP에 참석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초청 연수생과 초청대상국의 선정은 △과거 GPEDC LAP(3회 개최) 참석국, △취약국 또는 남남협력 논의에 적극 기여가 예상되는 신규 초청국(네팔, 인도네시아), △2030 어젠다를 위한 GPEDC 개발효과성 활성화 회의(2018.9.11.-12./파리)에서의 주요 발언국(르완다, 코스타리카, 캄보디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표17〉 참조).

〈표 17〉 LAP 초청대상국 및 참여 횟수

구분	지역	국가	2014-2016 LAP 참석 횟수
1	아시아태평양	캄보디아	3
2	아시아태평양	미얀마	3
3	아시아태평양	필리핀	3
4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	3
5	아시아태평양	스리랑카	2
6	아시아태평양	몽골	2
7	아시아태평양	피지	2
8	아시아태평양	방글라데시	1
9	아시아태평양	파키스탄	1
10	아시아태평양	인도네시아	0
11	아시아태평양	네팔	0
12	중동CIS	우즈베키스탄	3
13	중동CIS	아제르바이잔	2
14	중동CIS	타지키스탄	1
15	아프리카	케냐	3
16	아프리카	르완다	2
17	아프리카	모잠비크	2
18	아프리카	말라위	2
19	아프리카	수단	1
20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1
21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1
22	아프리카	탄자니아	1
23	아프리카	짐바브웨	1
24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1
25	중남미	페루	3
26	중남미	온두라스	2
27	중남미	볼리비아	1
28	중남미	과테말라	1
29	중남미	도미니카공화국	1
30	중남미	코스타리카	0

자료: 2018년 LAP 초청대상국 목록.

※ △과거 GPEDC LAP(3회 개최) 참석국, △취약국, 남남협력 논의에 적극 기여가 예상되는 신규 초청국(네팔, 인도네시아), △2030 어젠다를 위한 GPEDC 개발효과성 활성화 회의(2018.9.11.-12./파리) 주요 발언국(르완다, 코스타리카, 캄보디아) 중심으로 선정.

나. LAP 모듈구성과 내용

LAP의 모듈은 제1차 및 제2차(2014, 2015년)에서는 GPEDC 개념과 이행구조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강조되었고, 제3차(2016)부터는 GPEDC의 실제적인 이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별 사례 공유에 집중, 제4차(2018)에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개발효과성 논의를 위한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각 LAP의 모듈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 1차 LAP 모듈구성(2014)

제 1차 LAP은 △GPEDC의 개요와 1차 모니터링 결과 및 향후 추진 방향 및 △GPEDC 4대 원칙에 대한 강의, 사례발표 및 토론(도전과제 및 대안 모색)을 골자로 하는 총 다섯 개의 모듈로 구성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모듈은 다음과 같다.

(모듈1) GPEDC 개요(Introduction to the GPEDC): GPEDC의 목적과 운영방식 등 전반적인 GPEDC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베트남, 말라위, 엘살바도르 등 각 국가별 GPEDC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구축 사례와 도전과제 등 사례발표와 토론 진행.

(모듈2) 주인의식과 개발결과(Ownership and Result): 1) 개발결과, 2) 수원국 수원 시스템 활용과 오너십, 그리고 3) 수원국 정부의 개발전략에 대한 공여국과의 합의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세 개의 세부 주제별로 그룹 토론 진행.

(모듈3) 포괄적 파트너십(Inclusive Partnership): 1) 효과적인 CSO와 정부 간 협력, 그리고 2) 민간부문의 협력 주제를 주요하게 다루면서, 두 개의 세부 주제별로 그룹 토론 진행.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과적인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이들 간 ‘민-관 플랫폼’을 구축하여 협의 채널을 일원화함으로써 양 측 간 커뮤니케이션 효과성 제고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

(모듈4) 투명성과 책무성(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원조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정보공유의 원칙과 방식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 진행.

(모듈5) 모니터링 프로세스와 데이터 관리(Monitoring Process of the GPEDC): 각 국별로 국가 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 자료수집과 모니터링 참여 과정에 대한 사례발표와 더불어, 특히 GPEDC 모니터링에서 모니터링 지표의 미비, 지표측정을 위한 정보 수집의 어려움, 모니터링 업무 담당인력의 부족, 원조정보시스템의 미비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토론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② 제 2차 LAP 모듈구성(2015)

제 2차 LAP은 총 여섯 모듈로 구성되었으며, △GPEDC의 원칙별 사례와 기법에 대한 강의와 함께, △연수생들의 보다 실제적인 학습촉진을 위하여 액션플랜 수립과 토론이 병행되었다.

(모듈1) GPEDC 개요 및 모니터링 참여 방법(Introduction to GPEDC & Contextualization of GPEDC): 참여 연수생들의 GPEDC에 대한 이해도와 2차 모니터링 참여현황 확인 및 GPEDC 운영체제와 이행원칙 등에 관한 개괄적 발표와 더불어, 각 연수생들의 국별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GPEDC 모니터링 참여방법에 관해 논의.

(모듈2) 개발협력의 재원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s for mobilizing & managing development cooperation at national level): 최근 점차적으로 개발재원에서 ODA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개발재원이 다각화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DFA (Development Finance Assessment) 틀 소개를 통해 수원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재원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 진행.

(모듈3) 시민사회에 대한 포괄적 파트너십 관리(Managing multi-stakeholders approaches): 각 참여국별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 현황 확인 및 정부-시민사회 간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한 신뢰구축이 실효성 있는 파트너십의 핵심 요건임을 논의.

(모듈4) 데이터 관리 기법(Enhancing data skills): 개발협력에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측정의 중요성 발표 및 ODA 관련 다양한 데이터 정보원 공유.

(모듈5) 수원국 주도 결과관리체계(Strengthening country results frameworks): 수원국 주도의 국별 성과관리의 틀(Country Result Framework, CRF)의 강화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스위스-방글라데시 주도의 GPI (Global Partnership Initiative) 시범사업 소개 및 토론.

(모듈6) SDGs 달성을 위한 기업 활동과의 파트너십(Partnering with business to achieve the SDGs): 기업을 개발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기업-정부 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사례 소개 및 토론 진행.

③ 제 3차 LAP 모듈구성(2016)

제 3차 LAP은 총 네 개의 모듈로 구성되었으며, △GPEDC 개요 및 4대 이행 원칙에 대한 강의와 토론 및 △각 모듈별 참여연수생의 자국현황에 적합한 액션플랜 수립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모듈1) GPEDC 개요 및 2차 모니터링 결과 공유(The GPEDC Monitoring Framework):
GPEDC 모니터링에서 수원국 국가 시스템 활용을 통한 국가주도 모니터링의 중요성 발표 및 토론.

(모듈2) 공공재정관리시스템 향상 방안 (Improving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성공적인 원조사업을 위해 공공재정관리(PFM) 시스템의 중요성과 PFM 작성 시 주의사항 및 단계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 연수생들은 자국에 PFM 및 조달관련 법령이 존재하나 법의 미이행과 조정 메커니즘의 부재로 인해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과제와 개선방안을 토론.

(모듈3) 기업 유인을 통한 지속가능개발 달성 (How to Better Engage the Private Sector to Deliver Sustainable Development): SDGs 시대의 주요 개발협력 주체로서의 기업의 납세, 서비스제공 등 보다 지속가능한 기업이익 창출과 사회적 책임과 기여에 대한 발표와 논의.

(모듈4) 개도국 결과 틀(Country Results Framework, CRF): 개발협력프로그램과 CRF간의 연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SDGs를 포함한 국가 수준의 목표달성을 위해 중요함을 발표하고 토론.

④ 제 4차 LAP 모듈구성(2018)

제 4차 LAP은 총 다섯 개의 모듈로 구성되었으며, 제 3차 LAP과 마찬가지로 △GPEDC 개요 및 4대 이행 원칙에 대한 강의와 토론 및 △각 모듈별 참여연수생의 자국현황에 적합한 액션플랜 수립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제 3차 LAP과는 차별되는 점으로, 액션플랜 수립활동이 별도의 하루 교육연수 일정으로 할애되어 보다 집중적으로 액션플랜 수립과 연수생 간 공유가 이루어졌다.

(모듈1) GPEDC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및 모니터링 제도화 방안(The GPEDC Monitoring Framework): 보다 적극적인 GPEDC 모니터링 참여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모니터링

참여 개선방안 논의.

(모듈2) SDGs 달성을 위한 multi-stakeholder 파트너십 강화(Strengthening the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development, PPPD)’을 다양한 개발 이슈 해결을 위한 핵심 기제임을 발표하고, 코이카의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 DIP)’ 및 부산선언 이후 CSO와의 파트너십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

(모듈3) 통합적 개발재원 접근법(Integrated approaches to financing): 수원국 정부가 통합적인 개발재원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개발재원 다각화 전략수립의 중요성과 각국의 개발재원 다각화 방안에 대한 토론.

(모듈4) 남남협력·삼각협력 사례 공유(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의 역사적 등장배경 및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지원의 장단점 토론. 특히, 어떤 형태의 협력이더라도 수원국 주도로 수원국의 필요에 부합해야 함을 논의.

(모듈5) 인도적 지원-개발협력-평화 연계성 이해제고를 통한 취약성 개선(Development cooperation in fragile states): 최근 효과적인 개발협력사업의 모델로 제안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개발-평화(HDP)의 새로운 접근법 모델(NWOW)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이처럼 LAP의 모듈구성은 매 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GPEDC의 전반적인 목적과 운영에 관한 개요 및 모니터링 참여방법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제고, CSO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아우르는 포괄적 파트너십, 그리고 옹호와 개발 결과 관련 주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공통 모듈과 함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인도적 지원-개발협력-평화 넥서스 어젠다가 2018년 새로운 모듈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SDGs 어젠다에 발맞추어 개발재원의 다각화에 관한 논의가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있었으며, GPEDC 모니터링 프로세스와 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진행되었다. 공공재정관리 주제는 2016년에, 투명성과 책무성 주제는 2014년에 각 한 차례씩 진행되었다. 이렇게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LAP 모듈구성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8>과 같다.

〈표 18〉 LAP 모듈 구성

LAP 모듈	2014	2015	2016	2018
GPEDC 개요 & 모니터링 참여방법 소개	●	●	●	●
오너십과 개발결과	●	●	●	-
개발재원	-	●	-	●
공공재정관리	-	-	●	-
포괄적 파트너십	● (CSO, 기업)	● (CSO)	● (기업)	● (CSO, 기업)
남남협력/삼각협력	-	-	-	●
투명성과 책무성	●	-	-	-
모니터링 프로세스와 데이터 관리	●	●	-	-
인도적지원-개발협력-평화 연계성	-	-	-	●

자료: 매 회 LAP 결과문서 토대로 저자 작성.

다. LAP 연수생 평가와 피드백

총 네 차례의 LAP은 2015, 2016, 2018년 등 세 차례 참여 연수생의 프로그램 평가와 피드백을 수집하였다. LAP 평가와 피드백 설문자료에 따르면, 세 차례의 전체 LAP 만족도는 평균 87.98점/100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대체적으로 진행방식과 강의, 모듈 구성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한 LAP을 통해 GPEDC 및 개발효과성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참여자들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기회는 유익한 점으로 나타났다.

“모든 모듈은 직무와 연관성이 높았고, 본국에 돌아가서 이를 잘 적용시킬 계획임”
(모잠비크 연수생, 2018년)

“라틴 아메리카계 동료들 만났듯이 행운이었음. 우리는 CRF에 대해 논의하였음”
(파라과이 연수생, 2018년)

“연수에 참여한 여러 국가의 연수생들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으나,
연수기간이 다소 짧았음”
(미얀마 연수생, 2016년)

그러나 운영상에 있어 가장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사전에 LAP 강의안과 토론주제 공유 부족으로, 향후에는 참여의 질 제고를 위한 운영상의 세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길 바라며, 토의 주제 및 질문 내용도 연수생들에게 사전에 전달되길 바람” (아제르바이잔 연수생, 2016년)

“강의자료(PPT)가 사전에 제공되길 바람” (몽골 연수생, 2016년)

아울러 각 모듈 구성에 있어 당장 연수생 국가에서 적용하기 어렵거나, 연수생의 직급에서는 적용이 곤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실습을 통한 모듈 내용의 적용에서는 모듈리더가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을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5번 모듈[수원국 주도 결과관리체계: Strengthening country results frameworks]은 나의 지위에서는 만들기 힘든 액션 플랜이었음” (필리핀 연수생, 2015년)

“참여 국가들의 개발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듈 주제들이 모든 나라의 개발수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스리랑카 연수생, 2016년)

“자국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Action Plan을 수립했다고 하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음” (페루 연수생, 2016년)

특히 2018년 LAP 연수생 평가와 피드백에서 주목해볼 점은, 2018년에 처음으로 조사한 항목인 “향후 진행될 GPEDC LAP 적합한 참가자격(직책, 직무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을 요청하는 문항의 답변으로, LAP 연수생들이 GPEDC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정부기관과 기업,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표 19〉 참조).

〈표 19〉 향후 진행될 GPEDC LAP 적합한 참가자격(안)

-
- 경제관계부 차관
 - 국제협력을 위한 재정부 장관, 계획경제 장관, 외교부 장관
 - 기획·개발 분야에 있는 공공기관, 사기업 및 NGO
 - 동일한 프로파일
 - UNDP 사무소 관계자
 - 온두라스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정부의 주요 장관
 - 경제 및 재정부 관계자
 - 개발협력 사안과 유기적으로 높은 관련이 있는 외교부나 재정경제부 경제부 공무원 및 중간급 관리자기획 및 연구 부문 공공기관
 - 재정 및 경제, 대외협력, 국가 기획 부문 정부부처
 - 정부 각 부처의 상급 위원
 - 기관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임급(Senior)
 - 기관장 및 부기관장
-

자료: 2018년 GPEDC LAP 연수생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제안된 향후 GPEDC 적합 참여자는 경제관련 부서 담당자로서, 이들은 GPEDC의 실제적인 운용과 모니터링을 위한 핵심 담당자이기 때문으로 보이며, 실무급 담당자가 주를 이루는 현재의 LAP에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책결정자 레벨의 참여를 통해 GPEDC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2015년에 조사된 연수생 설문조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LAP 연수를 통해] 사업계획은 원활히 공유 되었으나 단일 기관이 아닌 여러 기관들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실현 가능성은 확실치 않음” (네팔 연수생, 2015년)

이상에서, 2014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LAP에 참여한 연수생들은 LAP이 소기에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 즉, 연수생들의 GPEDC 목적과 운영원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GPEDC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제도적 개선방안과 개발재원의 다각화 등의 이슈를 숙지함으로써 자국의 GPEDC 이행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정부분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LAP 교육연수 내용과 자료에 대한 공지가 사전에 충분히 공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각 모듈의 내용을 자국의 상황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토론과 액션플랜 작성을 위한 지원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LAP을 통해 학습한 GPEDC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식과 기법이 LAP의 주요 참여자인 각 수원국의 실무급 인사로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한계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좀 더 다양한 부서에서 정책결정자 레벨의 실무급도 함께 초청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LAP 이행의 개선사항

가. LAP 참여국 및 참여자 관련 개선사항

LAP은 부산원칙 이행을 위한 유일한 실무급 정례 프로그램으로 GPEDC의 제도화에 대한 일정 부분의 기여는 명확하나, 향후 LAP이 보다 효과적으로 GPEDC 제도화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참여국과 참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먼저, 참여국의 확대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네 차례의 LAP 결과보고 문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LAP 초청대상국 명단의 작성과 선정에 있어 그 기준이 불분명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GPEDC 모니터링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 국가를 중심으로 참여저조에 대한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섬세한 접근이 요청된다. 가령, GPEDC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실무급 담당자가 부재한 수원국의 경우, GPEDC의 확립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참여자의 확대에 대하여는 각 국의 GPEDC 및 개발효과성 실무급 1인을 초청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GPEDC 모니터링 성과지표 관리자, 재정담당자, 시민사회 관련 부서 담당자 등 GPEDC를 실제로 이행하는 핵심부서의 담당자들을 포섭하여 참여자의 범위와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LAP의 각 모듈에 대한 심화된 이해와 수원측 참여자의 변동을 최소화함으로써 GPEDC 이행 동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수원측의 동일 참여자 유지에 대한 기획 의도는 일정부분 합리적이거나, 실제적으로 GPEDC의 성공적인 제도화의 핵심조건은 GPEDC 이행 모니터링과 개발효과성 간의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LAP에 여러 차례 참여하고 있는 참여국에서 실제로 GPEDC 이행과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와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해 보인다. LAP의 참여국과 참여자 확대를 위해서는 LAP에 참여함으로써 GPEDC 이행에 있어 뚜렷하게 발견되는 긍정적 변화가 인센티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네 차례 이상 참여국들이 LAP에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GPEDC 관련 제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성과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참여국 확대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나. LAP 모듈 구성의 개선사항

LAP 모듈 구성은 큰 틀에서 GPEDC 목적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운영되면서, 모듈 상에 핵심 내용의 유지와 시대적 어젠다 변화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발견된다. LAP 결과 문서에서도 보고하고 있듯이, 이러한 모듈은 점차적으로 그 주제가 심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듈구성은 기본적으로 수원측 참여자들의 변동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주제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LAP에 처음 참여하는 연수생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참여한 연수생들과 각 모듈에 대한 이해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LAP 결과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연수생들의 GPEDC와 개발효과성 어젠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상이한 문제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는 곧 LAP의 효과성에도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LAP의 참여자 다양화와 확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모듈 구성 참여자들의 그룹화 전략이 필요하다. 가령, 최초로 GPEDC에 참여하는 수원측 연수생에게는 각국의 GPEDC

참여에 따른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또는 GPEDC에 여러차례 참여한 연수생의 사례공유를 보다 모듈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더불어 LAP 참여국을 GPEDC 모니터링 이행 수준별로 그룹화하여(상-중-하 단계 등)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각 이행수준별 GPEDC 이행 활성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⁵⁾.

무엇보다도, LAP의 모듈 구성과 내용에서 우선적으로 연수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정이 시급해 보인다. LAP 모듈 구성은 새로 진입하는 참여자와 기 참여자들 모두의 연수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유지모듈과 변화모듈을 적절히 조합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짧은 연수기간에 비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보니 연수내용의 심화가 다소 아쉬운 문제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LAP 결과문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개선사항으로서, 연수생들에게 사전 연수선호주제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연수내용을 구성하거나, 또는 GPEDC 이행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모니터링 이행과 참여, SGDs 모니터링과의 연계 등)을 중심으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실습 등 다양한 방식의 모듈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LAP이 GPEDC의 성공적인 제도화를 위한 핵심 이행 기제임을 고려할 때,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연수내용의 구체화와 심화 전략이 향후 실제적인 LAP의 내실화를 위해 선행될 필요가 있다.

5) 현재 네 차례 LAP에서는 주제별 그룹토론만 시도

IV. 2030 어젠다 이행을 위한 GPEDC의 역할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GPEDC의 모니터링 프로세스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조사 방법(in-depth interview)과 서면 인터뷰 방법을 활용한 질적방법 및 델파이(Delphi) 조사방법을 혼합한 통합적 접근방법(mixed-methods approach)을 적용하였다. 이처럼 두 가지 연구방법을 통합한 접근을 시도하는 이유는 GPEDC의 모니터링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와 방식, 문제점 등에 관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다각도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실제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본래 본 연구는 개도국의 글로벌 모니터링 참여 및 지표의 성과와 개발재원이라는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연계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GPEDC 참여국과 비참여국 간 개발재원의 차이를 파악하고 3차례 진행된 모니터링의 지표별 성과가 개도국의 개발재원 증액, 경제성장, 사회발전 등과 연계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3차례 진행된 GPEDC 모니터링 통계자료 분석 결과, GPEDC 모니터링 참여의 비지속성과 GPEDC 지표별 방법론의 한계로 이와 같은 계량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다. 3장 2절에서 언급되었듯이 모니터링 참여국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는 지표는 3개(지표 5, 6, 7)에 그쳤으며 같은 지표라도 모니터링 차수에 따라 지표의 정의 및 통계자료 수집방법이 상이하였다. 이러한 통계자료의 품질 및 일관성 문제로 인해 기존에 계획한 통계분석 수행이 제한되었다.

1) 질적연구방법: 심층면접조사 방법 및 서면 인터뷰

가. 질적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질적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먼저, 1:1 면대면 심층면접조사 방법으로서, 델파이 패널 구축과 조사에 앞서 전반적인 GPEDC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1차 델파이 조사 시 각 패널에게 델파이 개방형 질문지와 함께, 심층면접조사로부터 도출된 주요한 어젠다 세 건에 대해 구조화된 질문지 형식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보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GPEDC와 관련된 전반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심층면접조사로부터 도출된 주요 어젠다에 대한 전문가 10인의 의견을 모두 청취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심층면접조사 방법과 델파이 조사방법을 혼합한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델파이 패널로 초청될 10인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관련 전문가를 구성한 후 이 중에서 GPEDC 생성과 발전에 관해 실무와 연구 측면에서 가장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3인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각기 정부기관(1인)과 학계(2인)에 소속되었다.

이 3인에 대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주요 면접조사 내용, 조사내용에 관한 비밀 유지와 자유로운 연구 참여 중단 가능, 녹음과 녹취록 작성 등 연구윤리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수행되었으며, 면접조사에는 전체 연구진 중 2인 이상이 함께 참여자가 정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평균 1시간 가량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면접조사에는 연구진 1인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심층면접조사 질문지는 GPEDC 관련 문헌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반 구조화된(semi-structured) 형태로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면접조사 전에 각 참여자에게 미리 배포되었으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표 20>과 같다. 아울러 델파이 1차 조사 시 함께 배포된 구조화된 서면 인터뷰 질문지는 <표 21>과 같다.

〈표 20〉 심층면접조사 질문 목록

1. (개괄) 전반적으로 GPEDC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탄생부터 현재까지(기획에서 실행까지 등)
 -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점 등
2. (모니터링 방식 및 지표) GPEDC 이행지표와 모니터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모니터링 과정
 - 지표 선정의 적절성
 - 데이터 수집방식의 적절성
 - 데이터 활용의 적절성
 - 데이터 수집 주기 등
3. (참여범위) GPEDC 참여국/기관의 범위 확대와 관리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참여 인센티브) 좀 더 많은 회원국, 기관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방식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반대의 의견도 좋습니다.
 - 참여방식에 대한 의견
 - 참여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5. (KOICA LAP) 현재 KOICA가 수행하고 있는 LAP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LAP의 초청연수, 강의 방식 등 운영방식, 개최 시기, JST와 KOICA 역할 등
6. 좀 더 효과적인 GPEDC 및 KAP 운영을 위해 추가로 제안해주실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표 21〉 서면 인터뷰 질문지

주제별 전문가 의견 조사

1. '2030 어젠다 달성을 위해 GPEDC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평소 귀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근거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2. '향후 한국은 부산선언의 실천을 위한 도구로서 GPEDC 운영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3. GPEDC에서 한국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료분석 방법

우선 각 면접조사가 완료된 직후 전체 연구진이 함께 조사된 내용을 디브리핑(debriefing) 하고, 녹취록을 공유하였다. 녹취록으로 정리된 질적 자료는 Corbin & Strauss (2014)가 제시한 질적 자료 분석 방법에 의거하여 체계적이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질적 자료를 각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분석하면서 GPEDC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미 있는 진술문들에 이름 붙이기를 하면서 개방코딩(open coding)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연구자들이 함께 개방코딩의 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서 일치하는 점과 불일치하는 점을 분석하고, 자료해석에 있어 불일치하는 부분을 논의를 통해 해결하였다. 다음으로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을 통해 GPEDC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주제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질적 자료는 델파이 조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맥락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 질적 자료 분석 결과

심층면접조사와 서면 인터뷰를 통한 질적 자료 분석 결과는 V장의 개선안 도출에서 보다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2) 델파이 조사방법

가. 델파이 조사방법 개요

먼저 델파이 조사방법의 특징과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델파이 조사 방법은 15인에서 20인 정도 규모의 전문가 집단인 델파이 패널(Delphi panel)을 대상으로, 3~4차례에 걸쳐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도출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다(이종성, 2001). 일반적인 설문조사와는 달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비대면으로 3~4차례의 조사를 반복함으로써 주위의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은 전문가 개인의 심층적인 의견을 도출해낼 수 있다(이종성, 2001; 이춘식, 2014). 이처럼 델파이 조사방법의 가장 큰 강점은 ‘조사절차의 반복 및 통제된 피드백’으로 집약할 수 있다(Ziglio, 1996; 이종성, 2001; 이춘식, 2014).

델파이 조사방법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델파이 패널을 구성한다. 델파이 패널이란 델파이 조사의 조사대상자로서, 특정 분야나 정책의 전문가 집단이다.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명확하고 타당할 때 조사결과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정인 교과서 선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델파이 조사 시, 교과서 선정제도와 관련된 전문가 집단은 1) 교과서 관련 논문을 작성하여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2) 최근 3년 이내 교과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교사, 3) 최근 5년 이내의 교과서 저자, 4) 최근 10년 이내 교과서 선정 경험을 2회 이상 보유한 교사 등으로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이춘식, 2014).

둘째, 개방형 질문지(open-ended questions)를 구성하여 델파이 패널이 인식하는 연구주제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집한다. 이는 본격적인 델파이 조사의 1차 조사단계로서, 전문가 집단이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갖는 다소 넓은 범위의 인식을 질적으로 조사하는 단계이다.

셋째, 1차 조사단계에서 도출된 내용을 구조화하여 설문지를 작성한 후 설문 응답 자료를 수집한다. 이는 2차 조사단계로, 1차 조사단계에서 전문가 집단이 질적 방식으로 응답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공통으로 언급되고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한다. 가령, 검정인 교과서 선정제도를 다시 예로 들어보자면, 1차 조사단계 시 주요하게 언급되었던 교과서 선정 주제에 관한 의견(개별 학교, 교육청,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 지원청, 교육감 등)을 수렴하여 델파이 패널이 교과서 선정주제 각각에 대해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설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끝으로 3차 조사단계로서, 2차 조사단계 시 활용했던 설문을 한 차례 더 조사하여 응답 자료를 수집한다.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차 조사단계에 참여했던 델파이 패널이 모두 3차 조사에 모두 응하는 것이 좋다(이춘식, 2014).

나. 델파이 조사방법의 적용: 델파이 패널 구성 및 자료수집 방법

먼저 GPEDC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관한 전문가 11인을 델파이 패널로 구성하였다. 델파이 패널은 GPEDC 및 부산글로벌파트너십포럼에 직·간접적 참여경험이 있는 정부기관, 시민사회, 학계, 연구소 등의 국내 전문가를 중심으로 모집하였다. 국내 관계자만을 델파이 패널로 포함한 이유는 델파이 조사 방법의 특성 상 모든 회차에 패널 전원이 참여해야 질적으로 좋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해외 관계자들에 관하여는 원활한 조사안내와 회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 2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1차 조사에서는 총 11인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였으나, 2차 및 3차 조사에서는 총 10인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표 22〉 델파이 조사 진행일정 및 패널 구성

델파이 패널	1차 조사(n=11) (2020.10.9.-13.)	2차 조사(n=10) (2020.10.14.-15.)	3차 조사(n=10) (2020.10.16.-18.)
시민사회	1인	1인	1인
학계	4인	4인	4인
정부기관	4인	3인	3인
연구소	2인	2인	2인

주) 학계 총 4인 중 2인은 심층면접조사에도 참여함.

다음으로, 확정된 델파이 패널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https://docs.google.com/forms/>)를 활용하여 3차례에 걸쳐 온라인 기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일정은 1회차 10월 9일-13일, 2회차 10월 14일-15일, 3회차 10월 16일-18일이다(〈표 22〉 참조).

델파이 1차 조사단계의 개방형 질문지는 기본적으로 1) 현행 GPEDC 운영, 2) 모니터링 방식과 지표, 3) 참여회원국의 수와 범위, 4) 부산포럼의 전반적인 운영, 목적 및 내용, 그리고 5) LAP과 관련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각 질문 당 최대 다섯 가지를 제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질문지는 〈표 23〉과 같다.

〈표 23〉 델파이 1차 조사 개방형 질문지

1. 현행 GPEDC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관하여 평소에 갖고 계신 의견을 최대 다섯 가지만 아래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2. 현행 GPEDC 모니터링 방식과 지표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관하여 평소에 갖고 계신 의견을 최대 다섯 가지만 아래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3. 현행 GPEDC 참여회원국의 수와 범위에 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관하여 평소에 갖고 계신 의견을 최대 다섯 가지만 아래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4. 현행 GPEDC의 부산포럼의 전반적인 운영, 목적, 내용과 관련된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관하여 평소에 갖고 계신 의견을 최대 다섯 가지만 아래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5. 현행 GPEDC의 LAP (Learning and Acceleration Program)의 전반적인 운영, 목적, 내용과 관련된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관하여 평소에 갖고 계신 의견을 최대 다섯 가지만 아래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차 조사단계에서 수집된 의견 중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2차 조사단계의 조사 설문지를 <표 24>과 같이 구성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개방형 질문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델파이 패널이 제시한 특정 개선사항이나 의견이 어떤 맥락과 이유에서 도출된 것인지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차 조사 질문지에도 각 전문가가 본인의 응답에 관해 구체적인 근거와 맥락, 첨언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4〉 델파이 2차 조사 설문지

1. 현행 GPEDC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아래의 개선안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보기에서 선택해주시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선택사항) 귀하께서 해당 보기를 선택하신 이유나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시오.
1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장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GPEDC와 GPEDC 활동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GPEDC 활동내용과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현 개발 효과성 담론에서의 GPEDC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GPEDC 내 추진체계와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하위단위(지역별, 소그룹별) 차원의 대화 채널을 강화하고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GPEDC 원칙이 개발협력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현행 GPEDC 모니터링 방식과 지표에 대한 아래의 개선안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보기에서 선택해주시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선택사항) 귀하께서 해당 보기를 선택하신 이유나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시오.
1	모니터링을 보다 명확히하고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모니터링 결과가 실제 개발효과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도를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모니터링의 목적을 다시 돌아보고, SDGs 시대에서 모니터링의 목적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모니터링 내용 및 지표와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에 맞게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각 모니터링 참여국들이 일관된 모니터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모니터링 지표가 보다 명확해지고 개도국의 현실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등 지표가 개선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모니터링 참여국 내 담당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현행 GPEDC 참여회원국의 수와 범위에 대한 아래의 개선안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보기에 선택해주시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선택사항) 귀하께서 해당 보기를 선택하신 이유나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시오.
1	참여 회원국 수와 범위를 신흥 공여국 중심으로 좀 더 좁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보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지금보다 참여 회원국 수를 확대하기 위해 회원국 관리 제도 등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민간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주체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참여 회원국의 범위는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참여 회원국의 확대보다는, 기존 참여 회원국의 이탈 방지 및 적극적 참여 독려가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현재 참여 회원국 및 기관이 대표성을 갖는지 그 적합성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현재 GPEDC에 시민사회 등 비정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다른 참여 회원국과 동일하게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현행 부산포럼의 전반적인 운영, 목적, 내용과 관련된 아래의 개선평안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보기에 선택해주시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선택사항) 귀하께서 해당 보기를 선택하신 이유나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시오.
1	부산포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부산포럼의 목적과 기여점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부산포럼이 개발효과성의 정치적 모델링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고위급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담론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약, 협의사항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GPEDC 활성화를 위해 현 부산포럼은 아시아지역 GPEDC 활성화를 위한 포럼으로 구체화하고, 다양한 지역에 제2, 제3의 부산포럼을 개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부산포럼을 단발성 행사가 아닌, 개발효과성 논의의 후속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개발 효과성 의제를 현 국제사회의 다른 현안과 의제(SDGs 등에 긴밀히 연계하기 위해 부산포럼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부산포럼을 토대로 GPEDC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	GPEDC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상설 사무국을 신설해야 한다.(리서치 기능 강화 등, 단, 사무국 상설화에 따른 비용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①	②	③	④	⑤	

5. 현행 LAP (Learning and Acceleration Program)에 대한 아래의 개선안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보기에 선택해주시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선택사항) 귀하께서 해당 보기를 선택하신 이유나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시오.
1	LAP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LAP의 성과제고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적응가능성을 중점에 두고 연수과정의 실제 실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LAP의 부산포럼, GPEDC Work Plan, monitoring framework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LAP은 반드시 연수사업일 필요가 없으며, 정기적으로 모든 회원국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LAP이 원조와 개발 효과성에 기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적 개발 효과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LAP이 GPEDC 포럼개최를 위한 로지스틱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시각 때문에 참여국의 거부감이 큰 것이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①	②	③	④	⑤	
7	LAP 연수비용을 줄이는 대신 사무국과 관련 연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끝으로, 3회차 조사 설문지는 각 전문가가 본인이 2회차에 응답한 답변과 델파이 패널 전체가 응답한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의 범위를 제시해주고, 다수의 선택 의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기존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수정의 기회는 강제된 것은 아니며, 델파이 조사의 목적인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공된 것이다. 각 전문가가 2회차에 응답한 본인의 의견을 3회차에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 및 약간의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시 그 이유를 기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3회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는 <표 25>와 같다.

〈표 25〉 델파이 3차 조사 설문지

아래 응답 척도의 상단에는 2차 델파이 설문조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 결과를 요약하여,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을 활용한 범위는 []로,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귀하의 응답은 "x"로 나타내었으며, 하단에는 각 질문에 다시 응답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응답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본 3차의 조사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의 추천치와는 달리 [] 범위를 벗어난 의견을 주시는 경우, 그 이유를 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현행 GPEDC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아래의 개선안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보기에서 선택해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2차 전반적인 조사결과와 다른 의견을 3차 조사에서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 해당 보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1	(2차)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장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3차)	①	②	③	[x	⑤]	평균값: 4.4 최소값: 4, 최대값: 5
2	(2차) GPEDC와 GPEDC 활동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3차)	①	②	③	[4	x]	평균값: 4.9 최소값: 4, 최대값: 5
3	(2차) GPEDC 활동내용과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3차)	①	②	③	④	⑤	평균값: 4.7 최소값: 4, 최대값: 5
4	(2차) 현 개발 효과성 담론에서의 GPEDC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강화해야 한다. (3차)	①	②	③	x	⑤]	평균값: 4.5 최소값: 3, 최대값: 5
5	(2차) GPEDC 내 추진체계와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3차)	①	②	③	[x	⑤]	평균값: 4.3 최소값: 4, 최대값: 5
6	(2차) 하위단위(지역별, 소그룹별) 차원의 대화 채널을 강화하고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3차)	①	②	③	④	⑤	평균값: 4.1 최소값: 3, 최대값: 5
7	(2차) GPEDC 원칙이 개발협력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3차)	①	②	③	x	⑤]	평균값: 4.4 최소값: 3, 최대값: 5

2. 현행 GPEDC 모니터링 방식과 지표에 대한 아래의 개선안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보기에서 선택해주시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2차 전반적인 조사결과와 다른 의견을 3차 조사에서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 해당 보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시오.
1	(2차) 모니터링을 보다 명확히하고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3차)	①	②	③	[x	⑤]	평균값: 4.6 최소값: 4, 최대값 5
2	(2차) 모니터링 결과가 실제 개발효과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도를 강화해야 한다. (3차)	①	②	③	④	⑤	평균값: 4.6 최소값: 4, 최대값 5
3	(2차) 모니터링의 목적을 다시 돌아보고, SDGs 시대에서 모니터링의 목적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3차)	①	②	[x	④	⑤]	평균값: 4.5 최소값: 3, 최대값 5
4	(2차) 모니터링 내용 및 지표와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에 맞게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3차)	①	②	③	④	⑤	평균값: 4.8 최소값: 4, 최대값 5
5	(2차) 각 모니터링 참여국들이 일관된 모니터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3차)	①	②	③	④	⑤	평균값: 3.9 최소값: 2, 최대값 5
6	(2차) 모니터링 지표가 보다 명확해지고 개도국의 현실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등 지표가 개선되어야 한다. (3차)	①	②	[③	x	⑤]	평균값: 4.4 최소값: 3, 최대값 5
7	(2차) 모니터링 참여국 내 담당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3차)	①	②	③	④	⑤	평균값: 4.3 최소값: 3, 최대값 5

3. 현행 GPEDC 참여회원국의 수와 범위에 대한 아래의 개시안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보기에서 선택해주시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2차 전반적인 조사결과와 다른 의견을 3차 조사에서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 해당 보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시오.
1	①	[2]	x	[4]	⑤	평균값: 2.5 최소값: 2, 최대값 4
2	①	[2]	[3]	[4]	⑤	평균값: 4.1 최소값: 3, 최대값 4
3	①	[2]	[3]	[4]	⑤	평균값: 3.9 최소값: 2, 최대값 5
4	①	[2]	[3]	x	⑤	평균값: 4.1 최소값: 3, 최대값 5
5	①	[2]	[3]	[4]	⑤	평균값: 3.2 최소값: 2, 최대값 5
6	①	[2]	[3]	[4]	x	평균값: 3.8 최소값: 2, 최대값 5
7	①	[2]	x	[4]	⑤	평균값: 3.1 최소값: 2, 최대값 4
8	①	[2]	[3]	[4]	x	평균값: 3.9 최소값: 2, 최대값 5

4. 현행 부산포럼의 전반적인 운영, 목적, 내용과 관련된 아래의 개선평안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보기에서 선택해주시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2차 전반적인 조사결과와 다른 의견을 3차 조사에서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 해당 보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다면 자유롭게 자유롭게 기술해주시시오.
1	부산포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3차)	①	[2]	③	x	[5]	평균값: 3.6 최소값: 2, 최대값 5
2	부산포럼의 목적과 기여점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3차)	①	②	③	④	⑤	평균값: 4.5 최소값: 3, 최대값 5
3	부산포럼이 개발효과성의 정치적 모멘텀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고위급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담론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약, 협의사항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해야 한다. (3차)	①	②	[3]	x	[5]	평균값: 4.2 최소값: 3, 최대값 5
4	GPEDC 활성화를 위해 현 부산포럼은 아시아지역 GPEDC 활성화를 위한 포럼으로 구체화하고, 다양한 지역에 제2, 제3의 부산포럼을 개최해야 한다. (3차)	①	②	③	④	⑤	평균값: 3.6 최소값: 2, 최대값 5
5	부산포럼을 단발성 행사가 아닌, 개발효과성 논의의 후속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차)	①	②	③	④	⑤	평균값: 4.5 최소값: 3, 최대값 5
6	개발 효과성 의제를 현 국제사회의 다른 현안과 의제(SDGs 등)에 긴밀히 연계하기 위해 부산포럼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차)	①	②	③	④	⑤	평균값: 4.8 최소값: 4, 최대값 5
7	부산포럼을 토대로 GPEDC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3차)	[1]	②	③	x	[5]	평균값: 3.5 최소값: 1, 최대값 5
8	GPEDC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상설 사무국을 신설해야 한다. (민사지 기능 강화 등. 단, 사무국 신설화에 따른 비용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3차)	①	②	③	x	⑤	평균값: 3.8 최소값: 2, 최대값 5

5. 현행 LAP(Learning and Acceleration Program)에 대한 아래의 개선안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보기에서 선택해주시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2차 전반적인 조사결과와 다른 의견을 3차 조사에서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 해당 보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시오.
1	LAP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인식제 고가 필요하다. (3차)	[1]	[2]	[3]	x	[5]	평균값: 3.9 최소값: 1, 최대값 5
2	LAP의 성과제고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적용가능성을 중점에 두고 연구과정이 실제 실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3차)	[1]	[2]	[3]	x	[5]	평균값: 4.1 최소값: 1, 최대값 5
3	LAP의 부산포럼, GPEDC Work Plan, monitoring framework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3차)	[1]	[2]	[3]	[4]	[5]	평균값: 3.9 최소값: 1, 최대값 5
4	LAP은 반드시 연수사업일 필요가 없으며, 정기적으로 모든 회원국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3차)	[1]	[2]	[3]	[4]	[5]	평균값: 3.7 최소값: 1, 최대값 5
5	LAP이 원조와 개발 효과성에 기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적 개발 효과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3차)	[1]	[2]	[3]	[4]	[5]	평균값: 4.2 최소값: 2, 최대값 5
6	LAP이 GPEDC 포럼개최를 위한 로지스틱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시각 때문에 참여국의 거부감이 큰 것이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3차)	[1]	[2]	[3]	[4]	[5]	평균값: 3.3 최소값: 1, 최대값 4
7	LAP 연수비용을 줄이는 대신 사무국과 관련 연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3차)	[1]	[2]	[3]	[4]	[5]	평균값: 3.4 최소값: 2, 최대값 5

주) 3차 조사 설문지의 기본적인 구성은 모든 델파이 패널에 동일하게 제공되었으나, 2회차 조사에 대한 각 전문가의 응답값은 상이하므로 각 전문가의 2회차 응답값을 반영하여 3회차 설문 조사지가 제공되었음. 본 예시는 전문가 1인의 2회차 응답 값이 반영된 것임.

다. 델파이 자료 분석방법

델파이 자료 분석 시 패널이 제시한 의견의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CVR (Content Validity Ratio) 계수를 확인하였다(이종성, 2001). CVR 계수는 델파이 패널 참여자 수에 따라 기준값이 다르게 설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총 10인의 패널이 구성⁶⁾되었으므로 CVR 계수가 0.62점 이상의 값을 가질 때, 즉, 특정 개선안(문항)에 대해 대부분의 패널이 5점 리커트 척도에서 4점 또는 5점에 해당하는 값에 응답하여 해당 문항이 '필수적(essential)'이라고 응답할 경우, 이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는 95% 신뢰구간에서 만족된다고 해석한다 (Tilden, Nelson, & May, 1990; Polit, Beck, & Owen, 2007)). Polit et al.(2007)은 3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0.78 이상의 CVR 값을 얻는다면, 이들이 제시한 의견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보았다. 아래 수식은 CVR 값을 산출하는 것으로, 5점 리커트 척도에서 4점과 5점에 해당하는 '적합 응답 수(Ne)'와 전체 응답 수(N)'를 통해 계산한다(Lawshe, 1975).

$$CVR = \{Ne - (n/2)\} / (n/2)$$

본 델파이 조사에서도 CVR 값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를 확인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고, Lawshe (1975)가 제안한 것과 같이 패널이 10인이므로 CVR 최소값 기준인 0.62 이상의 값을 획득한 문항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조사를 위한 내용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해석하였다(〈표 26〉).

6)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총 11인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였으나, 2차 및 3차에서는 1차에서 1인의 전문가가 탈락하여 총 10인의 전문가 패널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26〉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패널의 수 별 CVR 최소값

패널의 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CVR 최소값
3	.99
5	.99
6	.99
7	.75
8	.78
10	.62
11	.59
12	.56
13	.54
14	.51
15	.49
20	.42
25	.37
30	.33
35	.31
40	.29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CVR 값과 함께 의견 수렴도(convergence) 합의도(consensus) 값을 산출하여 2회차 및 3회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해석하는데 활용하였다. 수렴도는 0에 가까울수록, 합의도는 1에 가까울수록 의견수렴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는데, 대체적으로 수렴도는 0.5 미만, 합의도는 0.75 이상일 때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한다.

$$\text{수렴도} = (75\text{백분위} - 25\text{백분위}) / 2$$

$$\text{합의도} = 1 - [(Q3 - Q1) / \text{중앙값}]$$

요컨대 본 델파이 조사결과를 통해 종합적으로 전문가들 간 의견수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차 및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긍정률(전체 응답자 중 5점 리커트 척도에서 4점과 5점으로 응답한 응답자 비율, %), 내용 타당도(CVR), 수렴도 및 합의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창훈·서원석(2016)이 제시한 것과 같이 1) 긍정률 80% 이상, 2) 표준편차 0.8 미만, 3) 수렴도 0.5 이하, 4) 합의도 0.75 이상, 5) 패널 수 10명 기준에 해당하는 CVR 0.62 이상인 경우 등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델파이 분석 결과

먼저,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표 27〉)

〈표 27〉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인구사회학적 정보		1차(n=11) 명(%)	2차 및 3차(n=10) 명(%)
성별	남	4(36.4%)	4(40%)
	여	7(63.6%)	6(60%)
소속	시민사회	1(9.1%)	1(10%)
	학계	4(36.4%)	4(40%)
	정부기관	4(36.4%)	3(30%)
	연구소	2(18.1%)	2(20%)
국제개발협력 근속년수(연)	1년 미만	1(9.1%)	1(10%)
	2년 이상 - 10년 미만	2(18.1%)	1(10%)
	10년 이상 - 20년 미만	5(45.5%)	5(50%)
	20년 이상 - 30년 미만	2(18.2%)	2(20%)
	30년 이상	1(9.1%)	1(10%)

1차 델파이 조사는 개방형 질문지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에 대해 패널 11인 전원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연구진들은 각각의 응답된 문장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통된 응답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총 다섯 가지 항목 각각에 대해 7-8개의 응답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공통적인 응답은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응답 역시 포함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2차 및 3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의 내용은 앞의 〈표 27〉과 같다.

다음으로 2차 및 3차 델파이 조사는 설문조사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1차 델파이 패널에서 1인이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10인 패널이 모든 문항에 대해 응답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설문 항목 내 문항 각각의 의견수렴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GPEDC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개선안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긍정률 80% 이상, 표준편차 0.8 미만, 수렴도 0.5 이하, 합의도 0.75 이상, CVR 0.62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패널 내 의견이 수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설문 항목은 총 5개로 2차와 3차의 결과가 동일하다. 즉, GPEDC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GPEDC의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장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2) GPEDC와 GPEDC

활동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3) GPEDC 활동내용과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4) 현 개발 효과성 담론에서의 GPEDC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강화해야 한다, 5) GPEDC 내 추진체계와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등 다섯 가지이다. 특히, 수렴도가 낮은 6)과 7)의 개선안에 관해서는 비록 해당 개선안이 바람직한 대안이라 할지라도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것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었다(〈표 28〉).

〈표 28〉 2차 및 3차 델파이 분석 결과(1): GPEDC 전반적 운영 개선안

2차 설문조사 결과	기술 통계			집중경향치			CVR	합의도	수렴도
	평균	S.D.	긍정률	중위수	최빈값	사분범위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장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4.4	0.52	100.00	4	4	4.0~5.0	1	0.75	0.50
GPEDC와 GPEDC 활동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4.9	0.32	100.00	5	5	5.0~5.0	1	1.00	0.00
GPEDC 활동내용과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4.7	0.48	100.00	5	5	4.25~5.0	1	0.85	0.38
현 개발 효과성 담론에서의 GPEDC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강화해야 한다.	4.5	0.71	80.00	5	5	4.0~5.0	0.8	0.80	0.50
GPEDC 내 추진체계와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4.3	0.48	100.00	4	4	4.0~4.75	1	0.81	0.38
하위단위(지역별, 소그룹별) 차원의 대화 채널을 강화하고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4.1	0.88	40.00	4	5	3.25~5.0	0.4	0.56	0.88
GPEDC 원칙이 개발협력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4.4	0.84	60.00	5	5	4.0~5.0	0.6	0.80	0.50

3차 설문조사 결과	기술 통계			집중경향치			CVR	합의도	수렴도
	평균	S.D.	공정률	종위수	최빈값	사분범위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장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4.4	0.52	100.00	4	4	4.0~5.0	1	1	0.50
GPEDC와 GPEDC 활동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5	0.00	100.00	5	5	5.0~5.0	1	1	0.00
GPEDC 활동내용과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4.8	0.42	100.00	5	5	4.25~5.0	1	1	0.00
현 개발 효과성 담론에서의 GPEDC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강화해야 한다.	4.4	0.70	80.00	5	5	4.0~5.0	0.8	1	0.50
GPEDC 내 추진체계와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4.4	0.52	100.00	4	4	4.0~4.75	1	1	0.50
하위단위(지역별, 소그룹별) 차원의 대화 채널을 강화하고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3.9	0.88	20.00	4	5	3.25~5.0	0.2	1	0.88
GPEDC 원칙이 개발협력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4.3	0.82	60.00	5	5	4.0~5.0	0.6	1	0.50

주) 공정률 80% 이상, 표준편차 0.8 미만, 수렴도 0.5 이하, 합의도 0.75 이상, CVR 0.62 이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패널 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함.

둘째, GPEDC 모니터링과 지표에 관한 개선안에 관하여는 2차 조사결과 긍정률, 표준편차, 수렴도, 합의도, CVR 값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설문항목은 총 네 가지로 도출되었는데, 3차 조사결과 이 중 한 가지 항목이 탈락하여 총 세 가지 항목에서 패널 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항목을 살펴보면, 1) 모니터링을 보다 명확히하고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2) 모니터링 결과가 실제 개발효과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도를 강화해야 한다, 4) 모니터링 내용 및 지표와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에 맞게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로 나타났다. 비록 패널 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살펴보면, 5) 개선안에 관하여는 “각 모니터링 참여국들이 일관된 모니터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현재 GPEDC 자체가 국제 사회에 규범화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모니터링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소수의 의견으로서 6) 모니터링 지표의 명확화는 불필요하며, 현재 모니터링 지표 상태로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29〉 2차 및 3차 델파이 분석 결과(2): GPEDC 모니터링 및 지표 개선안

2차 설문조사 결과	기술 통계			집중경향치			CVR	합의도	수렴도
	평균	S.D.	극정률	중위수	최빈값	사분범위			
모니터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4.6	0.5	100	5	5	4.0~5.0	1	0.80	0.50
모니터링 결과가 실제 개발효과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도를 강화해야 한다.	4.6	0.5	100	5	5	4.0~5.0	1	0.80	0.50
모니터링의 목적을 다시 돌아보고, SDGs 시대에서 모니터링의 목적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4.5	0.7	80	5	5	4.0~5.0	0.8	0.80	0.50
모니터링 내용 및 지표와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에 맞게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4.8	0.4	100	5	5	5.0~5.0	1	1.00	0.00
각 모니터링 참여국들이 일관된 모니터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3.9	0.88	60	4	4	4.0~4.0	0.6	1.00	0.00
모니터링 지표가 보다 명확해지고 개도국의 현실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등 지표가 개선되어야 한다.	4.4	0.84	80	5	5	4.0~5.0	0.8	0.80	0.50
모니터링 참여국 내 담당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4.3	0.82	80	4.5	5	4.0~5.0	0.8	0.78	0.50

3차 설문조사 결과	기술 통계			집중경향치			CVR	합의도	수렴도
	평균	S.D.	긍정률	중위수	최빈값	사분범위			
모니터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4.7	0.5	100	5	5	4.3~5.0	1	0.85	0.38
모니터링 결과가 실제 개발효과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도를 강화해야 한다.	4.7	0.5	100	5	5	4.3~5.0	1	0.85	0.38
모니터링의 목적을 다시 돌아보고, SDGs 시대에서 모니터링의 목적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4.4	0.84	60	5	5	4.0~5.0	0.6	0.80	0.50
모니터링 내용 및 지표와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에 맞게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4.8	0.4	100	5	5	5.0~5.0	1	1.00	0.00
각 모니터링 참여국들이 일관된 모니터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3.8	0.92	40	4	4	3.3~4.0	0.4	0.81	0.38
모니터링 지표가 보다 명확해지고 개도국의 현실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등 지표가 개선되어야 한다.	4.2	0.79	60	4	4	4.0~5.0	0.6	0.75	0.50
모니터링 참여국 내 담당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4.3	0.82	60	4.5	5	4.0~5.0	0.6	0.78	0.50

주) 긍정률 80% 이상, 표준편차 0.8 미만, 수렴도 0.5 이하, 합의도 0.75 이상, CVR 0.62 이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패널 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함.

셋째, GPEDC 참여회원국의 수와 범위에 관해서는 어느 개선안도 패널 내 의견수렴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기본적으로 모든 응답의 CVR 값이 최소 기준값인 0.62 미만이었으며, 다른 지표들 역시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설문응답 외 전문가들이 각 설문항목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살펴보면, 현재 GPEDC 참여회원국의 수는 GPEDC가 원래 다양한 개발파트너를 포괄하는 것을 취지로 한 만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참여회원국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고안하더라도, 이러한 제도적 해법이 참여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참여회원국 수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기 보다는 GPEDC가 현행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목적과 내용 등에서 개편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참여국의 수는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표 30〉 2차 및 3차 델파이 분석 결과(3): GPEDC 참여회원국 수와 범위

2차 설문조사 결과	기술 통계			집중경향치			CVR	합의도	수렴도
	평균	S.D.	긍정률	중위수	최빈값	사분범위			
참여 회원국 수와 범위를 신용 공여국 중심으로 좀 더 좁혀야 한다.	2.5	0.8	20	2	2	2.0~2.8	-0.6	0.63	0.38
지금보다 중국과 인도 등 신용 공여국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4.1	0.9	70	4	5	3.25~5.0	0.4	0.56	0.88
지금보다 참여 회원국 수를 확대하기 위해 회원국 관리 제도 등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3.9	1	70	4	4	3.25~4.8	0.4	0.63	0.75
민간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주체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4.1	0.9	70	4	5	3.25~5.0	0.2	0.56	0.88
현재 참여 회원국의 범위는 적절하다.	3.2	0.8	40	3	3	3.0~4.0	-0.2	0.67	0.50
참여 회원국의 확대보다는, 기존 참여 회원국의 이탈 방지 및 적극적 참여 독려가 더 중요하다.	3.8	1.1	70	4	4	3.25~4.8	0.4	0.63	0.75
현재 참여 회원국 및 기관이 대표성을 갖는지 그 적합성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3.1	0.7	30	3	3	3.0~3.8	-0.4	0.75	0.38
현재 GPEDC에 시민사회 등 비정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다른 참여 회원국과 동일하게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9	0.9	80	4	4	4.0~4.0	0.6	1.00	0.00

3차 설문조사 결과	기술 통계			집중경향치			CVR	합의도	수렴도
	평균	S.D.	긍정률	중위수	최빈값	사분범위			
참여 회원국 수와 범위를 신용 공여국 중심으로 좀 더 좁혀야 한다.	2.6	0.7	10	2.5	2	2.0~3.0	-0.6	0.63	0.38
지금보다 중국과 인도 등 신용 공여국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3.9	0.7	70	4	4	3.25~4.0	0.4	0.56	0.88
지금보다 참여 회원국 수를 확대하기 위해 회원국 관리 제도 등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3.9	0.7	70	4	4	3.25~4.0	0.4	0.63	0.75
민간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주체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4	0.8	80	4	4	3.25~4.8	0.2	0.56	0.88
현재 참여 회원국의 범위는 적절하다.	3.3	0.7	40	3	3	3.0~4.0	-0.2	0.67	0.50
참여 회원국의 확대보다는, 기존 참여 회원국의 이탈 방지 및 적극적 참여 독려가 더 중요하다.	3.9	1	70	4	4	3.25~4.8	0.4	0.63	0.75
현재 참여 회원국 및 기관이 대표성을 갖는지 그 적합성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3.1	0.7	30	3	3	3.0~3.8	-0.4	0.75	0.38
현재 GPEDC에 시민사회 등 비정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다른 참여 회원국과 동일하게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8	0.9	70	4	4	3.25~4.0	0.6	1.00	0.00

주) 긍정률 80% 이상, 표준편차 0.8 미만, 수렴도 0.5 이하, 합의도 0.75 이상, CVR 0.62 이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패널 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함.

넷째, 부산포럼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개선안에는 2차와 3차 조사에서 모두 총 세 가지 개선안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구체적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개선안을 살펴보면 2) 부산포럼의 목적과 기여점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5) 부산포럼을 단발성 행사가 아닌, 개발효과성 논의의 후속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6) 개발 효과성 의제를 현 국제사회의 다른 현안과 의제(SDGs 등)에 긴밀히 연계하기 위해 부산포럼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다. 대체적으로 델파이 패널에서는 부산포럼이 현재와 같이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성 행사에서 머무르지 않고, 현행보다 적극적인 후속조치와 SDGs 어젠다와의 연계 등을 위해 생산적인 플랫폼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표 31〉 2차 및 3차 델파이 분석 결과(4): 부산포럼에 관한 개선안

2차 설문조사 결과	기술 통계			집중경향치			CVR	합의도	수렴도
	평균	S.D.	긍정률	중위수	최빈값	사분범위			
부산포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3.6	1.3	20	4	4	2.25~5.0	0.2	0.38	1.25
부산포럼의 목적과 기여점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4.5	0.7	80	5	5	4.0~5.0	0.8	0.80	0.50
부산포럼이 개발효과성의 정치적 모멘텀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고위급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담론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약, 협의사항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해야 한다.	4.2	0.8	60	4	4	4.0~5.0	0.6	0.75	0.50
GPEDC 활성화를 위해 현 부산포럼은 아시아지역 GPEDC 활성화를 위한 포럼으로 구체화하고, 다양한 지역에 제2, 제3의 부산포럼을 개최해야 한다.	3.6	1.2	0	3.5	3	3.0~5.0	0	0.50	0.88
부산포럼을 단일성 행사가 아닌, 개발효과성 논의의 후속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5	0.7	80	5	5	4.0~5.0	0.8	0.80	0.50
개발 효과성 의제를 현 국제사회의 다른 현안과 의제(SDGs 등)에 긴밀히 연계하기 위해 부산포럼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4.8	0.4	100	5	5	5.0~5.0	1	1.00	0.00
부산포럼을 토대로 GPEDC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3.5	1.1	20	4	4	3.0~4.0	0.2	0.75	0.50
GPEDC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상설 사무국을 신설해야 한다.(리서치 기능 강화 등. 단, 사무국 상설화에 따른 비용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3.8	1.1	0	3.5	5	3.0~5.0	0	0.43	1.00

3차 설문조사 결과	기술 통계			집중경향치			CVR	합의도	수렴도
	평균	S.D.	긍정률	중위수	최빈값	사분범위			
부산포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3.7	0.9	60	4	4	3.0~4.0	0.2	0.75	0.50
부산포럼의 목적과 기여점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4.6	0.5	100	5	5	4.0~5.0	1	0.80	0.50
부산포럼이 개발효과성의 정치적 모멘텀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고위급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담론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약, 협의사항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해야 한다.	4.1	0.7	80	4	4	4.0~5.0	0.6	0.81	0.38
GPEDC 활성화를 위해 현 부산포럼은 아시아지역 GPEDC 활성화를 위한 포럼으로 구체화하고, 다양한 지역에 제2, 제3의 부산포럼을 개최해야 한다.	3.5	1.2	40	3	3	3.0~5.0	-0.2	0.42	0.88
부산포럼을 단발성 행사가 아닌, 개발효과성 논의의 후속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5	0.7	90	5	5	4.0~5.0	0.8	0.80	0.50
개발 효과성 의제를 현 국제사회의 다른 현안과 의제(SDGs 등)에 긴밀히 연계하기 위해 부산포럼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4.8	0.4	100	5	5	5.0~5.0	1	1.00	0.00
부산포럼을 토대로 GPEDC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3.2	0.9	40	3	3	3.0~4.0	-0.2	0.67	0.50
GPEDC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상설 사무국을 신설해야 한다.(리서치 기능 강화 등. 단, 사무국 상설화에 따른 비용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3.8	1	60	4	4	3.0~5.0	0.2	0.56	0.88

주) 긍정률 80% 이상, 표준편차 0.8 미만, 수렴도 0.5 이하, 합의도 0.75 이상, CVR 0.62 이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패널 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함.

다섯째, LAP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를 확인한 결과, 2차 및 3차 조사 모두에서 모든 설문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이는 델파이 패널의 전문가들이 LAP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각 개선안 내용의 의미와 맥락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몇몇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참고해볼 때 LAP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의견수렴을 보이기 어려울 만큼 상충되는 의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 외에 몇몇 구체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현재 연수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LAP의 방식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참여회원국의 다양한 직급의 담당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현행 LAP의 연수내용을 모니터링 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재편하는 방안 등 현행 LAP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내용과 방식 면에서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32〉 2차 및 3차 델파이 분석 결과(5): LAP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개선안

2차 설문조사 결과	기술 통계			집중경향치			CVR	합의도	수렴도
	평균	S.D.	긍정률	중위수	최빈값	사분범위			
LAP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3.9	1.20	80.00	4	4	4.0~4.75	0.6	0.81	0.375
LAP의 성과 제고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적응가능성을 중점에 두고 연수과정이 실제 실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 및 관리 되어야 한다.	4.1	1.29	80.00	4.5	5	4.0~5.0	0.6	0.78	0.5
LAP의 부산포럼, GPEDC Work Plan, monitoring framework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3.9	1.29	70.00	4	5	3.3~5.0	0.4	0.56	0.875
LAP은 반드시 연수 사업일 필요가 없으며, 정기적으로 모든 회원국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3.7	1.34	70.00	4	4	3.3~4.75	0.4	0.63	0.75
LAP이 원조와 개발 효과성에 기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적 개발 효과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4.2	1.03	80.00	4.5	5	4.0~5.0	0.6	0.78	0.5
LAP이 GPEDC 포럼 개최를 위한 로지스틱스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시각 때문에 참여국의 거부감이 큰 것이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3.3	1.06	60.00	4	4	3.0~4.0	0.2	0.75	0.5
LAP 연수비용을 줄이는 대신 사무국과 관련 연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3.4	0.97	50.00	3.5	4	3.0~4.0	0	0.71	0.5

3차 설문조사 결과	기술 통계			집중경향치			CVR	합의도	수렴도
	평균	S.D.	긍정률	중위수	최빈값	사분범위			
LAP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3.9	1.20	80.00	4	4	4.0~4.75	0.6	0.81	0.375
LAP의 성과 제고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적용가능성을 중점에 두고 연수과정이 실제 실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 및 관리 되어야 한다.	4.1	1.29	80.00	4.5	5	4.0~5.0	0.6	0.78	0.5
LAP의 부산포럼, GPEDC Work Plan, monitoring framework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4.2	0.79	80.00	4	4	4.0~5.0	0.6	0.75	0.5
LAP은 반드시 연수 사업일 필요가 없으며, 정기적으로 모든 회원국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3.7	1.34	70.00	4	4	3.3~4.75	0.4	0.63	0.75
LAP이 원조와 개발 효과성에 기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적 개발 효과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3.5	1.08	50.00	3.5	4	3.0~4.0	0	0.71	0.5
LAP이 GPEDC 포럼 개최를 위한 로지스틱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시각 때문에 참여국의 거부감이 큰 것이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3.2	1.03	50.00	3.5	4	3.0~4.0	0	0.71	0.5
LAP 연수비용을 줄이는 대신 사무국과 관련 연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3.3	0.95	40.00	3	3	3.0~4.0	-0.2	0.67	0.5

주) 긍정률 80% 이상, 표준편차 0.8 미만, 수렴도 0.5 미만, 합의를도 0.75 이상, CVR 0.62 이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패널 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함.

V. GPEDC 활성화를 위한 개선전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PEDC의 활성화는 결국 국제규범인 개발효과성 논의의 장으로서 잘 작동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위하도록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져야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GPEDC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GPEDC 운영 개선

GPEDC는 2016년 위임사항(mandate) 개정을 통해 “사람과 지구, 번영과 평화의 공동 이익(shared benefit)을 위해 개발을 위한 모든 형태의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새로운 비전으로 발표했다(GPEDC 2016). 또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GPEDC는 1) 국가 수준의 효과성 지원, 2) 상호책무성과 SDG 이행을 위한 증거 발굴, 3) 지식공유, 4) 다중 이해관계자 간 대화의 장, 5)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 구축 등을 5대 기능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GPEDC는 이러한 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과 위상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효과성’ 논의에 대한 정치적 모멘텀을 구축하거나, 새로운 개발협력 체계와 연계 및 더 다양해진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면에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위급회담-운영위원회-부산포럼의 역할 분담을 통한 다층적 접근과 이를 지원하는 기능의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1) 개선방안 1: 다층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환기

전문가 패널의 의견과 같이 GPEDC의 국제사회 및 개발협력 어젠다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의사결정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개발 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분석된 자료와 정책 권고 등으로 무장된, 알려진 정치적 리더십에 달려 있다. 고위급 회의는 참여국가와 기관의 행동변화 의지의 수준을 강화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효과적인 개발 협력을 위한 데이터와 Best Practice 등 증거에 기반한 정치적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을 때 플랫폼으로서 GPEDC는 개발 협력 관행의 변화를 위한 글로벌 프로세스에 기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GPEDC는 개발재원포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 정치포럼, 개발협력포럼과 시너지를 제고해야 하며, 행동 변화를 주도하고 관련성이 있는 개발 협력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치적 약속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2019년 UN HLPF와 연계해서 개최된 SLM은 좋은 시도라고 판단된다. 이전의 나이로비 HLM에서 Work Plan과 같이 실무수준의 논의와 원칙의 재확인 수준의 논의에서 벗어나 GPEDC 고위급회담이 지향해야 할 개발협력 담론과의 연계, 다른 체계와의 접점과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GPEDC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 2년 단위 Work Plan을 제시하고 승인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의 비용부담 프로그램의 이행 및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거나 고위급회의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운영에서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GPEDC의 옹호자 및 홍보대사로 활동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의 우선순위 및 핵심 메시지가 관련 분야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등 가치의 확산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GPEDC 2016). 고위급 회의가 SDGs, 개발재원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협력 의제들과의 연계를 위한 기능을 강화한다면, 운영위원회는 Work Plan을 통해 모호한 개발효과성을 정의하고 사례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증거기반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반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2년 단위 작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인적자원, 파일럿 대상 국가 등의 확보와 배분, 모니터링 결과의 Work Plan 환류에 초점을 두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위원장 및 운영위원회의 자발적 기여와 작업(workstream) 참여국/기관의 인력과 같은 현물(in-kind) 기여에 의존하는 자원조달 방식에서 Work Plan 추진에 사용될 별도의 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예산조달에 관한 계획이 없거나 상세히 검토되지 않은 이행분야가 많고, 이 분야에서의 작업 이행 수준 편차는 매우 당연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별도재원(core funding)을 조성하여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관리, 배분하도록 하면서 ‘사례를 통한 정의’와 ‘증거기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GPEDC의 근간이 되는 증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작업된 산출물은 부산포럼을 통해 GPEDC 파트너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전문가 패널 의견에서와 같이 부산포럼이 현재와 같이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성 행사에서 머무르지 않고, 현행보다

적극적인 후속조치와 SDGs 어젠다와의 연계 등을 위해 생산적인 플랫폼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부산포럼이 GPEDC의 중점영역에 해당하는 주제들을 다뤄온 것에서 벗어나, 발굴된 Best Practice를 입체적으로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GPEDC의 원칙과 다양한 initiative가 결합된 성공적 사업을 Work Plan을 통해 발굴하고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경험을 공유하거나, 특정 SDGs 목표와 관련한 개발효과성 원칙 이행사례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벤치마킹 사례를 만드는 지식확산과 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부산포럼의 지식확산 기능은 OECD DAC 효과성 비공식작업반의 관심 영역과 논의의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OECD DAC 효과성 비공식 작업반은 GPEDC의 핵심 참여국가로서 DAC 회원국들에 구 “개발 효과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명확히”하는 동시에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반영하는데 도움되며, GPEDC와의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OECD DAC 내 공여국 간 작업반의 구성은 새로운 형태의 ‘공여국 만의 리그’를 만들 수 있고 개방형 플랫폼으로서 GPEDC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거나 활동의 결과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OECD DAC 비공식 작업반은 공식화해서는 안되고 계속 비공식으로 두어야 함.
공식화 되면 새로운 형태의 파리선언 리그 탄생할 수도... 효과성 관련 공여국간의
논의의 장이 부재한 가운데 비공식 작업반 형태로 만들어 진 것으로 판단...”*

(심충면접 3)

따라서 부산포럼을 활용하여 이해당사자로서 공여국 간 개발효과성 논의의 장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OECD DAC와 GPEDC와의 시너지를 제고하면서 동시에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논의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개선방안 2: GPEDC 운영위원회 지원 기능 강화

앞서 살펴본 GPEDC 운영위원회의 중심을 Work Plan의 작성과 이행, 그 과정에서의 자원분배로 본다면, 현재 JST와 공동의장국 지원인력 활용으로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실제로 GPEDC의 운영위원회 기록이나 Work Plan 작성과 관련한 공개된 문서들은 대부분 요약본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 토론과 승인 과정에서의 쟁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논의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배경문서(background paper)나 개념서(concept note)등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거나 홈페이지의 관리 주기가 불규칙하는 등 사무국/기구의 기능적 지원이 원활치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Work Plan의 수립과 이행과정에서도 선도국/기관의 인력들이 주로 활용되는 방식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독립 컨설턴트의 활용이나 연구자료의 취합 측면에서도 ‘독립연구’ 성격이 강해 산출물 간의 연계나 조율 기능을 담당할 상설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원기능 강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1) 상설 사무국 설치, 2) JST 기능강화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3) 상설 조직을 통한 연구수행 등으로 그 수준이 모두 달랐다. 상설 조직을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탄생한 GPEDC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UNDP-OECD 간 협력체계를 구상했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새로운 형태의 국제기구화를 우려하는 반대의견이 존재했고, 선도국/기관의 편향성이 반영될 수 있는 중점 영역을 상시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 제시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는 지속적인 예산의 확보 문제와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시 예산부담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확대될 개발협력 파트너의 범위, 검토하고 분석해야할 사업의 방식과 내용들을 고려한다면 운영위원회 내용면 지원을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나 기관 간 네트워크 지정 등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운영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core funding 조성을 추진한다면 사례발굴 및 분석 연구 부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소 설치 또는 지정을 추진하고, JST는 GPEDC 운영과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일종의 행정지원으로 역할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모니터링 개선방안

GPEDC 모니터링은 GPEDC 4대 원칙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개도국과 공여국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PEDC 모니터링은 절차와 지표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참여의 비지속성 및 모니터링 지표별 방법론의 한계를 보였다. 국내 전문가들 또한 델파이 조사에서 GPEDC 모니터링 방식과 지표 개선을 위해 모니터링 절차 개선, 활용도 강화 및 SDGs와의 연계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였다. 이에 본 연구진은 GPEDC 모니터링 개선방안으로 SDGs와의 연계성 강화와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도국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1) 개선방안 1: SDGs 연계성 강화

첫째, SDGs 시대에 맞게 GPEDC 모니터링과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GPEDC 모니터링은 SDG 5.c, SDG 17.15, SDG 17.16와 같이 3개의 SDGs 세부목표 측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GPEDC 모니터링 지표가 MDGs 시대에 개발된 만큼 SDGs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SDGs는 공여국과 개도국이 각각 원조 및 개발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하는 글로벌 목표인 만큼 GPEDC 모니터링 또한 SDGs와 필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 CGD의 QuODA, ONE Campaign의 Better Aid Scorecard 등 GPEDC와 유사하게 ODA의 개발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여러 측정도구들이 이미 개발되어있는 만큼, GPEDC 모니터링과 SDGs 연계성 강화는 하나의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다.

SDGs와의 연계성은 △SDGs 담론 및 원칙과의 연계, △SDGs 모니터링 보완 또는 △SDGs 분야별 연계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현재 GPEDC 모니터링의 목적과 개발효과성 원칙의 의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운영위원회 및 고위급 포럼을 통해 GPEDC의 4대 원칙을 재정비하여 SDGs 시대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원칙을 반영하여 10개의 모니터링 지표와 SDGs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겠다. 예로, SDGs에서는 사일로(silo)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여러 개발주체들을 조정(coordinate)하며 이들의 개발활동을 SDGs와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일치(align)하는 것을 강조하는 만큼 다양한 개발협력주체 간 조정 및 통합에 대한 원칙을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개도국에서 통합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분절화를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한편 SDGs 이행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베이스도 유엔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다. 예로, 시민사회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Equality Measures 2030는 SDG Gender Index를 개발하였으며, 영국 ODI는 SDG Scorecard 2030를 개발하였고 제프리 삭스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SDR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Dashboard 개발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에 SDGs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만큼 GPEDC는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지 않는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는 SDGs 지표와 세부목표가 완벽하지 들이 있는 만큼 GPEDC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 제시할 수 있겠다.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SDGs와의 연계성 확보 방안으로 이슈 및 분야별 접근을 제시하였는데 예로 SDGs 중에서도 개도국에서 특히 중요하거나 개도국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들)을

선정하고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다원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도록 맞춤형 지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SDGs 목표별 모니터링을 시행하게 되면 목표 실행 단위의 모니터링 플랫폼은 현재 부재한 상황인 만큼 GPEDC의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궁극적으로 GPEDC가 SDGs와 연계된 지표들을 확대, 수정하더라도 각국의 GPEDC 모니터링 참여가 SDGs 이행 진전과 효과적인 모니터링 결과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GPEDC는 여러 개발주체가 참여하는 플랫폼인 만큼, 모니터링 지표 개선과정에서 모든 구성원과의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논의 과정은 모니터링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GPEDC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다.

2) 개선방안 2: 모니터링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도국 역량강화

둘째, GPEDC 모니터링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GPEDC 모니터링은 주로 국가 단위에서 개도국 정부의 “국가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 코디네이터는 각 국가에서 공여국, 시민사회단체, 의회, 기업 등의 모니터링 참여를 주도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 코디네이터는 JST에서 작성한 자료 템플릿을 토대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는데, 실제로 각 모니터링 참여국들이 일관된 모니터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8년 3차 모니터링 이후 발간된 GPEDC 모니터링 후속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한 3차 모니터링 참여 59개국 중 39개국만이 모든 모니터링 내용을 이행한 반면, 20개국은 일부만 이행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한 국가에서는 국내 UN 기구들이 전혀 GPEDC 모니터링 참여에 응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개도국의 기획부처의 역량이 약해 특히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및 다른 정부기관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조정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일부 국가 코디네이터는 자료수집 도구를 개선하고 원격 기술 지원을 개도국 사정에 맞게 조정(tailor)하고 강화해야 하며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함을 제기하였다(GPEDC, 2019c). GPEDC 모니터링이 수원국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GPEDC 모니터링을 위한 양질의 통계자료를 수집, 생산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수원국의 지속적 참여를 확보하고 GPEDC 모니터링의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추진 중인 LAP과 부산포럼을 통해 개도국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LAP에서는 이미 GPEDC 모니터링 절차, 방법론, 통계관리, 제도개선 등을 다룬 바 있다. 또한 부산 포럼에서는 모니터링 세션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 및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세션을

제공해왔다. LAP을 통해 △GPEDC 모니터링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개도국 실무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관계자 외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의회 등 GPEDC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타 주체들을 연수생으로 초청하여 GPEDC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며, △LAP 모니터링 세션과 부산포럼 및 GPEDC 모니터링 개혁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진행하고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공유할 경우 보다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향후 GPEDC가 국제사회에 규범화된다면 모니터링의 일관적 준수 여부를 점검해볼 수 있겠다.

3. LAP 개선방안

지금까지 총 4차례 진행된 LAP 참여자들의 피드백과 결과문서, 심층면접조사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LAP의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1) 개선방안 1: **현행 LAP 운영방식 유지, 수원국 관심분야(SDGs, 개발 효과성, 모니터링 등)로 연수내용 재구성 및 고도화**

첫째, 현행 초청연수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LAP의 운영 방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연수 내용을 현재 수원국의 관심분야와 개발효과성 담론과의 연계성을 반영한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사실 4차례 진행되었던 LAP에서 연수내용과 연수분야나 주제 변경에 관한 피드백은 없었으나, 심층면접조사와 델파이 조사에서 LAP을 GPEDC 모니터링을 위한 수단이자 전체적인 GPEDC 활성화와 참여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회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LAP의 연수내용을 참여국들의 관심사에 맞추어 좀 더 실제적인 이슈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왜냐하면 LAP은 부산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수원국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실무급 개발파트너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정례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GPEDC의 제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LAP 운영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그 순기능을 살리면서, 현재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참여국들의 개발성과 달성에 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해볼 수 있다.

가령, 현재 수원국 측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SDGs 지표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등 제도적인 준비가 미흡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이 요원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LAP이 기존과 같이

GPEDC의 전반적인 운영방식과 모니터링에 관한 피상적 수준의 모듈 구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수원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SDGs 분야 각각에 대해 연도별 테마를 정해 참여국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에 관해 실무급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보다 SDGs 목표 별로 세밀한 모듈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LAP의 모듈을 변경할 시, 아래 면접조사 대상자 P1과 P2이 제시한 것과 같이 ‘개발효과성 담론과 현장의 이행역량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서 LAP이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부산포럼 개최국가로서 동 포럼을 GPEDC 아웃리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LAP 프로그램을 고도화, 강화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이행역량 강화와 현장-개발효과성 담론 간 격차 해소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더 나아가 향후 고도화된 LAP 프로그램의 성과 분석을 통해 개발효과성 원칙 내재화가 개발도상국의 개발성과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개발협력 컨텍스트에서 GPEDC가 가지는 부가가치를 증명해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정부기관소속 1)

“연수사업이라는 컨셉 자체는 유지하되, 중점 연수 분야(통계 역량 등)를 선정할 필요”

(정부기관소속 2)

동일한 맥락에서 현재 LAP이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GPEDC 이행을 위한 유일한 실무급 프로그램인 강점을 고려하여, 매년 참여하고 있는 수원국을 중심으로 2020-2022 GPEDC 모니터링 개선을 위한 작업에 수원국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고민을 논의하는 장으로 LAP의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다. GPEDC가 수원국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 파트너가 참여하는 국제적으로 유일한 플랫폼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공여측 중심의 하향식 개발 효과성 어젠다 선도 방식을 탈피하고, 아래로부터의 실제적인 개발 효과성-모니터링 관련 피드백과 개선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례적인 부산 포럼 및 LAP 프로그램 개최를 통해 GPEDC가 중점을 두고 추진중인 모니터링 개혁, 2020-2022 작업분야 추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포럼에서 모니터링 개혁의 진전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개혁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주체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LAP 프로그램에서 2020-2022 작업분야에서 도출된 수많은 교훈과 결과물들을 활용해 본 후, 활용에 대한 피드백을 향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방식으로 GPEDC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소속 2)

그러나 LAP을 통해 수원측의 개발 효과성과 모니터링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수집 및 환류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 개선안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연수내용이 실무에 직결됨으로써 실무에서 실제로 개발 효과성 개선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해야 하지만, 이러한 기능 강화가 실제로 수원국의 개발 효과성 강화에 기여했는지 그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정부기관소속1). 따라서 만일 LAP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서 GPEDC 모니터링 역량 강화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경우, 역량강화의 정도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상호 독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LAP는 개도국에 대한 GPEDC 원칙 등에 대한 연수사업으로, LAP 연수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기여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데 어려움은 존재함.”

(정부기관소속 2)

둘째, 앞서 LAP 참여 연수생들의 피드백 분석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많은 참여자들은 LAP에서 배운 내용들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직급과 권한의 한계로 인해 이를 본국에 돌아가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ODA 예산과 모니터링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연수하거나 보다 높은 직급의 관리자가 LAP에 참여하는 것이 LAP을 통한 지식확산에 유리할 것임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점은 LAP이 궁극적으로 수원국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매우 필요한 제안이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LAP이 포럼에 연이어 개최되는 특성 상 동일한 부서에서 2인 이상의 담당자가 LAP에 참석하기 어려워 대표 1인만 참석하여 실제로는 고위-실무 등으로 참가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등 문제가 있다.

“포럼과 LAP의 back-to-back 개최가 참석자 배정에 문제로 작용. 포럼은 대체로 고위급, LAP은 실무급이나, 대체로 같은 부서에서 인력이 자리를 비워야하여 대표하여 1명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 LAP 개최 취지에 맞지 않은 급에서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등 실질적인 운영상의 애로가 있음.” (정부기관소속 3)

셋째, LAP이 수원국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된다면 자연스럽게 참여국의 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LAP 참여자들의 피드백에서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등 좀 더 다양한 개발 파트너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과연 LAP의 외연이 확대될 때 분절적이고 산만한 네트워크가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LAP이 기존에 운영해왔던 대면 연수 프로그램은 당분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연수 프로그램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정례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LAP의 맥락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개선방안 2: Best Practice 발굴, 공유, 확산의 장으로서 LAP의 운영방식과 기능 전면 수정

둘째, 현행 LAP의 운영방식과 내용을 전면 수정하여, 수원국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 파트너들이 각자의 'Best Practice'를 발굴, 공유하고 확산하는 장으로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다. 심층면접조사에서 GPEDC의 참여국이 점차 확대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지, 그리고 LAP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는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현재 LAP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LAP 연수를 통해 '확실하게 학습하는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즉, 참여를 지속하고 확산할 만큼의 인센티브가 LAP에서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국이 필요로 하면서도, 다양한 개발 파트너 간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LAP이 각 국가 또는 섹터에서 Best Practice를 발굴하고 공유한다면 확실한 참여 인센티브가 될 뿐만 아니라 LAP의 성과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GPEDC 내 한국의 참여 제고 방안

1) 개선방안 1: Work Plan 및 Focus Area 참여 확대

부산총회의 주최국으로 GPEDC 수립의 기반을 마련했던 한국은 개발효과성 논의를 주도하고 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GPEDC 내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020년부터 운영위원으로 재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GPEDC 체제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참여의사를 밝힌 Work Plan 이행분야 1.2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최근 Work Plan 업데이트를 보면 1.2는 scoping paper 작업에 돌입했으며, 동 내용은 LAP과 연계될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관련하여 국내 전문가나 관련자들에 대한 scoping paper 작업내용을 공유하고 작성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국내에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작업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LAP 연계시 한국과 KOICA의 내용 측면에서의 기여방안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있어야 하며, JST, 선도국인 스위스와 연계의 형식 역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2021년 개최될 예정인 제5차 LAP의 주제로 데이터 및 통계역량 강화를 정하고, GPEDC의 의제변화를 고려하여 중점분야(Focus Area) 1.2와 3.1을 연계·통합하여 GPEDC 지원체계 내 역할을 강화하려는 KOICA의 노력⁷⁾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GPEDC가 2020 Work Plan의 이행분야를 중점분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당분간 동 분야에서의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이행분야 1.2 이외에 다른 분야 추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상세계안서 상의 재원확보 계획이 미진한 분야이거나(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향후 한국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분야(삼각협력 등)를 선정하여 Work Plan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GPEDC 체제의 유지와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동 분야에 대한 의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분야 참여와 함께 한국 ODA 사업 중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함으로써 GPEDC 모니터링과 개발효과성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GPEDC의 글로벌 영향력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GPEDC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산포럼과 LAP 플랫폼을 활용하여 한국의 Best Practice를 발표하고 확산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Work Plan이 2년 단위로 수립·추진됨에 따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Workstream을 발굴하여 2023-2025 Work Plan에 반영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GPEDC 원칙이 반영된 사업의 추진(주류화 등), 분석 연구, 전문가 육성과 세미나를 통한 논의 활성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7)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이행역량강화 프로그램(GPEDC LAP) 중장기 추진방안(KOICA, 2020, 미공개 자료).

2) 개선방안 2: 국내 GPEDC 논의 활성화

국제사회 뿐 아니라 국내 전문가 집단에서도 원조나 개발협력의 원칙 또는 기준을 언급할 때 GPEDC 보다는 여전히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 5대 원칙을 인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파리선언, 아크라선언 등이 연구보고서에 참조되는 빈도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적용되는 빈도에 비해, GPEDC는 개별 개발협력 사업 단위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다. 특히 부산선언을 채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우리나라에서조차 GPEDC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주류화 내지 내재화 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GPEDC의 필요성과 GPEDC 내의 주요 담론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저조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와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개발협력 전문가들이 그 이유로서 GPEDC가 SDGs와의 연계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GPEDC를 이끌어가야 할 주체들은 SDG 이행의 틀 내에서 모든 모니터링 지표를 바라볼 것이 자명한데, GPEDC와 SDGs 간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우면 많은 개발협력 주체들에게 GPEDC는 후순위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GPEDC가 SDGs 체제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해져야 국제사회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논의가 활성화된다는 지적이다. 설문에 응한 한 전문가는 다른 이유로 GPEDC가 SDGs와 같이 주제별, 이슈별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기도 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도 GPEDC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ODA 사업과 정책 과정에서 GPEDC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프로세스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SDGs 달성을 위한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를 여러 이해당사자와 논의할 장은 GPEDC가 유일하며 GPEDC만의 비교우위를 찾고 SDGs 체제 내에서 기여 점을 모색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를 위한 일단계로서 모니터링 결과에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메커니즘을 마련해 볼 수 있다. 전문가 심층 인터뷰와 델파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GPEDC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문이 많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취합한 모니터링 결과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현 개발협력 담론 내에서 어떠한 유기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겠는지 지표별 데이터의 활용도에 대해 모색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볼 수 있다. LAP의 경우에도, LAP의 만족도를 비롯한 평가결과를 운영주체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금번 LAP의 결과가 다음 LAP에 환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양한 데이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의 존재는, 전문가들이 모니터링 프로세스, GPEDC와 다른 담론과의 연계 프로세스에 관심을 갖게 만들며

GPEDC Next step에 환류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관여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전문가가 관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해야 한다.

또한 여러 전문가가 지적한 것처럼 Best practice의 존재도 국내 GPEDC 논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호적인 것인데, 2011년 부산총회 이후 국제원조 시스템에서 GPEDC가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존재 이유가 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Best practice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Best practice 발굴을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Best practice가 양산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요 원조 공여국이나 OECD DAC과 같은 주체가 GPEDC 이후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SDG 출범 이후 GPEDC가 동력을 잃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나라 전문가 집단에서부터 면밀히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에 관련한 담론을 주도하고자 GPEDC 출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담론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고민되어야 한다.

국내 전문가들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그 자체로 GPEDC 인식 제고와 전문가 논의의 발전과 수렴의 Best practice가 될 수 있으며 이 역시 필요한 Best Practice 중의 하나이다.

위와 같은 연구와 담론 측면이 아닌 정책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주도 Best practice를 모색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체계와 국내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는 개발협력 사업에 GPEDC의 4대 영역과 주요 내용이 실질적인 기준 요소로서 작동하고 있거나 고려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평가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수립하는 각종 국제개발협력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국가협력전략 등)에 부산포럼을 포함한 GPEDC 체제가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GPEDC 체제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통합 내지 연계 작업은 국내 인식 제고 측면에서 뿐 아니라 환류를 통해 GPEDC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며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의 일관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GPEDC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개발 자원 동원, 민간 참여, ODA 현대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총 공적지원(TOSSD) 논의 등의 이슈가 GPEDC와 별개가 아니라 GPEDC의 4대 영역 및 주요 내용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나아가 GPEDC의 틀을 활용하여

이러한 담론의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 할 수는 없겠는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등의 다양한 연계 작업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새로이 등장하는 개발협력 이슈들과 GPEDC 간의 연계 작업은, GPEDC가 변화하는 개발협력 환경을 반영하여 담아내고 있다는 인식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상당히 축적된 각종 모니터링-평가 기제에 대한 피로감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할 것이다.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GPEDC가 너무나 기술적(technical)이라는 의견이 다수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인식 역시 피로감의 일종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피로감 또한 이미 익숙한 개념들과의 연계를 통해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동 연구는 2030 어젠다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GPEDC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운영과 거버넌스, 모니터링, LAP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

본론에서는 먼저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와 GPEDC의 출범 배경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한 원조효과성 논의에서 개발협력 파트너십 논의로의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을 살펴보았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구성되었던 GPEDC 모니터링 지표의 구성과 이행절차, 그간 실행한 참여국들의 이행점검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2015년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체제로 변환되며 선진국, 신흥 공여국, 원조 외 재원과 민간 기업 등 확장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GPEDC의 역할과 방향성 설정과 변화하는 체계에 대응 적합성여부를 연구를 통해 집중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GPEDC의 구조와 역할분석을 통해 의제와 운영 거버넌스, 모니터링 체계, LAP 운영 현황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얻기 위해 GPEDC 국내전문가 10인 패널을 구성하였고,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시행을 통해 전문적인 GPEDC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발굴하였고 그 결과로 각 영역별 개선안이 제안되었다.

조사결과로 GPEDC의 운영 개선안은 1) 고위급 장관 참여 필요, 2) GPEDC 활동 인지도 및 이해도 제고, 3) GPEDC 활동내용과 SDGs 연계성강화, 4) 개발 효과성 담론에서 GPEDC 연관성 확보, 5) GPEDC 내 추진체계 및 주체 명확화 등이 제안되었다.

모니터링 지표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1) 모니터링 지표 명확화 및 간소화를 통한 절차개선, 2) 모니터링 결과와 개발효과성 제고 연계를 위한 활용도 강화, 3) 모니터링 지표와 SDGs와의 연계성 강화 및 지표 개선이 언급되었다. GPEDC 참여회원국 수와 범위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으로 점차적 확대방안, 제도적 인센티브, GPEDC의 효과적 운영방안 개편 등이 논의되었고, 부산포럼에 대해서는 단발성으로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후속조치와 SDGs 어젠다와의 연계 등을 위해 생산적인 플랫폼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LAP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상충된 의견이 있었지만 온라인 방식 전환 등을 통한 변화 도모, 참여회원국 다양한 직급 참여 독려, 연수내용 모니터링을 통한 재편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연구를 통해 GPEDC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전략으로 우선 다층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환기가 필요하다는 점과 GPEDC 운영위원회 지원 기능 강화가 제안되었다.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SDGs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과 모니터링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도국 의 역량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LAP 운영방안 개선을 위해서 현행 LAP 운영방식 유지, 수원국 관심분야(SDGs, 개발 효과성, 모니터링 등)로 연수내용 재구성 및 고도화가 필요하며, Best Practice 발굴, 공유, 확산의 장으로서 LAP의 운영방식과 기능 전면 수정이 제안되었다. 더하여, GPEDC 내 한국의 참여 제고 방안을 위해서 Work Plan 및 Focus Area 참여 확대방안과 국내 GPEDC 논의 활성화가 제안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 속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도 명확히 드러났다.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델파이 조사의 방식으로 취합하여 전문적이면서도 현실적용이 가능한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GPEDC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관심과 이해의 범위가 서로 상이하고, 전반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여 델파이 패널을 구성하는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패널로 섭외를 했으나, 질문에 답할 수 없거나 답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배경지식이 없음을 이유로 응답을 거절한 전문가도 다수 있었다. 델파이 조사의 전제조건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비슷한 수준의 지식을 갖춘 패널들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 연구가 다소 추상적인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 및 참여 기관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이 시간상의 제약과 GPEDC 내외부의 사정으로 어려워지면서 보다 현실적인 결론을 제시하는데 한계로 작용했다. 또한 GPEDC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문서들에 접근이 가능했으나, 대부분의 문서들이 요약본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내용적인 면에서 심도 깊은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GPEDC의 개선에 관한 연구나 KOICA 사업 내 GPEDC 주류화 방안, 우수사례 등을 후속연구로 제안해볼 수 있다. 2차레에 걸친 Work Plan으로 GPEDC의 내용과 구조에 관한 연구주제들은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와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운영방식에 대한 한계와 개선방안, 위원회의 구성과 참여기관의 대표성 문제 등을 다루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운영위원으로서 한국의 기여분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GPEDC 활성화를 위한 KOICA 사업 내 GPEDC 주류화 방안 연구, 이를 통한 LAP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사례 분석 및 발굴 관련 연구를 통해 국내외 GPEDC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개발효과성 논의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종려. 2011.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 이행평가(phase 2)」요약. 국제개발협력. 241-252.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권율, 정지원, 허운선, 정지선, 이주영. 2016.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율, 김영혜, 박수경, 이태주, 이현주, 정유아, 정지선, 정지원, 정혜선, 조미진, 최성호, 한재광. 2019.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개선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석호. 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 김은미, 조희정, 박민정, 송지선. 2015. 「OECD DAC 개발협력 주요 이슈 논의 동향과 한국 국제개발협력 전략 연계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김지현. 2016. 「SDGs 지표 체계와 모니터링: 불평등성 완화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2016 No. 2.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김태균. 2015. 「포스트-2015 개발시대의 분절적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 국제지역연구 24 권 3호 가을 95-126.
- 김태균, 김보경, 심예리. 2016. 「국제개발 규범의 국내화 과정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25, 81-125.
- 박수경, 이주영. 201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주요 논의와 성과」.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 5. No. 48.
- 박은하. 2015.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손혁상, 박보기, 김남경. 2014.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민관협력사업(PPP) 연구: KOICA ‘글로벌 사회공헌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3권 2호 2014 여름. 121-155.
- 신원규, 송지연, 홍성창, 방호경, 최현이, 조아연.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체제하 효과적인 개발/경제협력 발전 방안」.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오수현. 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파트너십과 자원메커니즘」. 『국제개발협력』, 2015(3), 3-19.
- 외교부. 2016.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정책 방향」. 외교부: 주OECD대표부.

- 윤유리. 2019. 「2030 어젠다 달성을 위한 GPEDC의 역할 및 한국의 기여 방안」. 개발과 이슈, 2019(53), 1-16.
- 이성훈. 2012.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과 시민사회의 과제: Post-Busan 이행체제에서의 시민사회의 발전방안」. 『국제개발협력』, 2012(3): 41-54.
- 이종성. 200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창훈, 서원석. 2016. 「델파이법을 이용한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 도출」.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9(6), 32-37.
- 이춘식. 2014. 「검인정 교과서의 선정 제도 개선을 위한 델파이 조사 연구」. 교과교육학연구, 18(3), 561-578.
- 이태주, 홍문숙, 권현진, 윤소진. 2012. 「Post-Busan 이행체제와 우리나라 ODA의 전략 및 방향 연구」. 국제개발협력학회.
- 임소진. 2012.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협력효과성으로」. 『국제개발협력』, 2012, 11-30
- 정지원, 이주영. 2011.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이행 성과 및 평가.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 5, No. 46.
- 홍상희. 2012.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과 우리나라 ODA 정책과제」. 『국제개발협력』 2012(3): 11-21.

국외문헌

- Atwood, J. B. 2012. "Creating a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Washington, DC: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 Bena, F. T., and B. Tomlinson. 2017. "The Outcome of the 2nd High Level Meeting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and Why It Matters". Black Rock, Nova Scotia: Aid Watch Canada.
- Besharati, A. 2013. "A Year After Busan: Where is the Global Partnership Going?" Occasional Paper No. 136. South Afric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Bracho, G. 2017. "The Troubled Relationship of the Emerging Powers and the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Agenda: Histor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iscussion Paper: No. 25/2017. Deutsches Institut für Entwicklungspolitik (DIE).

- Brown, J., M. Stadelmann, D. Wang, L. Boni, R. Jachnik, and T. Kato. 2015. "Estimating Mobilized Private Finance for Adaptation: Exploring Data and Methodology." Climate Policy Initiative Report, OECD.
- Buchner, B. 2015. "Climate Finance in 2013–14 and the USD 100 Billion Goal." Report by the OECD in collaboration with Climate Policy Initiative.
- Corbin, J., and A. Strauss. 2014.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age publications.
- Wedhrmann, D. 2018. "Incentivising and Regulating Multi–Actor Partnerships and Private–Sector Engage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 Eyben, R. and L. Savage. 2013. "Emerging and Submerging Powers: Imagined Geographies in the New Development Partnership at the Busan Fourth High Level Forum."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9(4): 457–469.
- Finnemore, M., and K. Sikkink. 1998.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4): 887–917.
- GPEDC. 2013. "Second Meeting of the Steering Committee: Summary."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_____. 2014. "Making Development Co–operation More Effective: 2014 Progress Report."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_____. 2015a. GPEDC's Pilot Indicators: Refined Methodologies for Indicators 1, 2 and 3.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_____. 2015b. Seventh Meeting of the Global Partnership Steering Committe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_____. 2016. Making Development Co–operation More Effective: 2016 Progress Report.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_____. 2017. 2017 and 2018 Programme of Work.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_____. 2018a. 2018 Monitoring Guide: for National Coordinators from Participating Governments.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_____. 2018b. Overview: Additional Refinements to the Global Partnership Monitoring Framework.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_____. 2018c. Technical Companion Document.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_____. 2019a. 2019 Senior-Level Meeting: Draft Concept Not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_____. 2019b. “Enhancing Effectiveness to Accelerate Sustainable Development: A Global Compendium of Good Practices.”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_____. 2019c. Strategic Priorities for the Global Partnership’s Work Programme 2020–2022: Co-Chairs’ Proposal.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_____. 2020. 19th Steering Committee Meeting.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Janus, H., S. Klingbiel, and T. Mahn. 2014. “How to Shape Development Cooperation? The Global Partnership and the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Briefing Paper 3/2014. Deutsches Institut für Entwicklungspolitik (DIE).
- Jurkovich, M. 2019. “What Isn’t a Norm? Redefining the Conceptual Boundaries of ‘Norms’ in the Human Rights Literatur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 Keijzer, N., and E. Lundsgaarde. 2016.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Sustaining the Development Effectiveness Agenda.” DIIS Policy Brief. Copenhagen: 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 Klingbiel, S. and X. Li. 2016. “Crisis or progress?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 after Nairobi.” *International Development Blog*, 7 December. Accessed 10 April 2017.
- KOICA. 2018. “Concept Note for Korea’s 2018 GPEDC Learning and Accelerating Programme.” KOIC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NDP.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Li, X. 2017. "Should China join the GPEDC? The prospects for China and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Discussion Paper: No. 17/2017, Deutsches Institut für Entwicklungspolitik(DIE).
- McKee, C., C. Blampied, I. Mitchell and A. Rogerson. 2020. "Revisiting Aid Effectiveness: A New Framework and Set of Measures for Assessing Aid 'Quality'." Working Paper 524,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6. "2015 Outcome report annual forum: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Development Policy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 _____. 2017. "2016 Outcome report annual forum: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Development Policy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 _____. 2018. "2016 Outcome report annual forum: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Development Policy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 OECD. 2006.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Paris: OECD.
- _____. 2006. "2006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Paris: OECD.
- _____. 2007. "2006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Overview of the Results." Paris: OECD.
- _____. 2008.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Making Aid More Effective by 2010." Paris: OECD.
- _____. 2011. "Aid Effectiveness 2005-10: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Paris: OECD.
- _____. 2008.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and the Accra Agenda for Action." Paris: OECD.
- _____. 2011. "Aid Effectiveness 2005-2010: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Paris: OECD.
- _____. 2012.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Lessons

- Learned from Paris and Accra: Actions to Move Forward.” Paris: OECD.
- _____. 2016. “Better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6: A New Framework for Policy Coherence.” Paris: OECD.
- _____. 2017. “MEASURING DISTANCE TO THE SDG TARGETS.” Paris: OECD.
- _____. 2020.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is: OECD.
- OECD DAC. 2003. “Harmonizing Donor Practice for Effective Aid Delivery.” Paris: OECD.
- _____. 2006.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Paris: OECD.
- _____. 2009.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Paris: OECD.
- OECD/UNDP. 2019. “Making Development Co-operation More Effective: 2019 Progress Report.” Paris: OECD.
- Panke, D., and U. Petersohn. 2016. “Norm Challenges and Norm Death: The Inexplicable?” *Cooperation and Conflict* 51(1): 3–19.
- Paul, D. 2019. “GPEDC Officials Call for Effective Cooperation to Get SDGs ‘Back on Track’.” IISD. July 23, 2019.
- Polit, D. F., C. T. Beck, and S. V. Owen. 2007. “Is the CVI an acceptable indicator of content validity? Appraisal and recommendations.” *Res Nurs Health*, Aug30(4): 459–67.
- Tilden, V. P., C. A. Nelson, and B. A. May. 1990. “Use of qualitative methods to enhance content validity.” *Nurs Res*. 39(3):172–5.
- United Nations.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 Ziglio, E. 1996. “The Delphi method and its contribution to decision-making.” in Adler & Ziglio(Eds.), *Gazing into the oracle: The Delphi method and its application to social policy and public health*, 3–33.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연구정보 2020-18-277

2030 어젠다 달성을 위한 부산글로벌파트너십
(GPEDC) 활성화 전략 모색 연구

발 행 2020년 12월

발 행 인 손혁상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ODA연구정보센터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 화 1588-0434

팩 스 031)740-0260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주)명진씨앤피

I S B N 978-89-6469-569-2 93320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2030 어젠다 달성을 위한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 활성화 전략 모색 연구

